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2월 11일(음력1월 21일) 수요일 (주간) 제460호



“팔경법 원점에서 무효화 하자”

법인 스님 비구로는 처음으로 비구니 차별 문제 거론

혜능 스님 “율장 오해말라” 진오 스님 “시대흐름 수용을”

선우논강, 16일 ‘바람직한 승가상’ 토론

승단의 양성평등 문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해 1990년대 불교의 여성학적 접근, 2000년대 팔경법에 대한 문제제기 논란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2월 16일 실상사에서 열리는 제9회 선우논강(대표 철오)에서는 비구 · 비구니 승단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논하는 자리를 마련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논강에서는 법인 스님(대흥사 수련원장)이 비구 스님으로는 처음으로 팔경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끈다.

이와 함께 올해 국내에서는 ‘한국비구니 국제학술대회’, ‘세계여성불자대회’가 개최돼, 이번의 선우논강이 비구니 위상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선우논강은 ‘초기불교 이부중(二部衆)과 바람직한 오늘의 승가상’을 주제로 도법 스님(前 실상사 주지)의 기조강연에 이어 법인 스님이 주제발표를, 혜능 스님(해인사 율원장), 진오 스님(대둔사 주지)이 논평에 나선다.

법인 스님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오늘날 바람직한 비구 · 비구니 관계 정립과 승가상을 세우기 위해 팔경법은 원점에서 무효화하고, 동등한 수행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헌=완전무결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엄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이를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말이라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쳤다”며 “부처님도 그 시대의 사회 환경을 참조해 설법했으며, 직계 제자와 후대 제자들 간에 달랐던 의견이 후대에 경과율장에 삽입됐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인 스님은 여인오장설의 구체적인 모순점을 들며 “도저히 부처님의 친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여인오장설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부처님 말씀에 어긋나고, 여성의 출가를 허락해 정법이 오백년 감소했다는 결정론적 사고방식은 ‘무아와 연기’라는 부처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 스님은 불가의 여성차별을 논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팔경법에 대해 “팔경법이 부처님에 의해 일부만들어지고, 일부는 역사적 과정에서 후대에 첨가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에 무게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팔경법의 조항들이 시대 상황과 법정신에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승가의 위계는 출가한 연령으로 확립되며, 깨달음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비구 · 비구니의 상하 위계문제는 명백한 불평등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친설이라면 당시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서 비구니를 보호하고 비구니 승가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특수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법인 스님의 주장에 대해 논평자 혜능 스님과 진오 스님은 뜻을 달리하고 있어 이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혜능 스님은 “율장은 불설이기 이전에 지금까지 승단을 유지시켜온 승단의 존재 근거”라며 “세간의 법으로 출세간의 법을 해석해선 안되며 율장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은 율장에 대한 이해부족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 기본 교육 커리큘럼에 ‘계율’을 공부할 기간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러나 논평문에서 비구니와 비구 용어를 바꾼 팔경법을 제시한 진오 스님은 “팔경법은 생명존중과 평등사상을 가르친 부처님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팔경법의 폐지보다는 시대흐름에 수용 가능한 양성 평등의 청규를 제정해 변화하는 교단을 만드는 것이 한국 불교의 글로벌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박사님, 별과 어떻게 대화하나요?” 2월 4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열린 제1회 불교 어린이 천문학 교실에서 이시우(사진 왼쪽) 천문학 박사와 어린이들이 망원경을 통해 별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이날 이시우 박사는 “별을 보면 순수해 지고, 순수해지면 더 불법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피안사=박재완 기자

현대불교 창간 10주년 연중 캠페인

나누고 손잡으면 세상은 ‘따뜻’

‘나눔의 손잡기 운동’ 보시문화 확산
도움 주실분(단체)-도움 필요한 곳 연결
조선일보 ‘우리이웃’ 네트워크와도 연계



‘나눔의 손잡기’ 운동은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연계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나누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본지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사회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동체대비(同體大悲)’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을 생활화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불교신문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보시자들을 연결하는 나눔 중개소가 되고자 합니다. 각 종단 및 단체,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이렇게 전개합니다

- **홍보**
  각 종단 및 단체의 나눔운동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운동을 전개합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 는 불자들을 모집해 자원봉사가 필요한 곳에 연결해줍니다.
- **나눔의 손잡기 기금**
  온라인을 통해 기금을 보내주시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장애우들에게 성금을 전달해 드립니다.
- **마일리지 및 쿠폰 기부**
  불자들이 적립한 소액 마일리지와 쿠폰을 접수받아 복지단체 등에 전달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가게 선정**
  불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눔의 가게’를 선정하여, 저금통을 제공하고, 재고 물량을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 **불자기업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불자 기업의 후원을 통한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사찰도서관, 공부방 만들기, 사찰유아원 만들기 사업도 전개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 **외국인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합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골수, 혈소판 모으기**
  헌혈증 및 혈소판 모으기 행사에 참여해 생명나눔운동에도 앞장섭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주는 사연도 접수합니다.

▶ **온라인 캠페인** www.buddhanews.com

▶ **동참문의 및 제보**: (02) 722-4162~3/ www.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영축총림 방장 초우 스님 추천

4일 통도사 임회서 만장일치



영축총림 통도사의 차기 방장 후보로 현 부방장 초우 스님(사진)이 추천됐다.

통도사는 4일 오후 2시 감로당에서 제 37회 임시 임회를 열고 영축총림 통도사 차기 방장에 초우 스님을 만장일치로 중앙종회에 추천했다.

19명의 재적 위원 중 18명의 임회 위원 스님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임회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초우스님은 임회 위원 스님들의 추천을 수락하면서 “대중스님들의 뜻을 모아 총림의 모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방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주지도 산중 스님들의 뜻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초우 스님은 1947년 출가, 73년 통도사 주지, 1981년 조계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할’

그림 · 조태호

- 혜산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선원장 초청 대법회 고우 스님 ‘선의 본질과 의미’ 2월 15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

현대불교 제9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2월 14일 오후 2시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

봉은사 육조단경 논강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宗旨)는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입니다. 그 중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곧 선가(禪家)의 종지입니다. 그러므로 조계종의 법맥(法脈)은 부처님의 염화미소(拈花微笑)를 이어 보리 달마에서 육조 혜능으로 이어지는 삼십삼조사의 가르침과 할(喝)을 놓아 천하를 호령하였던 임제 선사(臨濟禪師)의 가르침을 맥으로 삼은 것입니다.

육조단경은 예로부터 선종(禪宗)의 제일 경전이 되어왔고 선문제과(禪門諸波)의 종지가 쏟아져 나온 원천이 된 경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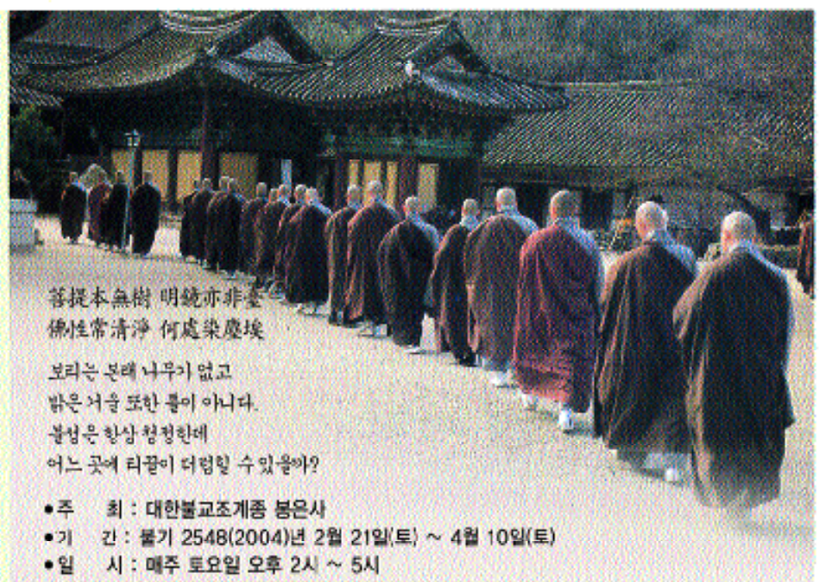
이에 봉은사 봉은학림에서는 재방에서 수행하시는 선사 스님과 학문에 몰두하시는 학인 스님 그리고 재가 학자들을 모시고 육조단경 논강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도심 포교당에서 또는 각 사찰에서 포교활동에 몰두 하시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스님들과 좀더 깊은 공부를 통하여 신심을 키우고자 하는 재가 신도들이 함께하는 사부대중 무차 논강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산 봉은사 주지 雪潭 圓慧 합장

논강일정표

	날짜	주 제	논주	논사		진행
1강	2.21	육조단경 사상1(돈오견성)	혜국스님	-	-	영진스님
2강	2.28	육조단경 사상2(좌선의 정의)	혜국스님	-	-	영진스님
3강	3. 6	육조단경 내용정리(청문)	혜국스님	-	-	영진스님
4강	3.13	육조단경에서 대승불교 수용	성본스님	-	-	법인스님
5강	3.20	육조단경(무상계)	지안스님	정각스님	이덕진	차 차 석
6강	3.27	육조단경(반야-중관)	이 중 표	각묵스님	박인성	용학스님
7강	4. 3	육조단경(불성사상)	김 진 타	세등스님	김저성	김 호 성
8강	4.10	육조단경과 실참수행	고우스님	-	-	영진스님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기 간 : 불기 2548(2004)년 2월 21일(토) ~ 4월 10일(토)
-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 소 : 보우당 • 카페 : cafe.daum.net/haglim
- 동 참 비 : 100,000원(교재 제공)
- 접 수 : 봉은사 포교교육팀(516-5652, 3218-4811~17)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3 ☎511-6070~4



‘입는 일’도 수행이다

일상복 · 의식복 모두 제각각
‘분소의’ 정신 돌아가 ‘법답게’

칠석을 맞아 경동시장에 새벽 장을 보러 갔을 때다. 장 보러 나온 스님들의 옷차림이 제각각이다. 두루마기까지 챙겨 입은 스님들이 있는가하면 속적삼을 입은 스님(색깔도 가지각색이다), 동방아 스님, 티셔츠에 조끼 스님, 잠바 스님에 이르기까지. 삭발을 하고 아래는 회색바지를 입었으니 스님인 것은 분명한데,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다.

큰스님 다비장에 가도 마찬가지다. 두루마기 차림의 스님서부터 장삼만 입은 스님, 반가사 · 대가사, 각양각색의 가사 색으로 ‘승복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해제하고 만행 나온 스님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누더기 두루마기로 거리를 쓸고 다니는 분이 있는가하면 조끼와 등산화로 한껏 멋을 낸 스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날 스님들의 의제(衣制)를 거론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법의(法衣)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율장>을 통해 보면 교단이 커짐에 따라 옷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승단 출범 후 초기에는 버려진 천으로 만든 분소의(糞掃衣)를 입었으나 이것이 한계에 부딪히자 재가자로부터 가사를 공양 받게 되었고, 부처님은 아난존자에게 명하여 네모나게 정리된 논밭의 모양을 본떠 가사를 만들게 했다. <율장>에 나와 있는 옷에 관한 정신은 욕심을 줄이는 것(少欲知足)과 출가자의 위의를 지키는 것(攝持威儀)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출가자가 옷의 질이나 양에 있어 사치를 부리고 도를 넘어 축적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고, 위의를 지키는 것은 법의를 통해 출가자다운 모습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율장>의 정신을 이어 받아 이 시대에 맞는 출가수행자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시청각 교육이 효과가 빠르듯 포교도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거룩한 모습의 스님이 진리를 말하고 참된 삶을 실천한다면 재가자 모두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스님들의 의식(意識)이 바뀌어야 한다. 수행자는 세상을 도피해서 자기만의 만족을 찾으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다. 개인주의와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출가정신을 바르게 알고 불법을 지켜가기 위하여 청정한 모습과 여법한 위의를 가꾸도록 종단이 적극 나서야 한다.

다음은 제도적으로 의식복(儀式服)과 일상복, 외출복을 제정하여 통제 · 관리하는 문제이다. 법계를 의제에 표시해서 번거로움을 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옷을 법답게 정하고 관리하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어지러운 복식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승가의 위엄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세상이 싫어하고 얼굴 찌푸리는 일은 전법포교에 손상됨을 스님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

■본각 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조계종 불교문화산업센터

불교문화센터 연내 착공

태고종 불교문화전수회관

서초동에 5천평규모 지상 4층 · 지하 3층
유 무형 문화 상품화 · 체험 교육 시설도
법륜사에 1천6백평 규모, 6월 첫삽
영산재 등 전승 · 복원 · 연구 등 종합공간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1월 29일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48년 신년하례법회’에서 축사를 하며 “올해 착공될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한국불교전통문화전수회관’ 건립사업에도 마음 깊이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대 키워드인 문화를 이끌어 갈 두 곳의 대규모 불교문화 공간의 건립이 본격화돼 교계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불교의 양대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은 전통불교문화와 문화콘텐츠를 소재로 한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수회관 건립 계획을 내놓았다.

두 곳의 기능은 유 · 무형으로 계승되어 온 전통 불교문화와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 총본산.’ 불교문화산업센터와 불교문화전수회관이 문을 열 경우 간화선과 영산재, 단청 등 불교에 국한되어 있던 불교문화는 ‘업그레이드된 대중문화로’ ‘세계속의 한국문화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92-15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연건평 5천여평 규모로 불교문화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불사를 연내에 시작한다. 200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224억원. 이 가운데 122억원은 국고보조를 받고 나머지 122억원은 조계종이 부담한다.

불교문화산업센터에는 불교회화 및 공예품 전시 · 판매실과 불교예술 체험관, 사찰음식문화 교실 등 체험 · 교육 시설과 불교조각 · 음악 전시실, 전통불교문화상품 판매소 등 전시 · 판매시설과 공연시설, 벤처 보육시설, 상품화공용 연구시설이 들어선다. 간화선, 템플 스테이, 불교의식, 불화 등을 소재로 한 연구와 교육, 자료축적, 원형 복원 등 다양한 작업이 이뤄진다.

태고종도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 조계종 불교문화산업센터에 버금가는 회관을 건립한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층 연건평 1천6백여평이며, 명칭은 불교문화전수회관. 불교문화전수회관이라는 이름에는 불교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후대에 전승하겠다는 태고종의 의지가 담겨 있다. 중앙종무기관, 법당, 국제회의실 외에 단청 · 탱화 상설전시관, 공연장, 전통차 체험실 등을 마련한 것도 ‘태고종=전통종단’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전수회관은 종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산재(무형문화재 50호), 단청 · 불화(무형문화재 48호), 전통차 등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유 · 무형의 불교문화를 전승 · 발전시키기 위한 복원 · 연구도 이뤄진다.

태고종은 국고보조비 60억원을 포함해 총 120억원을 들여 2005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6월 불사를 시작한다.

박봉영 · 남동우 기자

지적수준 향상, 신행에 영향 안줘

조계종 포교원 기본교육 효과 분석
“지식 위주 교육 수행 못 이끌어”

조계종이 신도 의무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본교육이 기초교리 등 지적 이해에는 도움이 되나 봉사, 신행 등 실참실수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지난해 연중사업으로 신도기본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변화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결과는 임의표본 방식으로 추출한 50여 개 사찰에서 불교교양대학 등을 통해 기본교육을 받은 1,077명의 설문을 분석한 것이다.

기본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해 그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과 기본교육을 받고 난 후 불교교리의 이해(7.08), 법회 의식의 이해도(6.65)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반면 봉사활동의 적극성(5.93), 신도회 및 신행활동의 적극성(5.94), 정기적인 신행활동의 참여도(6.00) 등에서는 교육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기본교육을 받고 난 후 사찰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데에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평균 3.46→6.09) 이것이 염불 간경 참선 등의 정기적인 신행활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전 신행활동 참여도는 3.11이었는데 교육 후 평균치는 2.89 포인트 늘어난 6.00으로, 다른 조사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신도기본교육 전과 후의 태도 변화 (10점 만점)

	교육 전	교육 후
생활 변화와 자긍심	3.92	6.84
정기적인 법회 참여	3.46	6.09
법회 의식의 이해	3.46	6.65
기초교리 이해(부처님 생애 등)	3.46	7.08
재적사찰 갖기 및 신도등록 필요성 인식	3.54	6.83
정기적인 신행활동	3.11	6.00
신도회 및 불교활동 참여	3.03	5.94
타인에게 불교를 말할 수 있는 자신감	3.08	6.35
봉사활동의 적극성	3.35	5.93
신도전문교육기관 입학 희망	3.38	6.59

이 때문에 교리에 대한 이해 등 지적인 이해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신행활동과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등 이타행의 실천이 겸비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도기본교육에 참여한 동기를 보면 ‘법회 등에서의 홍보를 통해’란 응답자가 전체의 30.4%로 나타나 해당 사찰 주지 스님의 홍보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무교육임을 알고 자발적으로’(22.1%)란 응답도 비교적 높았지만 현수막(8.9%)이나 사보(6.8%)를 통한 사찰 외부의 홍보 효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도기본교육 참가자의 신행이력은 평균 9.54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8.84년)보다 여자(9.75년)의 신행이력이 약간 길었다. 4년 미만의 초심자들이 31.3%로 가장 많았는데 6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층에 상관없이 4년 미만의 신행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 다양한 연령층의 새 신도가 계속해서 입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형진 기자

통일은 ‘필요’ 차등은 ‘글쎄’

조계종 교육원 ‘승가복식 통일…’ 설문결과

옷 입는 것은 통일해야 하지만 법계에 따라 옷에 뭔가 표시하는 것은….

대부분의 조계종 스님들은 승가복식 규정과 착용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계에 따른 의제 구분에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법계위원회 산하 의제실무연구회(의장 종진)와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법선)가 ‘본 · 말사 주지 연수 대상자 및 선원 · 강원 대중’ 1,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승가복식 통일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사 결과 10명 중 8명(80.5%)의 스님은 승가복식 전반에 걸친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46.6%)하거나 적극 공감한다(33.9%)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의 46.7%가 ‘청정하고 검소한 승가복식의 정신이 희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너무 문란해 통일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3.8%에 달했다.

그러나 법계에 따라 의제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6%만이 공감한다고 밝혀 반대의견(44.4%)도 상당수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위계에 따른 수직적 차별의식, 일종의 위화감 조성으로 승가 화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법계에 따른 의제 구분을 위해 가사에 탈 · 부착하는 휘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68.6%의 응답자가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31.4%였다.

조계종 고유의 승가복식 제정에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 63.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변별성을 높이기 위해 조계종 상징 마크나 표식을 복식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 스님도 63.6%에 그쳤다.

한편, 응답자의 79.2%는 종단에서 가사를 제작하여 법계 품서식 때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형진 기자

각 종단 모든 공고 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상표등록
미스타
첨단 기술이 모두에게
안전과 평안함을 드립니다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25/1, 12/1의 절약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안전장치를 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적게 사용하는 것이 운용과 안전에
더욱 경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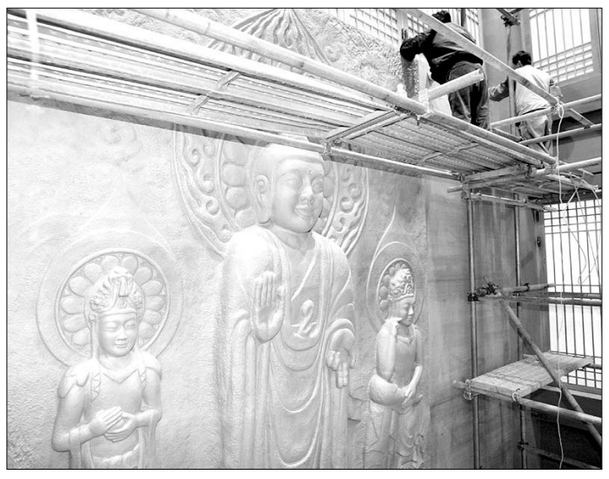
▣ 한국전력공사 저압전력 사용량별 요금표

사용량(kWh)	요금(원)	사용량(kWh)	요금(원)
50	2,310	260	32,260
60	3,200	270	34,130
70	4,100	280	36,020
80	4,990	290	37,900
90	5,880	300	39,780
100	6,780	310	44,720
110	8,590	320	47,440
120	9,890	330	50,150
130	11,190	340	52,870
140	12,500	350	55,580
150	13,800	360	58,300
160	15,090	370	61,020
170	16,390	380	63,730
180	17,690	390	66,450
190	19,000	400	69,710
200	20,300	500	112,430
210	22,850	600	188,460
220	24,730	700	258,510
230	26,610	800	328,580
240	28,500	900	398,640
250	30,370	1000	468,690
		1250	

전자전구 사용 전력
1/25배 절약
일반전구 사용 전력

긴급 써비스
기술 지원 팀
011 · 9996 · 8872

전화 031-791-8871 792-8867~8



■ 자태 드러낸 '백제 미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봉안되는 마애삼존불상이 드디어 자태를 드러냈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마애삼존불상은 가로 4.5m, 세로3.6m 크기로 서산마애삼존불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역사문화기념관 17일 준공식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준공 기념 및 마애삼존불 제막식이 2월 17일 오후 2시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열린다.

고불식, 마애삼존불 제막식, 축사, 축하공연, 테이프 절단식 등으로 이뤄지는 1차 준공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비롯, 정·관계 인사와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교구본사 주지회의도 개최된다.

남동우 기자

"反 환경 정치인 우리가 심판"

환경단체, 17대 총선 낙천·낙선 운동 결의

'반 환경적 정치인은 우리가 심판한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반 환경적 정치인에 대한 본격적인 낙천·낙선 운동에 돌입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등 50여 환경단체들은 2월 4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2004 총선환경연대(공동집행위원장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를 발족시키고 1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1차 공천 부적격자는 강봉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 김영진(새천년민주당, 광주시 서구 출마 신청), 김태식(새천년민주당, 전북 완주·임실), 맹형규(한나라당, 서울 송파 갑), 박병윤(새천년민주당, 경기 시흥), 이상희(전 한나라당 의원, 비례대표) 등 총 6명.

총선환경연대는 "전직의원 및 추가된 공천자들을 대상으로 2차 낙천 대상자를 심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불상이 케이블카보다 흉물"

통영시장, 불교 폄하 발언 용화사와 합의설 제기도

진의장 통영시장이 1월 20일 마산 MBC 라디오방송 '아침을 달린다'에 출연해 미륵산 케이블카와 관련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이 미륵산 정상에 국내 최대의 미륵불 세워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세워 놓으면 케이블카보다 더 흉물이 될 것"이라고 불교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진 시장은 또 "(통영 용화사가)문화재로서 보수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보수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타협이 잘 됐다"라며 조계종과 합의 설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부인했다.

남동우 기자

"108참회·가족참선·보시 등 16가지 청규 실천"

'생전예수재'를 '수행결사'로

봉은사 '생활 속 신행' 제시

기복신앙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던 생전예수재가 재가불자들의 수행결사로 거듭난다.

봉은사는 2월 27일 부터 4월 18일까지 열리는 생전예수재를 '참회하고 공덕 짓는 예수재'를 주제로 한 '참살림 수행결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전예수재는 '참회를 바탕으로 선근공덕을 쌓는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수생전(受生錢)을 보시해 생전의 빚을 갚아야 극락왕생한다는 내용만 부각됐다. 이는 사찰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발해 불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봉은사가 '참살림 수행결사'를 기획한 이유도 이번 결사를 통해 윤달에 49일 동안 열리는 생전예수재를 '생활 속의 신행'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한국불교의 올바른 신행의 모델로 제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참살림 수행결사는 16가지 청규를 제정해 실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결사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108 참회, 지장기도, 지장염불, 5계 지키기, 가족 참선, 매일 일정액 보시하기, 송경, 사경, 보살행 등 청규를 매일 실천하고, 이를 지도법사 스님으로부터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청규와 수행에 대한 신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자율적인 신행결사이면서도 입재일, 회향일, 7일 7재 동참을 비롯해 결사기간 중 반드시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청규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49일 동안 수행한 후 헌혈, 장기기증·사후 시신기증 서약 등의 보살행으로 결사를 회향한다. 결사 기간 중 행해지는 각종 봉사, 보살행 등은 생명나눔운동본부, 강북종합사회복지관, 역삼청소년수련관, 삼전종합복지관, 작은보시 큰 자비 등의 단체들로부터 협조를 받기로 했다.

봉은사 교무국장 혜문 스님은 "7일 간격으로 법회를 여는 생전예수재의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사찰에서 이뤄지는 신행을 가정으로 확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우란분절에 2차 수행결사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북한산·천성산 지키기 환경운동

평가 토론회 열린다

북한산 천성산 등 2003년을 뜨겁게 달궜던 환경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운동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공동대표 일면)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2월 10일 오후 1시부터 '2003 환경운동 심층평가와 새로운 운동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천성산,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로 바라본 환경운동' 분과에서 이병인 밀양대 교수는 '천성산,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의 현황과 평가'를,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천성산,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의 전망과 해법'을 각각 발표한다. 염태영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과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 박선경 우이령보존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에서는 조승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한 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등이 토론을 한다.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운동의 한 축이었던 불교환경연대도 지난 2년여간의 북한산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월 12일 오후 2시 조계사 불교대학 4강의실에서 열리는 '북한산 국립공원 반대활동 평가 토론회'는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활동과 불교환경연대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박선경 시민사회연석회의 사무국장이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활동의 성과와 반성'을, 박석동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이 '불교환경활동의 새로운 모색'을 각각 주제 발제한다.

발제후 소주제에 따라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대학 템플스테이 강좌 인기

중앙대 10분만에 신청 마감

중앙대가 올해 봄학기부터 개설한 3학점짜리 산사체험프로그램인 '내 마음 바로 알기' 강좌가 수강신청개시 10분 만에 150명 정원을 다 채워 높은 인기도를 반영했다. 중앙대가 강좌를 개설한 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수강신청 마감 기록을 세운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 강좌를 기획했던 중앙대 교양학부 최달호 계장은 "예상 외로 반응이 좋아 놀랬다"며 "정신적으로 황폐해져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고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라고 그 배경을 분석했다.

이 강좌는 오는 3월부터 공주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이 4주간 명상, 화두선 등의 명상법 이론을 강의한 뒤, 4월부터는 2박3일간 일정으로 마곡사에서 108배 및 새벽숲길 걷기 명상, 발우공양, 자기 마음 열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경주서 발견된 원지 분황사 인공못 추측

경주 '황룡사 전시관 건립부지'에서 발견된 '원지(苑址)'는 분황사 인공 못으로 추측된다는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광진)가 분황사 동편 외곽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부지 내 유적을 발굴조사 한 결과로, 연구소는 지도위원회에서 이외에도 금동판보살좌상(金銅板菩薩坐像), 금동신장상(金銅神將像)을 포함한 1,330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고 2월 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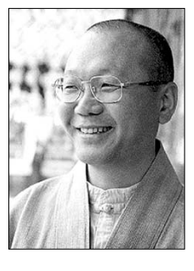
발굴조사에 참여한 김교연 학예사는 "인공 연못이 조성된 시기가 분황사가 가장 번창했을 당시와 일치하는 점, 발견된 축대 중 가장 오래된 축대가 분황사 경계와 이어지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분황사의 '사지(寺址)'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

"직할교구 본사서부터 선 수행 바람몰이 할 터"

인터뷰

전국 선원장 초청대법회 여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에서부터 선 수행 기풍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조계사(주지 지홍)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동주최하는 '간화선 중흥을 위한 전국선원장 초청 대법회'를 앞둔 지홍 스님은 "이번 법회를 조계사 '수행원년'의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홍 스님은 "선 수행의 현장에서 실참실수하는 선원장 스님들을 초청, 최근 문제가 됐던 잘못된 '간화선 위기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재가 신도들의 수행을 고취해 수행의 대중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제방 선원에서 스스로 간화선을 탐구하고 후학들을 양성중인 선원장급 이상의 선 지도자들이 연이어(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총 12회) 법회를 갖는 것은 조계종 최초의 일. 이런 뜻깊은 불사가 조계사에서 개최된 것은 오래 전부터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져 온 지홍 스님의 원력에 따른 것이었다.

수년전 종회 포교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포교원에 <재가자 수행지침서>를 편집하도록 독려했으며 이미 2년전 사내에 수행원을 설립, 재가자들의 참선과 간경, 염불 수행의 틀을 다져온 것도 수행에 대한 일관된 관심 때문이었다. 지난 1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폭발적인 참여 속에 진행되고 있는 '수행법 대강좌' 역시 수행의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조계사의 변신을 웅변하는 대목이다.

"종단의 정체성은 수행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복신행에 만족해 온 불교가 이제는 수행불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신앙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행이 중심이 되는, 그것도 조계종의 제1종책인 '간화선 중심의 수행 종풍(宗風) 진작'에 앞장서고 있는 지홍 스님은 입적한 광덕 스님의 상좌로서 스승의 '반야바라밀 수행법' 즉, 참선, 계율, 간경, 염불, 보살행 등의 5대 방편을 충실히 닦아왔다.

지홍 스님은 "이번 법회는 선지식들의 살아있는 법문을 도심에서 들을 수 있는 드문 기회이자 화두선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밝은 청정 맑은 햇살로 빚은
금강경 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서리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을 때 솔잎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뚝메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1말 6kg
■ 청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청국장

메주 주문 연락처 H·P :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서울 02)742-0172
부산 051)514-3566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대전 042)862-8638
창원 055)299-5419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광주 062)681-3268
강릉 033)644-9009

(재)복식품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진산법연

초대합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이 다가오는 날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에서
정념스님 취임법회를 마련하고자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고
격려와 축하로 깨어있는 도량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 일시 : 불기 2548(2004년) 2월26일(목요일) 오전 11:00
◎ 장소 : 월정사 대적광전



수희동참바랍니다.

이번 진산법연에 화환이나 화분 등
축하용품을 정중히 사절하오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에게
정성을 나누고 뇌종양으로 투병중인
조주희 어린이에게
일편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오니
자비로 섭수하시고 수희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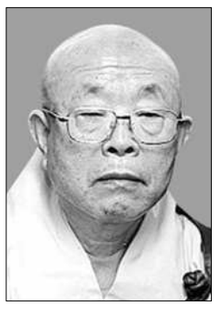
◎ 계좌번호 : 농협 313065-55-000803
◎ 문의전화 : 월정사 종무소
TEL 033-332-6661~6664
FAX 033-332-6915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정병 건드리지 말고 물만 가져오너라”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전략)남전 선사는 등은봉 스님이 참문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정병(淨甁)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정병은 경계이다. 그대는 경계를 건드리지 말고 물을 가져오라.” 이에 등은봉이 정병을 가져다가 선사의 앞에 쏟으니 선사가 벽력같이 말했습니다. “그만 둬.” 이에 귀종 선사가 말했습니다. “등은봉도 또한 함부로 쏟은 것이니라.”

등은봉 스님께서 해제를 하고서 남전 선사를 찾아 갔습니다. 정병은 납자들이 길을 다닐 때 물을 넣어 다니는 병입니다. 마시기도 하고 또 뒷물을 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병의 물을 두고서 남전 선사와 등은봉 스님이 한 거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은봉 선사는 거꾸로 서서 열반에 든 종문(宗門)의 대종장(大宗匠)입니다. 해제를 하고서 만행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선지식과 한판을 겨루고는 사라지곤 했습니다. 등은봉 스님은 만행을 하면서 말없는 가운데 우레소리를 내기도 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때로는 미끄러운 길에서 헤매기도 하면서 길을 다녔습니다. 해제를 하고서도 많은 선지식을 참방하면서 법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남전 선사에게 정병으로 인하여 한소리를 얻어 듣고는 자기의 공부 경계를 내보였으나 결국 제대로 된 안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급하게 서둘러도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하게 한다면 이 역시 공부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피리 불기에 능숙하다면 박수 치는 것에도 능해야 합니다. 만일 박수치는 것에 능하지 못하다면 피리를 부는 이가 헛수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해제대중들에게 묻겠습니다.

남전 선사가 “정병은 경계이다. 그대는 경계를 건드리지 말고 물을 가져오라”고 하니 등은봉 스님은 정병을 가져다가 선사의 앞에서 쏟아버렸는데 이를 ‘함부로 쏟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등은봉 선사가 함부로 쏟은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한철동안 정진 끝에도 알아차리지 못한 대중이 있다면 해제길이 곧 결제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략)

각 총림 해제법어 (요약)

지난해 11월 8일 결제에 들어간 계미년 동안거가 2월 5일 각 선원의 해제법회를 끝으로 일제히 회향했다. 이번 동안거에는 해인총림 해인사를 비롯해 영축총림 통도사, 조계총림 송광사, 고불총림 백양사, 덕숭총림 수덕사 등 조계종 5대 총림과 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해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천3백여 명의 스님이 결제에 들었다. 〈편집자 주〉

▶고불총림 백양사는 전 방장 서옹 스님 원적 후 아직 후임 방장을 추대하지 않아 해제법어를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해제 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의 포커스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망상의 근원 아는 것이 청정의 근원”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전략)대중들은 일러보라. 어찌하여 문수보살은 선정(禪定)을 깨우지 못하였고, 어찌하여 망명보살(罔明普薩)은 선정에서 나올 수 있게 하였는고? 모른다면 귀띔해 주리라.

문수는 큰 지혜에 걸려 넘어지고 망명은 한 가닥 망상(妄想)은 있으나 망상에서 마음을 깨우기는 쉬웠다 하리라. (중략)

대중들은 들어라, 지혜로써 망상을 버리는 것이 옳겠는가! 망상을 망상으로써 버리는 것이 옳겠는가! 지혜가 곧 망상이요, 망상이 곧 지혜이니라. 만일 망상의 근원(根源)을 알면 당장에 쉬어서 위로는 부처를 구할 것 없고 아래로는 악(惡)을 겁낼 것 없으며, 중간에는 생과 사를 두려워 할 것이 없으니 그것이 청정(淸淨)의 근원이며 천진(天眞)한 묘도(妙道)이니라. (후략)

“꿈속 시끄럽다가 깨나면 고요하다”

보성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대지변성은색계(大地變成銀色界)
혼신주재수정궁(渾身住在水精宮)
수능구작화서몽(誰能久作華胥夢)
풍감랑간일이중(風撼琅玕日已中)
대지가 온통 은세계로 변했나니
온몸이 수정으로 된 궁전에 머물러 있다.
누가 능히 화서의 꿈을 꾸었나.
바람은 낭간을 흔들고 해는 한낮이 됐다.

질병과 원한, 사방에는 모진 관리들로서 온갖 폐단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바로 이런 경우를 당해 어떻게 하면 고요히 일이 없을까?

“많은 노력은 필요 없고, 다만 잠자지 말라. 자지 않으면 꿈이 없고 꿈이 없으면 일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꿈속에서는 매우 시끄럽다가 깨고 나면 고요히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귀는 귀가 아니요 눈 역시 눈 아니다”

초우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부방장)

(전략)자, 그건 그렇다 치고 얼른 말해보라. 소리가 귀에 오는가, 귀가 소리에 가는가? 비록 메아리와 고요함을 둘 다 잊을지라도 이에 이르러 어떻게 얘기할꼬! 만약 귀로 듣는다면 알기 어려울 것이고 눈으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비로소 친할 것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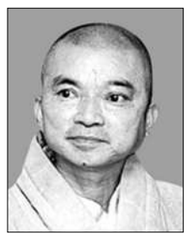
시회대중(時會大衆)은 들으시오. 오늘 동안거 해제일을 맞아 이르노니, 과거 운문 스님은 ‘종소리가 나는데 왜 칠조가사를 입느냐?’고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답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소리마저 안광(眼光)으로 들어야지 입으로 말하면 그르칩니다. 입술을 떼는 순간 선지(禪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선가에서는 아무리 복잡한 암호구조도 한방에 풀어냅니다. 이것이 ‘문성오도(聞聲悟道)’요, ‘견색명심(見色明心)’입니다. (중략)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일은 천하에 있을 수 없는 일이나 귀란 원래의 귀가 아니요, 눈이란 역시 본래의 눈이 아님을 꿰뚫어 통찰해야 합니다. (후략)

“조사관 타파때까지 정진, 또 정진”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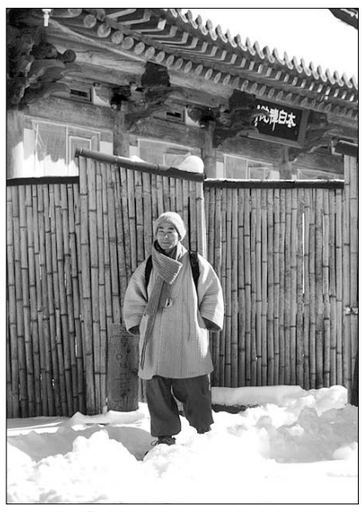


(전략)이 주장자라는 물건은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는 물건입니다. (중략) 쓸 줄 알면 제불조사와 천하성현이 모두 이 주장자에서 나왔고 아승지겁과 일월성신과 천지미물까지도 모두 이 주장자가 창조하였습니다. 쓸 줄 모르면 안으로 아상(我相)을 기르고 밖으로 탐진치의 독을 번지게 하여 삼악도로 속행하는 비수와 같습니다. (중략)

오늘의 해제대중도 삼동결제 동안 두문불출하고 선방에 들어 앉아 생사를 걸어두고 참선하였지요? (중략)그 향상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연한 조사관의 타파가 있을 때까지 해제, 결제에 구애 말고 정진 또 정진합시다. 우리의 진정한 (중략)해제는 확철대오의 그 날이 해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략)

본래 자기 찾기에는 입제와 해제가 따로 없으니 …

각화사 태백선원 15개월 가행정진 해제하던 날



3개월의 재충전을 위해 태백선원을 나서는 한 수좌.

새벽 1시 예불 입선, 밤 10시 취침, 하루 3시간의 잠, 15시간의 참선.

일종식 12명(오전 불식 3명, 오후 불식 9명), 묵언 5명….

2002년 음력 10월 보름 입제해 15개월 동안 매일 하루 15시간의 가행정진(加行精進)을 한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 수좌들이 2월 5일 해제를 했다.

하루 3시간만 자고 15시간씩 가행정진을 하고난 스님들의 모습은 어떨까, 놀라움 속에 찾은 각화사에서 스친 수좌 스님들의 얼굴은 더없이 맑았다. 피곤한 기색은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선기가 형형했다.

일반 선원의 용맹정진 기간은 보통 6~7일. 안거에 들어가도 3달이면 끝이 나지만 이곳 태백선원의 안거는 15개월 동안 진행된 셈이다. 수좌 스님들이 대중공사를 거쳐 해제 없는 1년 단위의 정진을 결의, 동안거 기간을 더해 15개월의 용맹정진을 마친 것이다.

그러나 스님들은 3개월동안 해제 기간을 가진 후 다시 1년 용맹정진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가행정진 결사는 처음에 32명의 스님들로 입제를 했다. 병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10여 스님들이 떠났고 20명 수좌들이 끝까지 함께 회향했다.

10~20년의 수행 이력이 지긋한 구참들이 모였지만 구참 수좌들도 힘들었던 고행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수좌 스님들을 뒷바라지해온 태백선원장 고우 스님은 “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위가 일치하면 24시간 수행도 가능하지요. 고행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것이라 버티지요. 그렇기에 발심이 중요합니다”라면서 “선이란 무엇을 따로 찾는게 아니라, 깨달을 대상이 따로 있다는 착각을 부수는 것이며, 본래 자기를 찾기 위한 노력도 입제와 해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스님들의 쉼없는 정진 의지를 대견해 했다.

3개월의 해제 기간은 태백선원 수좌들에게는 더 강도 높은 수행을 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갖는 일종의 재충전 기간.

수좌 스님들은 해제 전날 저녁 선방에 모여 안거기간동안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반성하는 자자(自恣)를 했고 5일 새벽, 예불을 봉행한 후 선방 문을 나섰다.

글=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가행정진 회향을 축하하듯 푸짐하게 내린 서설(瑞雪)이 만행 떠나는 스님들을 말없이 배웅한다.

2004년도 동산불교대학 · 법사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4기생을 모집함

불교학과	근본불교 · 대승불교 · 화엄사상 · 인도불교 · 중국불교 · 한국불교 · 불교개론 · 불교미술 · 선종사상 · 밀교 · 포교방법론 등 18과목
한문학과	한문법(1) · 한문법(2) · 장자 · 주역 · 논어 · 금강경 · 법화경 · 화엄경 · 선가귀감
불교미술학과	① 불화1(단청), ② 선화(달마도) ③ 불화 2, ④ 불화 3(이론과 실기)
다도학과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 제다학(1)(2)(3) · 한국의헌다례 · 다와정신
문예창작학과	문학의 이해, 문예사조사, 불교문학, 문예작품감상, 미학, 불교이해, 장르별 창작 실기, 불교사상사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불교학과 200명 (정규,주간,통신반) 다도학과 30명	불교학과(50명) 불교미술학과(30명) 문예창작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 2004년 2월 6일까지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문예창작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수요일오후 2시(불교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2004년 2월 접수중 (동산불교회관)

● 본 대학 사무국 :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서울 : 보련각(조계사 앞) 02)733-0333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신규강좌

불교문예창작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10일(수) 오후 2시개강

과목	· 문학의 이해 · 문예사조사 · 불교문학 · 문예작품감상	· 미학①(동양미학) · 불교학 이해 · 장르별 창작실기	· 미학②(서양미학) · 불교사상사 · 문예작품감상(학생작품) · 작품창작지도
지도교수	· 김영무(극작가, 희곡작가협회 부회장) · 김홍우(동국대 예술대 학장) · 백시종(소설가, 한국문협 이사) · 신상성(소설가, 용인대 교수)		· 신세훈(시인, 한국문협 이사장) · 박진서(수필가,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 채상우(문학평론가, 동국대 국문과 출강) · 무진장스님(동산불교대학장)

불교한문학과 (3년과정) 정규반,통신반 2004년 3월 4일(목) 오후 7시개강

과목	· 한문법 (1) 한문법(2) · 신심명, 육조단경 · 명심보감, 장자, 주역, 논어 · 능엄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육조단경
지도교수	· 김형중 (동대부고 교법사) · 심재동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찬우교수(승가대), 무진장스님, 김병조 교수

다도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9일(화) 오후 2시개강

과목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 제다학(1)(2)(3) · 한국의헌다례 · 다와정신 · 다구학 · 차와선 · 차도문헌 · 차식물학 · 차성분학 · 차품평학 · 차시장학 · 사찰다도법
지도교수	· 이귀례 교당선생임 / 선혜스님 / 박희준교수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 2004년 3월 10일(수) 오후 2시개강

이론 실기	· 단청이론, 실기 · 기초 선긋기 · 불화이론, 실기 · 사왕초, 보살초, 여래초그리기 · 사불이론, 실기
지도교수	· 윤열수교수(문화재전문위원) · 법인스님(한국사불수행연구회 원장) · 김익홍교수(전 동국대)

과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한문경전)	법화경(3)	박 종	법화경(1)(2)(3)(4), 화엄경(1)(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산스크리트 · 팔리원전)	팔천송 반야경	김형준	팔천송반야경(1)(2)
능엄경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2시	능엄경 보경소(4)	송찬우	능엄경(1)(2)(3) (4)(5)(6)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4시	근본불교 (수행론 구차제정)	최봉수	근본불교(1)(2)(3) - (6)(7)(8)(9) 금강경 법화경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4년 2월 1일~ 2004년 3월 6일(토)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2004년 3월 8일(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2004년 3월 4일(목) 오후 4시 ● 능엄경학과 : 2004년 3월 9일(화) 오후 2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 ·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DONGSAN 법사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지역에 가까이, 더 가까이…

대구 경북 불교계 복지시설 확충 나서
전문 요양원 건립 등 삶의 질 높일 계획

대구경북지역 불교계가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한다. 거리 좁히기 차원이 아니라 함께 뒹굴며 동고동락 하자는 것이다. 그 매개체는 복지. 복지시설을 대폭 늘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에서다.

불교사회복지회와 감천복지재단에서는 치매노인 전문 요양소를,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재단들의 복지시설 설립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불교사회복지회가 대구 남구 이천동에 건립중인 저소득층 치매노인전문요양원 '여래원' 조감도.

불교사회복지회가 2002년부터 대구시 남구 이천동에 준비중인 저소득층 치매노인전문요양원 '여래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35평 규모로 70베드를 갖추고 3월말 개원예정이다.

또 조계종 감천복지재단도 지난해 말에 지하1층 지상 2층 연건평 600평 규모의 치매중풍노인 전문요양원을 대구시 동구 진인동에 착공해 9월쯤 완공, 치매노인 70여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 두 노인 요양원이 개원할 경우 지역 노인 복지는 물론, 불교복지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월 29일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위한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 강윤구 차관으로부터 설계비 2억원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준비 중이던 1만여 경주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체육관 건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체육관은 올해 하반기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말쯤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600평 규모로 경주시 황성동에 지어질 장애인체육관은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경주지역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훈련과 지역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도 2004년을 불교복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어 지역 복지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정토회, 깨끗한 땅 넓히기 본격화

부산 · 울산 · 광주 법당 잇달아 개원

열린법당 정토회(지도법사 법륜)가 부산, 울산, 광주에 잇달아 법당을 개원하고 '정토 넓히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토회는 부산 명륜동 법당에 이어 2월 21일 오전 10시 개원 법회를 갖고 해운대 정토법당(051-747-9997)을 개원한다. 또한 울산 법당(052-245-8995)은 2월 14일 오후 1시에, 광주 법당(062-511-8990)은 22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원 점안 법회를 갖고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로써 정토회는 서울, 대전, 부산, 마산, 청주, 대구 법당에 울산, 광주, 부산 해운대정토법당을 보태어 총 8개 지역에 9개의 법당을 갖추고 환경 · 복지 · 통일 사업을 벌이게 됐다.

해운대 기계 공고 옆 국제빌딩 9층과 10층에 개원예정인 부산 해운대정토법당은 총 400평 규모로 10층은 법당으로 9층은 사무실 및 사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 기존 명륜동 법당은 교육관과 법회 공간으로 그대로 사용된다. 이번에 문을 연 해운대 정토법당은 신도시 개발로 날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해운대 포교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0평 규모의 광주 법당과 울산시 태화동에 개원하는 70평 규모의 울산 법당은 매주 수행법회와 불교대학 등을 열고 맑은 마음, 좋은 벗, 깨끗한 땅을 만들기 위한 정토 가꾸기에 들어간다.

특히 부산 해운대 정토법당 개원을 기념하며 2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100일간 열리는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좌가 관심을 끌고 있다. '조금씩 달라지는 깨달음의 강좌'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1시, 오후 7시 30분 두 차례 해운대 법당에서 열리며 전국의 모든 정토 법당에서도 영상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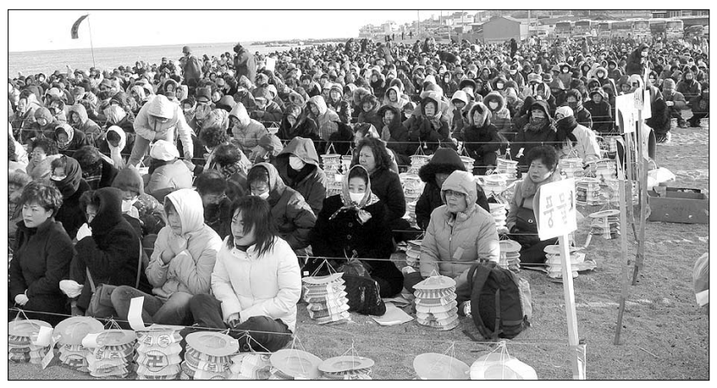
정토회 장도연 기획실장은 "지역 법당은 음식물 쓰레기 제로, 비닐봉투대신 투명망 사용하기 등 환경 실천과 통일사업, 복지사업이 지역민들의 삶 속에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천미희 기자

달집태우기, 방생 등 이웃과 함께

부산 경북지역 대보름 행사

2월 5일 음력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구 경북지역 불교계에서는 달집태우기, 윷놀이 방생법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명)는 스님과 신도 만여명과 함께 경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방생법회(사진)를 봉행하고, 달집에 불을 사르며 부처님의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하고 한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했다. 은해사 또한 윷놀이를 통해 화합을 다졌다.



매년 정월 보름 "함께 갑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어려운 이웃에게 공양미 및 생필품을 보시하는 등 색다른 차원의 방생법회를 주도했던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올해는 윷놀이와 함께 청년불자 박원구 씨를 위한 기금마련으로 마음을 모았다.

또한 부산 홍법사 산하 한나래문화재단은 외국인과 함께 하는 정월 대보름 연날리기 행사를 해운대 백사장에서 갖고 액운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전통 민속놀이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천미희 ·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中 · 日 역사 왜곡 규탄
공식사과 정부 적극 대처 촉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이하 영남불교대학)가 '고구려사 보존회'와 '독도사랑 모임회'를 결성하고 1월 29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2월7일에는 영남불교대학 마당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고구려 역사 지키기' '독도 지키기' 결의를 다졌다.

영남불교대학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 프로젝트는 고구려를 자국의 변방사로 편입하려는 계획이라 밝히고, 중국은 고구려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과 정부는 이에 적극 대처할 것 등을 촉구하는 '동북공정 저지 결의문'을 발표했다.

또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독도망언'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역사왜곡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며, 독도 주권을 위협하는 한일어업협정을 재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영남불교대학은 2월 1일 현재 1만 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배지선 기자

대구지하철 참사 1주기 천도재
천여명 참석, 추모 걷기·음악회개최

대구 경북지역 불교계는 대구지하철 참사 1주기를 맞아 합동 천도재를 개최하고 추모 음악회를 준비 중이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2월 7일 오전 10시 지하철 사고 희생자를 위한 1주기 합동 천도재 및 추모시민 걷기 운동을 봉행했다.

스님 및 유가족, 불자 천여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법당과 지하철 중앙로 역앞에서 3부에 걸쳐 진행됐다. 불교복지재단 감천 복지재단 또한 2월 18일 오후 7시 30분 대구 꾀꼬리극장에서 추모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도롱뇽 소송 4차 심리 연기
판사 인사이동, 재판구 새로 구성

6일 열릴 예정이었던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한 '도롱뇽 소송' 4차 심리가 2월 20일로 연기됐다.

이번 연기는 그동안 '도롱뇽 소송' 담당 재판부였던 제10민사부 윤인태 부장판사가 부산고등법원으로 전보 발령되는 인사이동에 의한 것으로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도롱뇽 소송' 4차 심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에서 새 재판부에 의해 속행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염불공양회 · 일념장학회
불자 청소년 · 대학생 장학금

염불공양회(회장 하성심행)와 일념장학회(회장 임대자행)의 장학금 전달식이 잇달아 열렸다.

염불공양회는 2일 염불공양회 사무실에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를 통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대학생 3명과 고등학생 7명 등 모두 10명에게 5백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일념장학회는 9일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대학생 5명, 고등학생 7명에게 총 7백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천미희 기자

혜원정사 화엄경대설법회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화엄경, 그 깊고 넓은 화음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화엄대법회가 열린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2월 24일 우룡 스님을 법사로 제 13회 화엄산림법회 입제식을 갖고 3월 14일 까지 대덕스님들을 초청, 화엄경을 설한다. 화엄경 대설법회 초청 법사는 24일 학성선원 조실 우룡 스님, 25일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 26일 통도사 강주 혜남 스님을 비롯 범어사 강주 덕민 스님, 보림사 회중 보광 스님, 미륵사 조실 백운 스님, 경국사 회중 인환 스님 등이 참여한다.

20일간 열리는 화엄경 대설법회는 매일 오후 2시 혜원정사 대웅보전에서 개최되며 법회기간동안 생축발원 및 영가천도 법회도 함께 열린다. (051)866-7771 천미희 기자

경주장애인복지관
'희망 바자회' 개최

"청바지 허리 28사이즈 없어요? 26사이즈 찾아주세요."

불국사가 운영하는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의류사업을 해오던 김영옥 씨(35,경주 황성동)가 재고 315벌을 복지관에 기증함에 따라 2월 4일부터 6일까지 복지관 강당에서 희망바자회를 개최해 훈훈한 사랑을 나눴다.

이번에 개최한 바자회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동참하는 것과 동시에 얼어붙은 경기로 생활비 압박을 받아왔던 경주시 주부들에게 시중에 판매하는 청바지 청치마 등을 1만원에 판매, 알뜰구매의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복지관이 시내 중심에서 떨어져 있어 홍보상 어려움이 많았다"는 실무 담당 이정희 복지사는 "지역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복지사업기금 마련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장애인복지관을 알리는 차원에서 바자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배지선 기자

www.samhwade.com

중국 남경한의과대학 2004년 특차 모집

(마지막회)

학과	학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남경중의약대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유학용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 여권용사진 10매
석박사과정	3년	
효장사범대	4년 1~3학년 편입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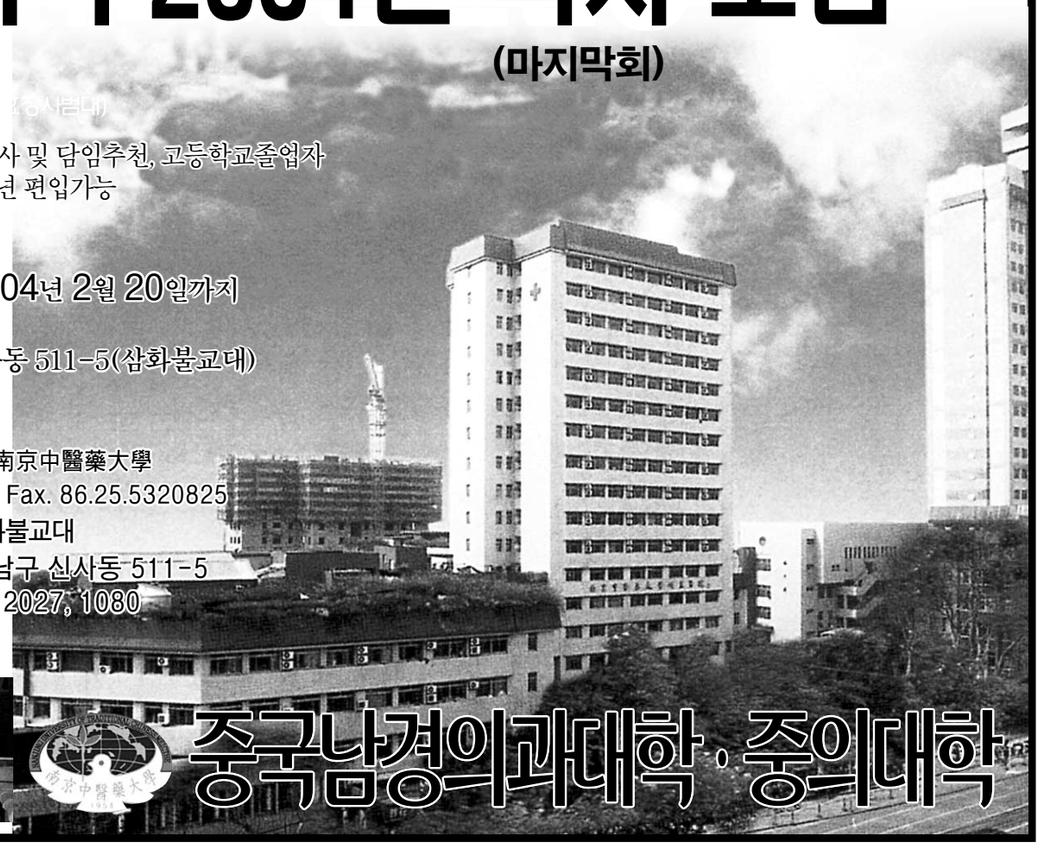
1. 주지스님 추천자 또는 지도교사 및 담임추천, 고등학교졸업자
2. 효장대는 전학과 신입 및 3학년 편입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4년 2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 수 처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삼화불교대)

○ 중국 의과대학, 남경중의대, 남경효장 사범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deu.cn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Tel. 86.25.6322539 / Fax. 86.25.5320825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02)511-2026, 2027, 1080
Fax. 02)511-2028





서울 · 보성서 나눔 마라톤대회 열린다

어려운 이웃 생각하며 달리자

'마음껏 달리면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은가.'

4월 11일과 9월 12일 전남 보성과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과 자비'의 행사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와 자비신행회는 4월 11일 서재필 기념공원에서 대원사까지 달리는 '제1회 나눔과 사랑의 벚꽃 길 달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보성, '벚꽃 길 달리기 대회'

4월 11일, 동참금 전액 불우이웃에

이 대회는 보성 서재필 기념공원에서 출발해 대원사까지 20리길(8.5km)을 달리게 된다. 대회명칭이 '나눔과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은 생명나눔에서 후원하고 있는 백혈병어린이와 독거노인을 후원하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내는 동참금 1만원은 전액 후원금으로 기증된다. 대회 진행비는 자비신행회 공식후원업체인 보성건설(회장 이기승)이 맡았기에 가능하다.

대회 주최 측은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셔츠를 선물하고 단주, 달라이라마 스카프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대회 당일 원성 스님과 이해인 수녀도 동참해 책사인회와 기념품을 전달한다.

도착지 대원사에서는 '티베트 박물관 특별전'과 '나눔의 축제한마당'도 펼쳐진다. 박물관에서는 티베트 왕궁 화가들의 만다라 특별전이 열리며, 축제한마당에서는 각종 먹거리가 펼쳐진다. 물론 먹거리 수익금도 전액 자비신행회 후원금으로 전달된다.

이번 대회를 마련한 현장 스님은 "이웃과 나눔의 자리가 될 벚꽃 길 달리기는 사찰참배, 꽃놀이, 건강을 가족과 함께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후원물품과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 접수는 4월 5일까지 받는다. 062-234-6602



서울광역신도회(회장 김진관)는 9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제1회 달마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눔'을 주제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는 스님들과 일반인들도 대거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 '달마 마라톤' 개최

9월 12일, 100원 적립 행사 등 준비

마라톤 마니아를 위한 하프코스와 생활인을 건강을 위한 10km, 여성들을 위한 5km,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한 4.8km, 1.8km 코스가 마련되며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정우식 사무처장은 "봄에는 연등축제가 열리지만 가을에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하게 됐다"며 "참가자들이 100m에 100원씩 적립하는 등의 행사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준엽 · 권형진 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법당 닦고 번뇌 쓸어냅니다

서울 자은사 하영선 보살



"항상 쓸고 닦아라" 하영선 보살은 청소를 통해 마음속 번뇌 망상까지 없애고 있다.

서울 돈암동에 위치한 자은사에는 살아있는 주리반타카가 있다. 주리반타카는 우둔했지만 "항상 주위를 쓸고 닦으며 청소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 청소를 통해 마음속의 번뇌 망상을 없애 깨달음을 증득한 인물.

신도회인 만다라회 부회장 소임을 맡으며 10년 넘게 법당과 요사채를 쓸고 닦으며 하심을 실천하는 하영선(57) 보살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금은 의정부로 이사해 매일 사찰을 찾지는 못하지만 사찰 행사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남들보다 몇 시간 일찍 와 청소를 시작한다. 행사 이후의 법당 정리 또한 그녀의 몫이다.

사찰 구석구석 쓸고 닦고 하심 실천
청소 통해 바른 마음의 중요함 체득

"집이 육체의 안식처라면 사찰은 마음의 수행처입니다. 그런 사찰을 청소하고 부처님이 계시는 공간을 청소하는 것은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생활이 되어 청소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청소가 수행이라고 말하는 하 보살.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이같은 가르침을 전수했다. 아들이 고 3에 진학하면 주말마다 절에 함께 와 법당 청소를 하고 108배를 하며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몸소 체득하게 했다.

그래서일까? 두 명의 아들이 모두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첫째 아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IMF 시절에 증권사에 당당히 취업을 했다. 둘째 아들도 지난달 은행에 취업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영선 보살이 자은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시어머니 때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정리하다 장롱 밑에서 나온 약간의 돈을 평소 다니시던 자은사에 보시하러 절을 찾았다가 주지 동희 스님이 49재를 지내주어 처음 사찰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하 보살은 주지스님이 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이수자로 무대에서는 화려하지만 사찰에서는 신도들이 남긴 밥 한 톨까지 몰래 드실 정도로 근검절약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부엌일, 청소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스님을 돕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김두식 기자



추천의 말

동희스님 자은사 주지

스스로 할일 찾아 솔선수범

사찰의 주인은 스님이 아니라 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청소를 하고 부엌일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영선 보살이 처음 청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스스로 자기 할일을 찾아서 합니다. 한 분의 솔선수범이 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놓은 셈이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하 보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남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원주, 북원문화권 조성사업 나서

거돈사지터 · 미륵산 등 유적 정비
3일 세미나 개최, 타당성 조명

거돈사지터를 비롯해 석남사와 견훤산성, 미륵산 등의 불교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강원도 원주의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의 불교 유적지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020년까지 북원문화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는 2월 3일 원주문화원 공연장에서 '북원문화권의 정체성과 원주지역 불교문화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불교문화유적 복원의 타당성을 조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연구위원은 "북원문화권 정립을 위한 핵심개발사업으로 불교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및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박형진 前 원주문화원장은 "거돈사지에 터가 남아있는 설법장은 고려시대에 불교가 인재양성에 주력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원주가 불교 중흥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북원문화권은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주를 중심으로 남한강 섬강 일대에 형성됐던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당시 이 지역의 불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전기까지 불교문화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원문화권은 그동안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권에 포함돼 있어 독자적인 문화로 인정받지 못해왔으며, 이에 따라 원주시는 올해 초부터 북원문화권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만해 스님 옛집, 지정문화재 지정
민가 형식 연구의 중요 자료 인정

만해 스님의 종로구 계동 옛집(사진)이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월 2일 만해 스님을 비롯한 역사인물 유적 6곳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만해 스님의 옛집은 스님이 1933년 성북구 심우장(尋牛莊, 서울기념물 제7호)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1월 28일 열린 시 문화재위원회는 "건축물 자체에 문화재적 가치는 없더라도 문화사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며 "건축물 내외부에 스님이 살던 당시의 가옥 모습이 보존돼 있고, 당시 일반 민가 형식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만해 스님의 옛집 외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종로구 가회동 현상윤(독립운동가) △종로구 누하동 이상범(동양화가) △종로구 원서동 박인환(시인) △성북구 성북2동 최순우(미술평론가) △성북구 동소문동 박진규(조각가)의 옛집 등 6곳이다. 오유진 기자

법주사, 주지 선출 28일 총회

법주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동범)는 2월 28일 오후 1시 법주사 궁현당에서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입후보자 등록은 2월19일부터 21일까지이며, 22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남동우 기자

불교사상 선양한 성왕 영정 제작
전신좌상 형태로 권오창씨 작업

불교사상을 전파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백제 성왕의 영정이 제작됐다.

충남 부여군은 백제 왕조의 자긍심과 역사 교육을 위해 최근 107㎝×183㎝ 크기에 전신좌상(全身坐像) 형태의 백제 성왕 영정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영정은 문화관광부 동상영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서울 전통인물화연구소장인 권오창 화백이 그렸다.

부여군은 성왕 영정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성왕 동상을 건립하는 등 백제 고도의 전통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제 성왕은 백제 중흥의 뜻을 품고 수도를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천도하고 각종 불교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불교사상과 문화를 선양했다. 한명우 기자

옥천범음대학 2004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 년	강의내용	교 수 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준보유자 김구해	50명
2학년	각배과	이수자 조현성	50명
3학년	영산과	이수자 조인각	50명
이 론	불교의식각론	교 수 심만춘	-

승려 · 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출서류 (1)입학원서
(2)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증명사진 3매(반명함)

2004년 2월 10일 ~3월 5일까지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2004년 3월 6일

2004년 3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봉원사 설법전)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 392-3234
종 무 소 02) 392-3007~8
팩 스 02) 393-9450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학장 김 구해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생명사랑 세계가 한마음


에코 프라이어 학생들과 함께 한 김수경 팀장, 수경 · 도법 스님, 이선종 교무(왼쪽부터).

영국에서 피어난 '삼보일배'

수경 · 도법 스님 등 英 청소년 동아리 초청 방문
1월 31일 스네티샴 습지 보전지역에서 진행
'세계 습지의 날(2월 2일)' 맞아 전세계 6개국에서 동참
삼독심 버리고 자연환경 보전 위한 노력 다짐

탐진치를 반성하고 생명 · 평화 · 상생을 염원하는 '삼보일배'가 바다 건너 영국에서 선을 보였다. 지난해 수경 스님,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 등 네 명의 성직자들이 전북 부안 해창갯벌부터 시작한 자기참회의 오체투지는 종교와 지역, 국가의 경계를 훌쩍 넘었다. 올해 세계습지의 날(2월 2일)을 기념해 6개국에서 '새만금 그리고 람사습지'를 주제로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수경 · 도법 스님을 비롯해 이선종 교무,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국 마용운 부장, 창녕환경운동연합 김수경 기획팀장 등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영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영국 프라이어스쿨 '에코-프라이어(Echo-prior)'라는 청소년 동아리에서 세계습지의 날을 기념해 새만금 갯벌과 습지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자신들의 용돈을 모아 수경 스님을 직접 초청하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이뤄졌다.

1월 31일 새만금 갯벌과 비슷한 형태의 넓은 갯벌이 형성돼 있는 습지인 영국 스네티샴 영국왕립조류보호협회(Royal Society for Protection of Birds, 이하 RSPB) 자연보호습지에서 삼보일배 행사가 개최됐다. 30일부터 내린 비와 강한 바람 때문에 참석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국제조류보호연맹(Birdlife international), RSPB, 야생조류습지트러스트(Wildfowl&Wetland Trust, 이하 WWT) 등 습지와 철새 보호운동을 하고 있는 9명의 영국인 습지보전운동가들이 참가했다. 에코프라이어 학생들도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수업과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으로 아쉽게도 참여할 수 없었다.

행사는 삼보일배의 정신인 '인간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 3가지 마음의 독을 버리고, 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생명들을 경외하는 다짐'을 설명한 후, 스네티샴 해변에서 수경스님과 도법스님이 앞장서고 영국 습지보전운동가들이 뒤를 잇는 형태로 진행됐다.

200여 미터의 짧은 거리이지만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을 하는 행위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스스로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반성케 하고, 다시 한번 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지구상의 죽어가는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케 했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WWT 슬림브릿지 습지센터를 방문했다. WWT는 1945년 피터 스콧이 철새 보호를 위해 만든 곳으로, 100여명의 직원 및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WWT 관계자는 "우포늪 생태공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이곳을 참고해 실수를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물론 한국 사회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변형해야겠지만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삼보일배 정신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냐"며 뼈있는 말도 던졌다.

WWT에서는 강화도 갯벌 센터 건립을 위해 오는 5월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도 4월 WWT 방문계획을 가지고 있다.

29일에는 방문단을 초청한 프라이어 스쿨을 방문해 에코-프라이어 그룹과 만났다. 에코 프라이어는 새만금 갯벌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넓적부리도요, 쇠청다리도요 등을 보호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 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사는 귀한 생명체들을 위해 정성을 모은 아이들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30일에는 RSPB를 방문했다. 그라함 인 사무총장과 새만금 갯벌보전방향을 논의하고, 국제적인 연대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 측 참가자들은 새만금 갯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없다면 그 대안으로 갯벌매립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며, 해수를 유통시키고, 생태관광지로 개발해, 경제성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다.

장소를 옮겨 국제조류보호연맹 본부를 방문해 마이크 랜즈 박사와 면담을 했다. 마이크 랜즈 박사는 해수유통안에 대해 "석호형태의 습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새만금 갯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지에 의존해 살아온 여러 멸종위기 조류들이 더 이상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도법 스님은 "방조제를 다시 걷어낸다는 것이 상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정치 · 경제적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월 1일 RSPB에서 관리하는 오우즈 와쉬즈라는 습지를 방문했다. 하천 배후 습지를 잘 관리해 인근 농경지의 침수를 막고, 야생동물을 보전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관리되는 습지였다. 자연과 인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국인들의 가치관을 읽을 수 있는 장소였다.

2일은 주 영국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세계 습지보전운동가와 에코-프라이어 학생들이 보내온 새만금 갯벌보전을 위한 청원 이메일을 전달하고, 한국 정부에 해수유통안을 강력하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날 런던 도심 가운데 식수공급 저수지였던 곳을 자연 습지로 복원해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WWT 런던습지센터를 방문했다. 환경파괴를 통해 얻은 영국인들의 교훈을 우리나라 개발론자들에게 전해줄 방법은 없을까? **영국=김수경 창녕환경운동연합 기획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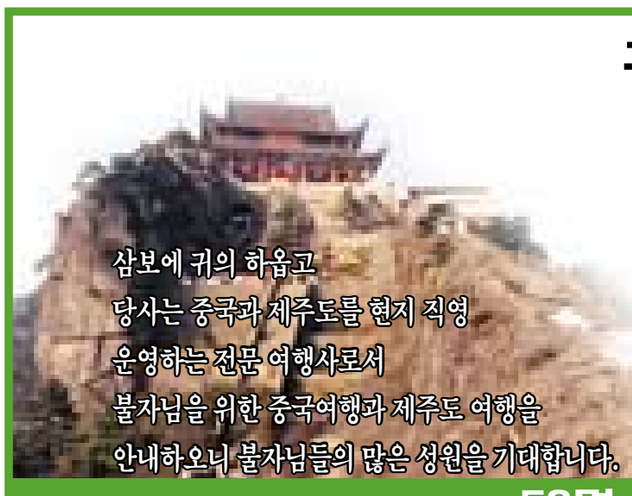

1월 31일 영국 스네티샴 자연보호습지에서 거행된 '새만금 그리고 람사 습지'를 위한 삼보일배.

▮ 6개국에서 진행된 '삼보일배'

창녕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배종혁)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한국과 영국, 미국,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새만금 그리고 람사습지'를 주제로 삼보일배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2월 1일 창녕군 대대리 우포생태학습원에서 우포늪 주변 일대 3km 거리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으로 잘 알려진 지율스님의 친동생인 지황 스님과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환경스님 등을 선두로 한 순례팀은 3시간여 동안 1억 4천년 전 형성된 국내 최대규모의 원시적 자연늪인 우포늪 보전을 기원했다.

2월 1일 창녕 우포생태학습원 등지에서 진행된 '삼보일배'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02)720-8489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 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2,3월 특선 중국문화 탐방
▷ 태산 크루즈 + 역사탐방 7일 399,000원
▷ 상해 / 장가계 / 소주 6일 699,000원
▷ 북경 / 백두산 6일 799,000원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 !!!

개산조 태허 스님 사상집중 조명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 올 종무계획 · 주요 사업

관음종은 개산조 태허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내실에 바탕을 두면서 종단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음종은 올 한해 태허 대종사 기념사업을 포함 사회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지역포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총무원장 홍파 스님으로부터 관음종의 올해 종무계획과 주요 사업에 대해 들었다.



▶올해 주요 종무계획은.

지난해 관음종은 종단의 내적 역량을 착실히 쌓았다. 총본산 묘각사 복원 불사를 마무리했고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에 죽산 스님을 추대함으로써 분위기를 일신했다. 그러나 한국불교계에서 큰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올해는 이 부족한 점을 채우는 해로 삼고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종단 살림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개산조인 태허 홍선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펼치면서 8백여 사찰과 종단의 역량을 이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30여 사찰로 구성되어 있는 재단법인을 보다 확대시킬 계획이다.

▶개산조인 태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태허 홍선 대종사는 50~60년대 분란에 휩싸여 국민을 도외시했던 한국불교의 새로운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불법홍포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관음종의 전신인 일승불교현정회(一乘佛敎顯正會)를 창립했다. 태허 스님은 법화경의 보살실천사상에서 해답을 찾았다. 종교적 양심과 대승적 이념으로 지은보은(知恩報恩)의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자 한 것이다. 기념사업의 기조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종단이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종회 의원과 총무원 집행부, 주요 사찰 주지 등으로 사업을 주관할 기념사업회를 1월 5일 구성해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구상중인 사업을 소개하자면, 총본산 묘각사에 창종 연혁비를 건립하고 자필 원고와 법문을 모아 법어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한 · 중 · 일 국제학술세미나와 국제보살계 수계법회를 개최하여 태허 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올해 소속 사찰의 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이끌어 나갈 것인가.

탄신 100주년 맞아 연혁비 · 법어집 발간
지역 사찰 40곳 사회활동 지원 · 조직화

사찰의 활동영역이 사찰 밖으로 넓어져야 한다. 각 지역에서 펼치는 사찰의 활동은 종단의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종단의 힘이 소속 사찰의 역할과 활동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종단 소속 사찰 대부분이 교도소 교화활동이나 불우이웃 후원 등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종단의 힘으로 모아지지 못했다. 산발적 · 개별적으로 이뤄져왔고 일정한 계획 없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단은 지역사찰의 활동이 보다 조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계시키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 또한 올해부터는 30~40여 사찰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해 나갈 것이다.

▶현재 당면한 종단 현안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오랜 기간 불교 · 환경 · 시민 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던 북한산 관통도로가 강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북한산 관통' 반대운동에 조계종이 중심에 있었지만,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는 조계종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찰이 조계종 보다도 다른 종단에 더 많다.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찰에는 관음종 소속 사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 사찰은 뚜렷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재개가 이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관음종 중앙종회에서는 북한산관통도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조계종 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도 북한산 관통반대 운동에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조계종의 양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서울의 허파와도 같은 북한산을, 즉 미래의 희망을 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불교 발전을 위해 관음종이 해나갈 역할은.

태허 대종사 탄신 100주년 사업과 더불어 올해 종단 역량을 집중할 사업은 사회복지 분야다. 불교의 사회참여는 복지사업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우리 종단은 산하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을 두고 용두2동 어린이집 등 3개의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종단과 역할에 비하면 아직 지원수준에 불과하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복지원에 5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총본산 묘각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인근 지역주민을 비롯해 누구나 묘각사에서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시민선방을 개원할 계획이다. 관음종은 이같은 활동을 통해 한국불교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박봉영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진각종 전통등 제작 교육

진각종 문화사회부에서 주최하는 '전통등 제작 우수재원 양성교육'이 1월 26일 시작돼 2월 20일까지 서울 하월곡동 탑주심인당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은 기본과정(1월 26일~2월 8일)과 심화과정(2월 9일~20일)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 기본과정은 청년회원과 관련학과 전공 참여희망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통등 제작법에 대한 강의와 실수로 진행됐다. 2단계 심화 과정에서는 대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총지종 종조탄신 97돌 법회 봉행

총지종(통리원장 법공)은 1월 29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종조인 원정 대정사의 탄신 97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열었다. 총지사에서 열린 기념불사에서 수성 종령은 "철저한 수행과 계행을 통해 자내증을 확립하여 종조의 교상과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총지종은 종조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원정 대종사의 유품과 서적 등을 총지사내 종조전에 전시하고 있다.

종단소식

말사 신도간부 교육

천태종은 2월 21~22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전국 말사 신도간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신도간부들의 올바른 신앙관 정립과 원만한 신도회 운영을 위해 열린다.

천태종은 지난해 12월 중앙신도회와 전국 말사 신도회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위덕대 종비장학생 선발

진각종은 위덕대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할 종비장학생을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신입생의 경우 고교 3학년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위덕대 3학년 학생은 전 과목 B플러스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종비장학생에게는 수행과 성적의 정도에 따라 박사과정까지 학비와 생활비 등이 지원된다. 또 일선 심인당이나 진각종 산하기관에서 교화활동에 나설 수 있다. (02)913-0751~3

중국 관음성지 순례

총화종(총무원장 남정)은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상해 용화사, 항주 영은사, 보타산 보타사, 보제사, 낙가산 낙가사 등지를 참배한다. 총무원장 남정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간부 스님과 불자들이 순례에 동참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2월 14일까지 마쳐야 참가가 가능하다. (031)592-8891

'부처님 열반절' 행사 양력 2월 15일

진각종, 현대 생활패턴 맞춰

진각종은 2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탑주심인당을 비롯해 국내외 모든 심인당에서 부처님 열반절 불사를 봉행한다. 이날 불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일을 맞아 법신비로자나불의 자비행을 기리고 불국토 건설을 위해 용맹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다.

음력 2월 15일을 열반절로 삼고 있는 다른 종단과 달리 진각종은 양력으로 기산해 불사를 행해 오고 있다. 여기에는 '낡은 불교를 버리고 현대 사회에 맞는 생활불교를 해야 한다'는 종조 회당 대종사의 창종정신이 깃들어 있다. 한국사회가 양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불사도 양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신교도들의 신행근간을 이루는 자성일(일요일) 불사도 양력에 기준을 두고 있다. "법신불은 태양 같고 화신불은 만월 같다. 그러므로 일요일은 비로자나불일"이라는 회당 대종사의 가르침을 현대생활 패턴에 맞춰 주(週)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동방불교대 나와야 태고종 스님 된다"

'선교육 후득도 제도' 올 시행

앞으로 태고종 스님이 되려면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승가과를 졸업해야만 한다.

태고종은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올해 배출되는 28기 합동득도 행자부터 적용한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동방불교대에 2년 과정의 승가과를 개설했으며 강사진을 대폭 강화했다.

동방불교대 승가과는 초발심자경문, 사미율의, 치문, 선요 등 내전 과목과 불교학개론, 비교종교 등의 교양 과목, 참선, 염불선, 위빠사나 등의 수행 과목, 포교원리, 포교방법론, 종무행정 등 교화 과목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태고종의 기존 득도제도는 6개월 이상 행자생활을 하고 종단에서 주최하는 합동득도수계산림에서 사미(니)계를 받은 뒤 한차례의 연수를 참가하면 승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적용되는 득도제도는 행자생활과 합동득도수계산림, 동방불교대학 승가과를 모두 이수해야 승적 취득이 가능하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선교육 후득도 제도가 정착되면 스님들의 자질이 높아질 뿐아니라 승가위상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봉 약천사 양력 3월 8일 행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태중아기 지장보살님

● 일 시 : 2004년 3월 8일 월요일 오전11시 (음, 2월18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3월 8일 (음, 2월18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4월19일 (음, 3월 1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회당 별도
※ 위패비, 아기옷 :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평불협 창립 12돌 기념 및

봉 통일법당 개원법회 행

불교계 평화통일과 남북불교교류의 선구 역할을 해 온 평불협이 12돌만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성북동에 통일법당과 사무실을 열고 아래와 같이 개원 및 기념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3월 3일(수) 오후 3시
■ 장 소 : 서울 성북동 통일법당 (삼선교 하차)

통일법당 본존불 복장물 보시 받습니다

■ 복장재료 : 금판 2돈 (15만원) 이상
통일법당에서 주문제작 (직접 제작하여 가져오셔도 됨)
■ 새길내용 : 가족성명, 주소, 가족축원 또는 단체발원
■ 접수기간 : 불기 2548년(2004년) 2월 28일까지

(사)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평불협)
북한 사리원 금강국수공장후원회

평불협사무국 (代) 전화 : 1544-0408 전송 : 02)741-9347

아침형 불자
그리고
저녁형 불자

최근 들어 아침형·저녁형 인간되기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직장인들의 생활패턴이 변하고 있다. '아침은 잠, 저녁은 술'로 대변되는 시절은 옛말이 됐다. 그렇다면 일터불심은 어떨까.

물론 직장불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새벽을 이용한 108배, 걷기명상 등은 기본. 퇴근 후에는 불교대학에서 경전의 세계로 빠져드는 등 하루를 길게 늘려 쓰는 일터불자들이 늘고 있다. 이중 '아침형 인간'인 이재상 우리은행 불자회 홍보부장과 문영찬 대한민국경찰불교회 총무부장, '저녁형'인 춘천시청 도반회를 소개한다.

맑은 마음으로 하루 열면 업무 능률·건강 '보증수표'

108배로 하루여는 이재상 씨



● '아침 시간 이용 신심 다지기'

2월 3일 오전 6시 24분 서울 조계사. 먼동이 채 트지 않은 이른 아침. 기도에 한창인 신도들 가운데 짧은 머리를 한 사람이 눈에 띈다. 이재상 우리은행 불자회 홍보부장(47·외환서비스센터·법명 심공). 한 배 한 배 108배를 올리고, <금강경> 독송을 한다. 한번 완독하는데 20여 분이 걸린다. 이어서 아미타불 정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러기를 1시간 남짓. 자타가 공인하는 '아침형 인간', 이 홍보부장에게 아침신행법을 물었다.

"새벽이 좋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마주치는 보살님, 환경미화원분들에게서 많은 걸 배웁니다. '아! 이것이 정토 세계를 거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정진하고 일터에 가면 맑은 마음으로 하루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 업무 능력도 오르고 건강에도 '보증수표'입니다."

지난 2000년 조계종 포교사 고시 준비를 위해 시작했던 새벽 수행. 이제는 빠트릴 수 없는 하루 일과가 됐다고 이 홍보부장은 말한다.

대한민국경찰불교회 문영찬 총무부장(48·202경비대·법명 청암)은 '새벽 걷기 명상'으로 하루를 여는 불자다. 조계사에서 <천수경> 독경과 108배 아침 정진을 마치면, 20분간의 걷기 명상을 한다. 벌써 2년째다. 무념 상태로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자기 호흡을 관하다보면 새벽의 기운이 어느새 머리와 가슴을 채우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새벽은 마음이 편안한 시간입니다. 그간 알았던 알음알이가 생각에 들어붙을 틈이 없습니다. 새벽 정기가 너무나 자유롭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문 총무부장은 특히 아침 정진의 이유를 일상생활에 쫓겨 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라고 강조한다.

새벽마다 걷기명상 문영찬 씨



"불교 알아가는 기쁨 주경야독으로 얻어요"

퇴근 후 경전공부 춘천시청 도반회



퇴근 후 저녁 3시간동안 춘천시청 도반회원들은 불교를 배우는 학생으로 탈바꿈한다.

● '저녁 시간 활용 경전공부 가속'

어둠이 짙게 깔린 2월 3일 오후 7시. 춘천 석왕사 부설 강원불교대학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든다. 부랴부랴 퇴근길을 재촉했지만, 지각생이 눈에 띈다. 하지만 오늘은 강의가 없다. 2달 전 이 대학은 방학을 했다. 그래도 강의는 열렸다. 춘천시청 도반회원 7명으로 구성된 <초발심자경문> 스터디팀이 윤독 모임을 갖는 날이기 때문이다. 지도는 정상현 회장(56·지적과장·법명 혜수)이 맡았고, 독경은 우춘수 회원(51·정보통신과·법명 자광)이 준비했다. 한 자 한 자 읽고 뜻을 새기는 수준이 웬만한 학회 모임 뺨친다.

춘천시청 도반회의 주경야독(晝耕夜讀). 요즘 각광받는 말로 '샐러던트'들이다. 직장인(샐러리맨)이면서 학생(스튜던트)인 불자들이다. 지난 2001년 도반회 창립이후, 손 털고 퇴근하면 으레 매주 두 차례 3시간씩 불교공부를 해왔다. 그간 강원불교대학을 졸업한 회원만 30여 명이 넘는데, 왜 또 귀한 퇴근 후 시간에 모이는 걸까?

"회원들 혼자서 불교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불교를 배울 수 없을까.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일단 내린 결론이 '모여서 배워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불교대학 수강이었습니다."

정상현 회장은 회원들이 '밤공부'를 하게 된 이유를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이 처음 불교대학 수강을 권유했을 때, 회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바쁜 업무로 시간 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유혹도 많았다. 야근에다 이러 저래 이어진 퇴근 후에 약속은 불교공부를 하는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변화가 나타났다. 조금씩 불교를 알게 됨에 따라 회원들의 참여가 늘었다.

"그동안 저녁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T.V 리모콘하고 놀기만 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게는 황금시간이 됐죠. 모르고 믿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츰 불교를 알아가는 기쁨은 말로 다 못하지오." 김경희(44·체육진흥과·법명 보방광) 총무부장의 말이다.

춘천시청 도반회의 밤을 잊은 불교공부. 도반회원들은 저녁 시간을 '기차게' 쓰는 법을 이렇게 알려줬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인천중부경찰서 불교회

불교 불모지 인천.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은 불교세가 너무도 미약합니다. 불자들은 있지만, 이렇다 할 신행단체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불자회는 불자로서의 이런 고민이 남달랐습니다. 인천 지역에 불교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끝에 인천 중부경찰서 불교회가 창립됐습니다. 국민의 지팡이이자 부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발원이었습니다.

사실 '경찰'이란 단어만 들어도 경계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회를 접하게 되면, 단번에 경직된 분위기와 거리감을 사리질 겁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십니까. 우리 불교회는 경찰관, 전·의경, 고용 기능직 등 인천 중부서에서 함께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경찰보살들이기 때문입니다.

창립은 지난 해 10월에 했습니다. 47명의 회원들이 모여 첫 법회를 서내 대강당에서 봉행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환희심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출범한 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우리 불교회는 왕성한 신행활동을 해왔습니다. 매달 두 차례 경승실에서 지역 경승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를 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천 지역 사찰을 돌며 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끽하는 성지순례도 꾸준히 다녀왔습니다.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올 1월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되는 사회 만들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첫 행사로 관내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어르신 30여 명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쌀, 라면, 헌옷가지, 치약 등 생활필수품을 정성껏 모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드릴 때는 "이것이 바로 회향하는 삶이구나"하고 회원들이 기뻐해했습니다. 특히 경찰이란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고, 힘든 이웃과 함께 실천한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칭찬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이런 실천은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실 그간 불교회가 걸어온 1년 남짓은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생 신행단체인데다가 워낙 타종교세가 강해 적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승 스님들과 지역 신도님들의 도움으로 지금은 우리 불교회는 회원들이 90여 명의 대식구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불교회는 부처님의 지혜를 등불삼아 일상생활과 근무에서도 항상 정진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불교기초교리강좌를 개설하고, 관내 10곳의 전통사찰과의 유대도 한층 강화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역사찰의 신도합창단을 초청해 찬불가 배우기 등의 문화법회도 열어 회원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의경포교에도 앞장서 청년 불자를 키워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판열 회장

90명 '경찰 보살' 지역에 불교바람
복지시설 방문하며 '나눔' 실천



인천 중부경찰서 불교회원들이 올 1월에 가진 관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위해 마련된 선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6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팔 성지순례 15일 (불교8대성지와 아잔타석굴) 257만원
인도의 3월은 초여름으로 12월이나 1월달 보다 순례하기에 훨씬 기후가 좋습니다.
▶일 정 : 뭄바이-엘로라석굴-아잔타석굴(세계불교미술의 보고)-산치대탑(아쇼카대왕의 걸작)-아그라(타지마할,아그라성)-상카시아(도리천에서 하강하신곳)-바라나시(갠지스강,초전법륜지 녹야원)-보드가야(성도지)-라즈기르(법화경설법지영축산,죽림정사)-나란다대학-바이샬리(유마경설법지)-쿠시나가르(열반지)- 기원정사(금강경설법지)-카필라성(부처님고향)-네팔국경통과-룸비니(탄생지)-포카라(안나푸르나 등 히말라야설산)-카투만두 ▶출발일 : 2월 12일, 3월 4일, 3월 23일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매일 출발 가능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항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항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5일 (성도-낙산대불-아미산-아미산 정상의 금정,만년사 등-성도) 8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 9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일 정 :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58만불의 딴보디사원,최대의 불탑유적과 종)-양곤(쉐다곤대탑,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인천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3월 12일, 4월 10일
▶일 정 : 콜롬보-아누라다푸라-수령2500년보리수,고대불교유적-폴론나루와 불교유적-시기리야 고대왕궁-담불라동굴사원-캔디의 불치사(부처님치사리) *밀림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숲의 나라 최고급 호텔,식사 등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 3월 23일, 4월 20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험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11일(티벳 라사에서 히말라야를 넘어 카투만두까지)
라사-포탈라궁-장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등 히말라야 조망)-장무-카투만두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 6월 4일, 7월 6일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실크로드여행사를 방문하시는 분께 수미산 사진집을 드립니다.

보은의 영험이 가득한 치악산 국형사
삼사 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치악산 국형사는 신라경순왕 1150년전 무착선사께서 창건한 이래 명승고찰로써 명성을 이어 왔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대왕이 전국 오악 명산에 산신단을 모셔서 국태민안과 우순풍조를 기원드린바 있습니다. 이 전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치악산(동악산) 국형사는 동악단을 모시고 현재까지 매년 봄가을에 지역 시장, 군수, 지역유지들과 원주지역 모든 시민 불자님들을 모시고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치악산 국형사는 꿩 보은의 유래에 걸맞게 꿩 방생 장소로 최적지 입니다. 전국의 불자님께서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치악산 국형사에 많은 성지참배를 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국형사 주지 합장



▶ 대형주차장 완비
▶ 입장료 무료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98번지 국형사 033-747-1815
※ 방생전 사전 연락주시면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겠습니다.



秋史가 있어 고찰이 더 빛난다



타계 사흘전에 추사가 남긴 봉은사 '판전' 현판글씨.

'과천시절 추사글씨 탁본전'

과천시민회관 2월 4일~ 18일

서예를 예술로 승화한 美道合一의 경지

추사체(秋史體). 모든 선입견을 놓고 무심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서체. 서예를 예술적 경지로 전환시켜 미도합일(美道合一)의 경지에 올려놓은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서예세계를 조명한 '추사체의 진수-과천시절 추사글씨 탁본전'이 과천시와 한국미술연구소 공동주최로 2월 18일까지 과천 시민회관 전시실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회는 추사 선생이 타계하기 사흘 전 남호 스님(永奇, 1820~1872)의 부탁으로 썼다 전해지는 봉은사의 '판전(版殿)'을 비롯 대흥사 '소영은(小靈隱)' 통도사 '성담상게(聖覃像偈)' '노곡소축(老谷小築)' 등 현판을 탁본한 40여점이 출품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 목판 글씨첩 11종과 금석문 탁본 12점, 쌍구본 2종 목각 5종이 선보인다.

봉은사 판전은 추사가 자신이 쓴 편액 중에 스스로 괜찮다고 평했을 만큼 말년 추사의 서예관을 잘 보여주는 수작이다. 동자체(童子體)라고 불리기도 하는 '판전'은 글자형태를 파괴하거나 서체에 기교를 부리지 않아 고졸(古拙)한 맛을 풍기지만, 그 안에서 힘을 느낄 수 있는 명품이다.

대흥사의 '소영은'과 통도사 '성담상게' 등은 일반인에게는 처음으로 공개돼 그 의미를 더한다.

은해사에 있는 대웅전(大雄殿), 불광(佛光), 보화루(寶華樓)의 현판들 역시 추사의 예술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 전시회를 기획한 문우서림

졸박하면서도 파격적 조형미 봉은사 현판등 70여점 전시

김영복 대표는 "은해사에 남아있는 작품들은 추사가 과천에 유배됐던 64~65세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봉은사의 판전 글씨처럼 졸박하면서도 강건한 힘이 들어있어 추사의 대표작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도사의 '성담상게'와 '노곡소축' 등은 19세기 통도사에서 이름이 떨친 대강백 성담(聖潭) 의전 스님(儀典, 생몰연대 미상)과 노곡이라 전해지는 스님과의 친분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당시 추사가 유림 등의 사대부는 물론 불교계와도 밀접한 교분을 맺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 추사는 평생 교분을 가진 초의 스님(意恂, 1786~1866 다도 중흥시킴)을 위해 대흥사 노전(爐殿)현판 일로향실(一爐香室)과 동국선원(東

불교학에도 능통, 고승들과 친분 소박 강건 고졸한 기품 느껴볼만

國禪院)을 썼으며, 은해사 말사 백흥암에는 산해숭심(山海崇深)을, 추사 집안의 원찰인 화암사에는 무량수각(無量壽閣)을, 쌍계사 중국 육조대사 혜능 진영탑 전각 위에는 세계일화(世界一花) 등 수 많은 작품을 남겨놓았다.

추사는 숭유억불(崇儒抑佛)정책의 조선시대에 왜 이토록 많은 사찰현판을 남겼을까?

추사의 서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고려대 보건대학 김영환 명예교수는 추사가 글씨로 세상에 많이 알려졌지만, 원래 서예보다 금석학, 불교학, 경학(經學) 등의 학문에 더 조예가 깊었다고 말한다. 특히 불교학에 능통했고 초의 · 의전 스님 등 여러 고승들과 친분이 두터워 사찰에 많은 글씨가 남아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서예가들 역시 추사가 남긴 현판작품의 수를 추산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추사 현판 중 절반가량이 사찰의 현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미술연구소 홍선표 소장은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대부분 추사 말년의 작품들로, 추사체 특유의 졸박기고(拙朴奇古)한 파격적 조형미와 구성미에 의한 시각적 자극이 태고적 본성과 잘 조화된 작품들"이라며 "각 사찰마다 찾아다니며 추사글씨를 접하기 힘든 만큼 이번 탁본전시회는 추사의 예술관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3677-2064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선생의 용필(用筆)은 공(空)의 상황에서 갑자기 굵고 가는 획이 자유롭게 전환하는데 모두 오묘한 이치가 담겨있어서 마치 마른 소나무나 묵은 등나무 같기고 하고 규룡이 엉키고 용이 휘감는 것 같기도 하며, 또 종정(鐘鼎)의 구름과 우뢰무늬 같기도 하여 변화가 무궁하고 신비를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감히 이름 지을 수 있고 어찌 감히 표현할 수 있겠는가.
- 정축년(1877, 고종 14) 중앙절에 문생 소치 허련 삼가 쓰다.-



추사의 예서체 중 백미로 꼽히는 통도사 현판 '일로향각'(위) 추사의 문하생 하련이 판각한 <완당탁묵>의 첫 표지(아래).

현판 속 명인과 명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찰 현판 속에는 수많은 명인과 명필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현판의 글과 글씨는 사찰의 창건 및 중건을 지휘했던 스님과 지방 문인이 담당했지만, 사찰이나 스님과의 특별한 인연 등으로 당대를 호령하던 세도가들과 문인들이 글을 남기는 경우도 잦았기 때문이다.

우선 여주 신륵사 누각 구룡루에는 조선후기 4대 문장가로 불리는 김택영의 시현판이 남아있으며, 인천 용궁사에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10년

대부분 특별한 인연에 의해 제작 흥선대원군 · 권혁 작품등이 현존 사찰의 역사 고증하는 중요 사료

간 머물며 직접 쓴 '용궁사' 편액과 시주기 현판인 '영종백운산구담사시주질' '용궁사현판송문' 등이 현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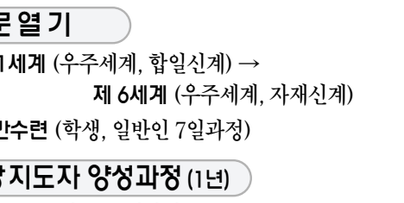
인천 보문사에는 우리나라 9대 문장가 중 한사



김택영이 쓴 여주 신륵사 구룡루 '詩 현판'

람으로 손꼽히는 이건창의 미문(美文) '강화군보문사중종공독판기'가 글로 남아있고, 고성 유점사에는 스님이자 조선후기 문장가였던 지탁 스님의 글 '금강산유점사설선당중건기'가 부석사 안양루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조직해 호국공신으로 추앙받는 사명대사의 초서현판 '부석사안양루중찬기'가 걸려있다. 이밖에 경북 수태사에는 조선후기의 유명한 문신인 권혁의 '수태사법당중창기'가 대구 남지장사에는 정조가 '조선 역대 스님 중 제일의 문장가'라고 평한 의첨 스님의 '일주문' 현판이 고흥 금탑사에는 원교체라는 특유 필체를 고안한 조선후기 명필 이광사의 '명부전' 등이 남아있다.

이들 명인, 명필들의 현판은 해당사찰의 역사뿐 아니라 당 시대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좋은 사료로 평가 받고 있다. 김은경 기자



추사가 대흥사에 보낸 현판 '소영은'.

釋 經 寺

대법회 **비법 공개!** 특강
- 부처님께 왜 절을 해야만 하는가?

◑ **첫째 :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절을 왜 하게 만들었는가?**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열반(涅槃)과 해탈(解脫)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모든 중생들에게 절하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 **둘째 : 우리는 과연 부처님께 항상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만 내가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가?**

◑ **셋째 :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 과연 법신은 움직이는가?**

◑ **넷째 : 기도와 회향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 매월 셋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특별법회와 절 비법 특강을 합니다.

삼학불교대학 입학안내

1. **승려반** (2년과정 수시모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6시 ~ 9시)**
- **강의내용**

▶ 천도재, 49재, 점안, 바라춤, 경전, 태징, 북치는법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관음시식
화엄시식
구병시식
불상점안
1. 복청계
2. 천수바라
3. 도량계
4. 거불
5. 헌좌계
6. 다게
7. 향수나열
8. 사다라니바라
9. 가지계
10. 하청

※ 경전 및 의식문에 나오는 한문을 한자 한자 풀이하여 강의하므로 한문을 모르시는 분도 수강하시는 데 불편 없으시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釋經寺
三學 佛教大學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산 2-2호
전화문의 : 032)462-7322, 463-1630, 469-8797, 011-322-1630
주지 최 해월 합장
• 오시는 길 : 동암역, 백운역 (간석3동 태화아파트 / 만수3동 벽산아파트 뒤)

7일 명상으로 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로드프라나 명상이란?**
프라나(감로.생기) 호흡법과 로드프라나 36가지의 각종 명상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상승 시키는 기법.

◈ **로드프라나 명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 진다**
잠자던 몸이 깨어나 몸속에 황금빛 광체가 생기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원을 이루고 개인의식이 무너져 우주의식으로 확장되어 집중력. 이해력이 증대되어 지혜의 눈이 생긴다.

◈ **누구나 길을 찾아 원하는 삶을 열어준다.**
◈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고요의 평원 속으로 이끌어 준다.**
◈ **삶에 지친 몸과 마음에 프라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가진 것은 잃게 되고** 베푼 것은 남듯이 내가 클 수록 장애가 심하고 내가 작을 수록 세상이 가벼운 것. 간. 쓸개 빼고 살면 부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속을 텅 비우면 모든 일이 마음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 **지금까지 길을 찾지 못한 것은** 개체의식. 고정관념. 자기의 틀을 벗어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기육맥공.선밀공.프라나호흡.프라나 동작.36장 관조 · 관음법을 통하여 우주의식으로 확장시키면 스스로 알지 못했던 길을 찾게된다.

길타기 3단계
▶ **1단계** : 능력확대 (의식확장, 시, 노래, 춤, 연주, 그림 등)
▶ **2단계** : 지혜의 눈 (달변, 예시, 투시, 치유 능력)
▶ **3단계** : 전인완성 (본래의 자리에 듦)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 과정)

다른 차원의 세계 (우주세계)로 못가는 것은 의식과 생각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식 집중을 통해 영혼체 정신체 인 분신을 만들어서 유체이탈을 통하여 천문 제6세계까지 영체와 우주세계를 연결한다.

천문열기
■ **제 1세계** (우주세계, 합일신계) → **제 6세계** (우주세계, 자재신계)
■ **일반수련** (학생, 일반인 7일과정)

명상지도자 양성과정 (1년)
■ **자 격** : 24세 ~ 33세까지
■ **학 력** : 고졸이상
■ **수련과정** : 로드프라나 36장, 프라나호흡, 난소호흡, 원륜공, 관조, 관음, 관상법수련, 선밀공, 오기육맥공

로드프라나 명상센터 본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1동 729-4
☎ 053)471-0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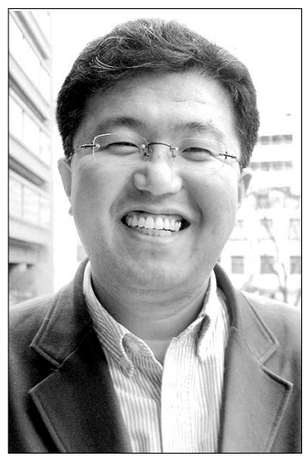
인 터 뷰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세계가 함께 알아야죠"

한국 세계문화유산 담은 CD '5000년의 향기 Ⅲ' 제작



5개국어로 제작된 '5000년의 향기 Ⅲ'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을 담고 있다.



한 개인의 노력으로 불국사 ·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유네스코에 등록된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7곳이 '5000년의 향기Ⅲ' 시디롬(CD-ROM) 한 장에 담겼다.

문화유산 사진 촬영에서 시디롬 사진 배열, 원고 작성까지 맡은 사람은 바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43 · 사진) 소장. 황 소장은 "세계는 우리 문화유산을 주목했지만, 우리는 정작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며 바로 이 '안타까움'이 작업을 시작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작업은 민간단체인 한국민족음악인협회와 뜻있는 몇몇 전문가의 도움,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기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5000년의 향기'는 황 소장이 세 번째로 만든 세계문화유산 시디롬이다. 기존에 나왔던 시디롬에 불어와 중국어를 추가해 영어, 일어, 한국어 등 5개 국어 판을 포함했고, 7곳의 문화유산에 각 3분의 동영상과 총 200여장의 사진을 실어 내용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일종의 완결판이다.

황 소장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거나 어린이 · 청소년 교육에 사용해도 유용할 것"이라며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시디롬을 나눠줘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황 소장은 외국 대사관 · 문화원, 해외공관원, 지역문화원, 관광공사 등에는 무료로 배포하고, 개인이나 단체, 학교 등에서 원할 때는 운송료만 보내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www.chpri.org

황 소장은 전형적인 운동권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10여 년 전부터는 시민운동가로 변신했다. 대목(大木) 신영훈 선생에게서 4년간 한옥구조이론을 배웠고, 문화재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 찾아다녔다.

"얼마 전 되찾은 창녕 관룡사 석장승은 몇 개월 전에도 얼싸안고 인사하던 오랜 친구"라고 말하는 황 소장. 불자는 아니지만 종교를 초월해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그에게서 젊은 열정이 느껴진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간다라 불교유적 발굴조사 시작

불교미술사연구소등 3일부터



국내 최초로 한국 불교미술의 원류를 밝힐 파키스탄 간다라 불교유적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한국불교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 사진)는 한국불교미술사학회와 함께 16명의 조사단원을 구성, 2월 3일부터 18일까지 불교미술의 본고장인 파키스탄 탁실라 지역에서 발굴 · 학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금까지 눈으로 '보기만' 했던 답사 형식의 불교원류 조사와 달리, 땅 속에 묻혀있는 불교유적을 직접 '찾는' 최초의 발굴조사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문명대(동국대) 교수는 "탁실라 지역은 최초의 동 · 서문화 교류지로 주목받는 곳"이라며 "이번 조사 성과를 모아 10월에는 간다라학 국제학술대회도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유진 기자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전면 개정

390개 항목으로 대폭 보완

문화재 수리의 시공기준을 제시할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문화재청은 2001년에 수립한 문화재 수리 기준정비 계획의 첫 결과물로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 조사 · 연구가 지난해 말 완료됐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 표준시방서는 종전 시방서보다 3개 공사종목 266개 항목이 늘어난 21개 공시종목 390개 항목으로 대폭 보완돼, 문화재 원형보존과 수리 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방서에는 사전현장조사 의무, 공사 책임, 유구정비 규정, 안전사고 · 재해예방 지침 등이 포함돼 있다.

29일로 논문제출 연기

불교학 결집대회 조직위

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범) 논문제출 기한이 2월 29일로 연장됐다. 5월 1~2일 중앙 승가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결집대회 조직위원장 해주 스님은 "연구자들이 좀 더 충실한 내용의 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1월 31일까지였던 논문제출 기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간 문화재' 활동 평가해야 86%

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 전승제도 설문결과 지원금 지급방법 공무원 '차등' 전수자 '일률' 선호

중요무형문화재 관계자들은 보유자에 대한 활동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주기는 2년 내지 3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한국 갤럽에 의뢰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존 · 전승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다. 설문조사는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문화재(전문)위원 · 관련 학자 등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 모두 1,024명을 대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도평가, 전승지원금, 전승활성화 종목 지정 · 관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활동평가 · 사후관리 등 6개 분야 26개 문항에 대한 질문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89.2%)이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해, 현행 제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활동평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4%가 인정 후 활동평가가 필요하며, 활동 평가 주기는 3년(30.8%), 2년(28.9%)이 적당하다는 순서로 답했다. 또 활동평가 후 전승활동이 어려운 보유자에 대해 보유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48.2%)는 의견과 해제하지 말아야 한다(50.8%)는 의견이 비슷했다.

전승지원금은 활성화 종목과 취약종목을 고려한 차등지원(51.6%)과 보유자 전수교육 지위에 따른 일률적 지원(47.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차등지원은 관계전문가(77.4%)와 시민단체 회원(78.3%), 시 · 도 공무원(67.1%)에서 높게 답했고, 일률적 지원은 전승자(56.8%) 그룹에서 그 비율이 높아 응답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인식차를 보였다. 보유자의 적정인원에 대해 개인 종목은 종목별로 1인(30.5%), 2인(23.3%), 무제한(29.2%) 순으로, 영산재와 같은 단체 종목은 출연인원의 5% 이내(34.5%), 기량이 가장 뛰어난 대표자 1인(27.7%)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무형문화재 보존 · 전승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유진 기자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31>

믿음 · 소망 · 사랑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최신 의학기법이나 고가의 장비 개발에 의해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질환을 진단, 치료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종종 감탄과 더불어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잘 보면 그러한 최신 치료법들은 대개 고비용이어서 실제로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한번 치료에 고액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며칠전 모 일간지에 한국 선불교에서 대표적인 위치를 가진 한 스님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한국에는 틱낫한이나 달라이 라마와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세계적 스님은 왜 없느냐"는 질문에 그 스님은 "그들 스님은 선의 진리를 모릅니다. 단지 자비의 보살행을 펼 뿐입니다. 맑은 가을 하늘처럼 하나의 티끌도 없는 부처님의 심인(心印, 깨달음)은 '참선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한편, 싯다르타는 왜 평생을 노상(路上)에서 보내야 했을까? 삶을 힘들어하며 갈구하는 이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삶을 보냈으면서도 스스로 아무 한 말이 없다고 부정하던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했을까? 역시 싯다르타는 선정(禪定)은 알았지만 참선을 하지 않았기에 부처의 깨달음을 알지 못했던 모양이다.

믿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는 옛 조사의 말과 더불어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고 있으며,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도 특히 사랑이 제일이라 한다. 산을 움직일만한 믿음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없다는 성경 구절처럼 믿음이 사랑으로 꽃피지 않으면 결국 내안에 갇혀 죽은 믿음이 될 뿐이다.

믿음이 깨달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성경에서는 길게 참음이요, 오랜 기다림인 소망을 지적하고 있다. 불자도 마찬가지 아닐까 한다. 부처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이 바탕이 되어 끊임없는 기다림의 자세를 통해 깨달음이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주위의 힘들고 고통 받는 중생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지어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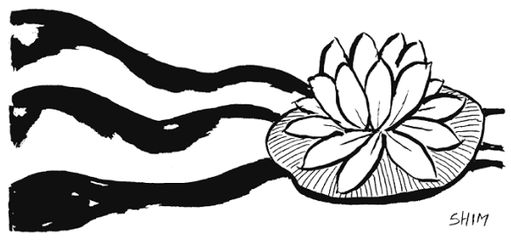
따라서 불자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란 밖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다. 본래 면목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향하여 항상 지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 우리 각자의 기다림의 자세다.

믿음 근본으로 항상 내면 살펴라

중생 눈물 닦아주는 깨달음 돼야

이런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의 모습이 없다면 자신들의 믿음이 그리 깊어 산을 옮기고 그 깨달음이 하늘과 같은 맑음을 얻었다 한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나 깨달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일 뿐이다. 항상 깨어있음으로 기다림을 이루어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는 한 그 무엇을 하더라도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깨달음이란 우리 중생과는 상관없이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어 개발되어지는 몇몇 부유층만을 위한 고가의 최신 치료 기술이나 의료 장비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누가 부처와 보살이 다르다 했는가. 오직 기다림의 자세로 나는 부처를 원하지 않는다. 간절하고 길게 기다릴 수 있으니 진정 삶은 아름다울 뿐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천문역학 六壬」誌 창간 기념 할인판매 안내

(2월 4일 부터 - 2월 20일 까지 15일간)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는 금번 당국의 허가를 얻어 **「천문역학 六壬」**지를 월간으로 발행하게 되어 오는 2월 20일 3월 창간호가 전국에 배포 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아래의 **육임서를 한시적으로 30%할인 판매**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종전가격으로 환원됩니다.

할인도서 품목	종전가격	한시 할인 가격
■ 육임래정비법 수정보완본	2,500,000	**1,750,000**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	**910,000**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휴대용	1,500,000	**1,050,000**
■ 육임래정비법	350,000	**240,000**
■ 육임래정법 휴대용	310,000	**220,000**
■ 효사 육임 강의록	410,000	**287,000**
■ 효사 육임강의 비디오 CD	900,000	**630,000**
■ 육임 신수비결	300,000	**210,000**
■ 오행제례의식집	150,000	**105,000**
■ 태아길일길시선택분만비법	74,000	**51,000**
■ 육임지두생활비법	15,000	**10,500**
■ 육임비요형이상법	150,000	**105,000**
■ 육임운명판단법	130,000	**91,000**
■ 육임세밀정단법	100,000	**70,000**

●문 의 : **02-993-8680**(담당 정주연)
●입 금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배 본 : 입금후 다음날 도착시켜 드립니다.

전국 「육임학당」 수강 접수안내

본회는 2월1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홀 에서 육임학당전국수료식을 거행하여 각 지역에서 육임을 공부하신 분들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는 2월부터 다시 학당을 여니 아래 일정에 맞춰 등록해 주십시오

육임학당 「전주숙」	**2월 8일(日)**	063-284-7714
육임학당 「광주숙」	**2월 9일(月)**	062-224-8680
육임학당 「진주숙」	**2월 10일(火)**	055-755-1644
육임학당 「부산숙」	**2월 11일(水)**	051-756-0141
육임학당 「대구숙」	**2월 12일(木)**	053-624-8680
육임학당 「효사숙」	**3월 13일(金)**	02-993-8680
육임학당 「강남숙」	**2월 14일(土)**	02-525-3039
(이곳 강남숙에서는 비구니 스님들께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등록비 **1백5십만원**
■교 재 **효사 육임강의록 上(학습서) 下(활용서)드림**
■마 감 **2004년 2월 7일까지 등록 요망**
■강 사 **고복자 효사**
■기 간 **3개월 13주 52시간**

●문 의 : 위 각 학당 전화로 문의 하십시오.
●입 금 : **우리은행 813-102730-01-001 한국육임학회**

공 익 법 인 한 국 육 임 학 회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재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일람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등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지리산 선인에게 배운「황토사용법」을 보급하는 山人, 明德 洪炫普선생이 추천



건강 황토 단주 세트

정상가 : 60,000원 (15mm x 10개)
특판가 : 36,000원

정상가 : 55,000원 (10mm x 10개)
특판가 : 33,000원

■ 제품문의 : 02)732-1520

예수재, 49재, 천도재, 회심곡,회청, 바라, 나비무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1-9209-5691
051-265-5692
성불암 용산 합장

범음범패, 전통의식, 각종행사 해 드림
점안식, 상주권공, 각종불공, 천도재, 바라나비춤, 사물다루는 법, 화청, 모든 재의식 경전, 민속, 역학 등 염불 배우실 학인 모집 중
대광명사 탄우 합장
02)939-3327

예수재 영산재 49재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영인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밥암사 055-882-3455
016-428-6665

전통의식,각종행사, 천도재,점안식,기타불공 스님 필요하신 곳
016-9340-1725
055-521-3673
법음범패,제의식,염불 배우실 학인스님모집
※ 행자모집 0名
효자사 혜성 합장

대구권 부산권
염불해 드립니다
011-9596-4338
무유 스님 합장

특별강좌
電通 경락소통요법
너무나 쉬운 이 시대 최고의 대체의학. 電通으로 경락을 소통시켜 만병을 치유하는 中國 특효의술 강의.
적응증 구안와사, 반신불수, 요통, 관절염, 좌골신경통, 오십견, 협심증, 위장병, 두통,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당뇨, 중풍, 간질환.
일 시 2004년 2월 15일
▶12시 - 맛보기 무료강의
▶1시 - 본 강의(약 3시간)
장 소 상봉역 7호선 6번출구 새서울 극장옆 무량선원
수강료 50만원 (전화예약 필수)
전 화 02)491-7358
017-750-9900
대 상 의료계 종사자, 피부미용 맛사지사, 스님, 일반인, 목회자
※ 철저한 실기위주 완벽마스터 1일 완성

스님 되실분 모십니다
▷접수처 :
한국불교조계종유지재단
총무원 청운사
▷위치 : 경기도 여주(나이제한 없음)
031)881-337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김포
011-688-66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지역
054)535-0005
011-620-9281

행자를 모십니다.
▶ 고졸이상
▶ 만 40세 이하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 지원함
02)917-3363(정릉)

배우자(인연)
32세(男)신심있는 불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포교의 원력을 같이 할 도반같은 배우자를 원합니다 소중한 인연을 발원하면서...
032)432-6004
018-201-5590

전통의식, 각종법회행사 천도재, 49재, 기타불공 스님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011-9850-2946
053)653-0287
보리암 성보스님

구성학(九星學)강의
「구성학의 기초, 구성학의 사주풀이」의 저자 직강
02)2655-1016
011-340-1472

(급) 남,여 행자 및 화주보살님 모심
▷ 법비오는 동해사 강원도 양양
033)672-2900

함께 수행하면서 지낼 성실하고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급구 모십니다
경북 선산 조계종 사찰
018-587-2363
054)481-2363

부전스님(비구니) 행자스님 모십니다
▷ 부산
051)316-8772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총무, 부전스님)
033)263-5904
011-370-5904

천도재 구병시식 태아영가 49재 천도 영가천도
●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수시 접수 中
● 태아영가 천도재 3月8日 봉행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빙의령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업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기타
▶ 주2회(1회 2시간씩) 4개월 완성
▶ 수강료 : 월 15만원(교재대금 포함)
▶ 수료후 청강은 무료. 개업, 부업 적극지원
한국명리교육원
02)336-8484

가평 잣
● 650g 2만 5천원
031)592-2865
010-3005-2865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택배비 별도
공장 가평 초림 농산

부동산 담보대출
편안하고 신속하게 대출하세요
- 부동산 감정가 60%이상 - 담보사채
- 일반대출 - 매매잔금 대출 - 건설 관련 자금
(주)한국금융상품개발 02)3437-8282
* 금액에 따라 연금리 3%~12%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육임(六壬)역학 강좌
풍부한 육임 고전과 임상자료를 바탕으로 한 성실하고 체계적인 강의!
특 징 1. 가장 오랜 역사 2. 풍부한 문헌자료와 검증된 정확성 3. 고도의 음양오행 예측 학문
육임명인 1. 강태공(주문왕) 2. 오자서(오왕) 3. 제갈공명(유비)
※지방에 계신 분은 「통신강의」 신청 받습니다.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불교대학 가맹점설치 및 자격취득 안내
어린이 포교원, 불교 문화원, 불음국악 연주회(포교단) 설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상학 인가된 가맹점 캠퍼스 설치
▶봉직자 과정 – 원사, 원주, 교무, 종무 자격
▶포교사과정 – 상담포교사, 역학상담사, 유아놀이포교사, 불음법회포교사, 주술포교사, 풍수지관포교사, 국악연주포교사, 장묘포교관리사
▶법사과정 – 상담법사, 신앙상담사, 상담지도사, 아동지도법사, 불음지도법사, 염불지도법사, 장례지도법사, 국악지도법사
만대교학대학원 불교지도자연합회 011)412-8040

운세(20초내) 바로 맞추면 보세요
02-826-5067(명리학 전문)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감정실습반(보고 듣고 질문으로 시작)
교재 사주첩경(이석영 저)실력테스트 해보세요
www.speedunse@dreamwiz.com
핸드폰, 카드 결제됩니다

성수철학원(학인모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 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신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 (2층)
053)255-4784, 256-4784. 018-531-2237

사주 개인 지도
특수비법 :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지도 : 대주 스님
☎ 02)962-0867 011-741-0867

생활불자정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 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눈
* 안구건조,충혈,피로,눈꼽,눈물
* 침침함,눈부심,희미함,시력강화
* 다른 질병관련 시력저하된 분
* 경전을 많이보시는 스님,불자님
일본특허 2790212 KIST승인 KDAR03G-3K
미국특허 5382714 식약청HSK 2106909099
제조원 : 日本(주) MERCURY-MK
눈밝은 세상 (02) 2237-8004
홈페이지 (영문)http://eye88.hihome.com (한글) 눈밝은 세상



- 스스로 치료 못할 병은 없다 -
면역 치료법 발견!
"약"에 의존하지 않고 "병"을 고치는
"면역 치료법" 발견! 공개 및 전수
※ 치료 못할병은 없다. ※ 내 병은 내가 스스로 고친다.
02)793-1996

대한불교조계종 특수학교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생모집 요강
본 학교는 어산작법(범패 · 무용)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으로써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 설립하여 이에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할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및 교육기간
1) 본 과 : 불전의식 전문과정 - 2년
2) 불전의식과 : 6개월
3) 작 법 과 : 6개월
4) 무료교양강좌 : 3개월
교육내용
1) 본과 및 불전의식과
- 일용의식 (도량석, 종송, 예경,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 상용의식 (불공, 천도재, 시식)
- 제반의식 (점안, 이운, 방생, 다비시다림, 관불, 통알, 소십경, 포살, 수계)
※ 범패작법도 병행해서 교육함
2) 작 법 과 : 바라무, 나비무
3) 교양강좌 : 불교의식의 탐구와 이해
응시자격
1) 본과 : 조계종승려로서 구족계를 수계한 자
2) 본과 외 다른과는 승려 및 재가불자도 가능함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승적증명서, 조계종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각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2004년 2월 28일(토) 오후 3시
성북구 안암동5가 8번지 대원암 (6호선 안암역)
교학처 ☎ 02)921-3425
※ 본 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스님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졸업장과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이 주어짐.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장

직원모집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찰에서 근무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남골당)
■ 인 원 : 0명
■ 서 류 :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 조 건 : ◎ 신심있는 불자를 환영함
◎ 영업경력 있는 자 우대
◎ 남, 여(35세 이상)
◎ 차량 및 운전면허 소지자
◎ 서울, 경기 지역내 거주자
■ 연봉 2,500만 ~ 3,000만원 정도 가능함.
서류는 FAX로만 접수 가능하며 서류 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후 통보함.
FAX 번호 : 031)906-5108

"지장보살 원력입은 佛心의氣로 신비의 원력 함께 나누는 삶의 원력"
당신도 건강하게 살수있다.
일상생활에서
만성피로 고생하시는 분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성
생리통, 생리불순
늘 피곤하면서 의욕이 없는 분
허리, 목DISK로 고생하는 분 (초기디스크)
만성 변비, 요실금, 소화장애
좌골신경통, 중풍 예방관리
어린이 스트레스 특별관리
신비의 氣 나무마하반야바라빌
자연치유의학 연구센터
백초대체의학수기연구원 법연 거사 합장
예약상담 : 02)733-0550 / 011-237-0550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포항
- 법당 :
- 요사 : 47평
- 시설비 : 2500
- 가액 : 1000/50

- 위치 : 부산
- 법당 : 36평
- 요사 : 150평
- 부지 : 800평
- 가액 : 25억

- 위치 : 경북
- 법당 : 2300평
- 건평 : 300평
- 가액 : 23억

신도시 중심가로 건물즉시활용 가능하고 도심사찰포교지로 최적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포교당 및 절터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2리(대원사)
- 가액: 월세 10만원 시설비일체 1500만원
- 절터자리 대지 310평 있음

054)762-6303
017-706-6304

음택명당(절터)

- 위치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여주IC 5km
- 530평, 음택명당(정혈 있음)
- 가액 : 평당 30만원
- 도로에 인접해 있고, 조용하며, 풍치 안정되어 있음,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음, 정남향 마사토

017-275-5001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시내 상가주택(약20년된 절)
- 대지: 22평, 실평수: 17평
- 1층 집 2층 법당, 삼존불, 약사, 산신, 용왕, 칠성탱화
- 가액: 9천5백(3천 융자) 실가액 6천5백만원

011-9273-2477

매할 중심지역 상담

- 위치: 충청남북도 경계지역
- 부지 840평
- 건물 40평(대웅전 산신각 요사체)
- 교통편리(열차, 고속도로) 경관수려(앞강, 뒤산, 정남향) 신행정 수도 예정지 근접
- 가액 1억6천만원

041)868-4008

포교당 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암사전철역 부근 대로변
- 법당 35평, 방1, 넓은 옥상에 방3, 공양간, 활용가능평수 60평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매매
-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2800만원. 옥상 사용 가능

011)714-3635
02)481-36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부 지 : 1200평
- 법 당 : 11평
- 요 사 : 20평
- 가 액 : 2억 5천

- 위치 : 경기
- 부 지 : 20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2동 70평
- 가 액 : 13억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부 지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 마을 적당히 떨어져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곳
- 다용도 가능한 준농림지 1070평
- 전기도로 있음
- 가액: 3천 5백만원
- 본인 직

011-570-131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일산 신도시 주엽동 (주엽전철역 150m 앞뒤로 아파트 단지)
- 시설 25평, 법당과 방 한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 탱화, 시설A급, 3층건물에 3층 철학관으로도 적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천 2백만원

031)919-0306
019-687-030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 소백산 정화봉
- 종교용지 450평(풍수좋음)
- 법당 15평(불상 탱화 5점)
- 요사 40평(심야전기)
- 주차장 40평(주차 8대)
- 가액: 9천만원

011-9802-3136

사찰 안내

- 위치: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에서 5분거리
- 건물 평수 : 총 40평
- 임법당 10평외 방4개, 목욕탕 2개
- 조건 : 매년 도지 18만원외 묘지관리
- 가액 : 6천 500만원

033)662-8713
010)3030-8713

사찰부지안내

- 성남시 분당 5km
- 대지 200평, 토목공사 완료
- 법당 45평 허가득
- 분당시범단지 전철역간, 마을버스 있음
- 가액 2억 5천만원

031)718-3114
011-9669-4455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도봉산
- 부지 : 5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80평(목재)
- 양도가 : 6억
- ※ 산세 및 계곡 절경임

- 위치 : 강원도 양양
- 부지 : 450평
- 법당 : 35평(목재)
- 양도가 : 3억5천
- ※ 산세 및 계곡 좋음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 대지 58평 건평 60평 (현대식 주택 개조)
- 1층 요사채 2층 법당 내부깨끗하고 주위경관 아늑함 대단지 아파트 옆
- 사정상(공부하러감)매매
- 가액: 2억원

011-858-9450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화제의 염주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 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마산 근교
- 대지 : 1천5백평
- 법당: 2층 20평
- 요사: 3동(1층 50평 창고 20평 공양간 20평 화장실 7평)
- 특징: 임수 배산의 명당자리
- 가액: 1억5천5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1-1759-3368

포교당 안내

- 위치: 청주시 흥덕구 흥덕사지옆 흥덕사원
- 평수 : 총 60평 법당 15평, 방 4개, 거실, 목욕탕, 부엌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700만원

011-806-4867

사 찰 안 내

- 위 치 : 창원
- 대 지 : 200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30평
- 가 액 : 1억5천

- 위 치 : 사천
- 대 지 : 61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80평
- 가 액 : 3억5천

- 위 치 : 진주근교
- 대 지 : 7,000평
- 법 당 : 25평
- 요 사 : 50평
- 가 액 : 4억

※마금산온천에서 5분거리 ※확장가능 충분 ※사천시내에서 10분거리 ※큰마을 앞산에 위치 ※남강댐에서 10분 ※잘지은 사찰임(교통편리)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안내

- 위치 : 강북구 우이동
- 대지: 100평
- 임법당(임대) 방3개, 주방1개
- 가액: 7천만원

011-888-0130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 상태: 블럭조 14평, 방 3개 기름보일러(전기. 전화 유)
- 전1991평 (불사가능 터로 터 정리됨)
- 가액 5800만원

054)672-7619

단독주택포교당안내

- 위치 : 충주시내
- 부지 : 7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1억 5천

※ 동굴법당 있음

011)688-3521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북구덕천로타리에서 약 5분거리. 구포시장내
- 평수 60평, 방4개. 주방시설 완비
- 삼존불, 신중 탱화, 지장불, 지장 탱화 모셔져 있고 산신탱화. 시설 A급
- 보증금 : 15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055)386-7463 / 010-3061-4264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남원
- 부지: 3천2백평
- 법당 요사 완비
- 특별조건: 납골시설 완비

011-9415-6831

암 자 안 내

- 위치: 대구 달성군내
- 대지: 258㎡
- 건물 2동 청정하고 깊은 산속 초가상간 암자
- 전기 없음
- 가액: 상담 후 결정

053)611-9875~6
017-208-5555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 대지 : 57평
- 법당 : 20평(2층)
- 요사채 : 32평(1층)
- 지하방 4개(세) 마당 : 주차함
- 법당, 모든집기 염가로 모셔갈분
- 가액 : 평당가격(전세도 가능함)

011)9637-2632

포교당 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 암사전철역 부근 대로변
- 법당 35평, 방1, 넓은 옥상에 방3, 공양간
-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매매
- 보증금 5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2800만원. 옥상 사용 가능

011)714-3635
02)481-363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동호동
- 건물 실평수 (50평) ●임법당, 방 2개
- 특징 : 신도시 개발지역 도심 속의 포교지로 최적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아주싸게, 답사후 절충)

016-502-7307
053)963-994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일산 신도시, 주엽 전철역 150m. 앞, 뒤로 아파트 단지
- 평수 : 25평, 방1개, 시설 A급. 3층 건물에 3층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바닥은 전기 온돌 판넬. 철학관으로도 적합
- 2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2천 2백만원

019)687-0306. 031)919-0306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 운장사 법당
- 보증금 1000만원 월10만원

033)766-0057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용왕단
- 가액 : 3억 1천만원

011-226-2880

사찰안내

- 위치:충북 영동군 양강면 두평리
- 대지: 200평 ●법당 : 20평
- 요사: 30평
- 돌탑 30여개
- 가액: 4천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전화요망!

043)744-3331
016-409-4502

사찰(급)안내

- 위치 : 팔공산 파계사 근교
- 대지 306평
- 건물 50평(법당, 요사채)
- 산신각 4평
- 가액 답사후 결정

017-522-5544
053-985-9824

불교용품점(승복, 법복)

- 위치: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 밑
- 방1개, 부엌1개 17평
- 현재 상업중
- 보증금1000만원 월45만원 절충가능
- 물품대금 모두 3500만원(조절가능)

019-656-0480

사찰할만한 건물

- 위치 : 충남 홍성
- 2층 건물: 1층 80평, 2층 80평
- 대지 395평 1층 20평은 살림하고 있음
- 부속건물 따로 18평 화장실 4개 샤워장 계속나오는 물 약수물 있음, 산업용전기 130k동력있음
- 매매땅 외에 그냥 사용하는 주차장 약 500여평, 기타 약 2000여평
- 문중땅이 있음, 대형버스도 들어옴

041)632-0546 / 02-546-4965
018-428-1199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임야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채 110평 1동
- 창고겸 숙식가능요사 45평 1동
- 위치 터 좋아 모든 포교, 사회 복지 활동 최적지
- 가액 : 3억 7천만원

011)9457-7060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충무시 근교 (버스종점 도보로 5분)
- 대지: 700평 임야 5000평 주차장 유
- 법당 20평 칠성각 10평
- 산신각 1동(목조)
- 요사채 2동 50평
- 계곡 청정 산세수려, 70년된 사찰
- 가액 2억3천만원

017-855-9551/055)637-1201

생명의 빛 신등의 비밀공개

- 중국의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에너지파, 슈퍼원적외선파, 마이크로파 등 11개 파장이 동시에 발생되어 그 열파장은 피부깊숙히 80mm까지 흡수되어 세포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공진작용과 에너지 농축으로 무질서한 세포(파괴된 염증세포)를 바르게 정리 재생 회복시켜준다. 그리고 면역체계 상승과 모세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진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병변부위를 신속히 정상회복 시켜준다. (그 비밀은 바로T.D.P에 내장된 Black Disk의 미량원소 조절의 신비에 있다.)

※ TDP에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분은 우송해드립니다.

미국 FDA검증(No.K875052)
한국 의약품안전청 허가(제수허 01-506호)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필수품

-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과 악성 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뼈관절 증상(허리, 무릎, 목, 골반) 각종 통증으로 땡기고 절인 증상 등
- 혈액순환 장애로 머리무거움, 숨참, 가슴이 뛰고 답답함, 현기증, 손 발 배가 냉한 증상
- 장기간 와병 생활로 등창 욕창이 심하신분
-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에 심한 피로와 충혈로 침침하고, 소화가 잘안되고 깊은 잠을 못자는 분
- 고질적인 치질 · 치루 · 탈항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
- 부인과 분야(냉증, 세균성 염증, 월경이상과 통증, 불임, 불감 재증상)
- 피부증상(악성 세균성 피부질환, 화장이 잘 안받는 거친 피부)
- 전립선 기능장애로 마음이 쓰이는 분은 꼭 필요함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이 많으신분

유고 국제 박람회 금상 수상, 벨기에 부뤼셀 만국방람회 은상 수상

- 중국 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의 실험자료
-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 가정용)
- 한국 95년도 보건복지부 인정 독점수입
- 한국 각 종합병원, 보건소 등 200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중

건강백세 (특정 TDP치료기) 상담전화 02)457-2831~2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만삼달인 물 (만삼 생칡 10㎏ · 황기 · 잔대 · 삼지구엽초 · 생강 · 대추 · 감초)

~~● 1BOX (대포 大 : 20만 원)~~ ~~●2BOX (대포 大 : 35만 원)~~

사 은 가

● 1BOX (60포入 : 15만 원) ●2BOX (120포入 : 25만 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 심정택 H · P :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성주군 성산리
- 대지 125평
- 건물 30평
- 가액 7천만원

054)933-9931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함양 지리산 부근
- 부지: 건물부지 1300평 논,밭 1700평
- 법당20평, 부엌1, 대중방 2개 25평,
- 종각 및 창고 10평, 요사채 10평-방 3개
- 시설비 4000만원외 일체없음

018-762-9989

포교원안내

- 위치 : 성남(주택 밀집지역)
- 5층건물중 4층 단독 45평형
- 법당, 거실 넓음, 방2개, 창고방1개, 주방1개, 베란다, 화장실
- 보증금 1500만원 월 80만원 (수도요금, 관리비 포함)
- 시설비 1500만원

011-678-0807

토굴안내

- 위치: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법등사
- 대지: 50평 (방 3개)
- 가액 2천5백만원

011-9207-2488
055-526-2488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불로동
- 평수: 6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54)372-8734
011-9382-4782
011-9586-5727

포교당 임대

- 위치: 서울 중심지, 단독주택 2호선역에서 2분거리
- 평수: 약 22평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
- 시설완비, 즉시입주가능

011-2250-751

일주문



전강문도회 정기총회
전강대종사 문도회의장 정무 스님은 2월 12일 오후 2시 홍국사 만수리실에서 전강대종사 문도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03학년 후기 학위 수여식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 스님은 2월 19일 오후 2시 김포캠퍼스 대강당 자비관 4층에서 2003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한다.



남원 실상사 주지로 취임
종고 스님은 2월 7일 실상사 신임 주지로 취임했다. 스님은 부산시 서구불교연합회 기획실장과 실상사 부주지를 역임했다.



미국 LA 포교사단 방문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미주지역 신규 포교사 합격자 연수 및 품수식 참석을 위해 2월 6~14일 미국 LA 포교사단을 방문한다.



논산 개태사로 정월 성지순례
서울 돈암동 적조사 주지 자성 스님은 2월 14일 신도 100여 명과 함께 충남 논산 개태사로 정월 성지순례를 떠난다.



행원문화재단 자산 7억원으로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 주영운 이사장은 1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개인자산 5천 만원을 출자, 재단기본자산을 7억원으로 증자했다.



대불련 총동문회 정기총회
대불련 총동문회장 성기태 충주대 총장은 2월 1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포이동 구룡사에서 2003년 정기총회 겸 갑신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서울고법원장으로 전보
불자 법조인의 모임 서초반야회장 김동건 서울중앙법원장이 2월 4일자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장으로 발령받았다.



주간 '교육신보' 편집국장에
(사)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준교 이사는 최근 주간 <교육신보사> 이사편집국장에 취임했다. 이 국장은 <월간 미술>, 수도권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한국은행 불자회장에
한국은행 강화중 금융결제국장은 최근 본점 시청각실에서 열린 갑신년 신년법회에서 신임 한국은행 불자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어르신을 부처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통도사 자비원 신임 대표이사 현문 스님



"소외된 어르신들을 부처님같이 섬기며 종교계의 으뜸가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제2대 대표이사로 선출된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사진)은 설립 14주년을 맞이한 통도사자비원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91년 전국의 사찰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을 정도로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월하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복지법인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인 스님은 "받는 불교가 아닌 나누는 불교를 지향하며 불교복지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말사 단위로 복지관을 건립하거나 위탁받아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는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통도사자비원은 92년 양로원시설을 시작으로 94년 마산중리복지관, 96년 경남학생기숙사, 2001년 울산남구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등 현재 11곳에 이르는 산하 기관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울산남구노인복지관, 울산시립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분야에 남다른 경험과 연륜을 가진

9월 노인전문요양원 개원
불교복지 영역 확장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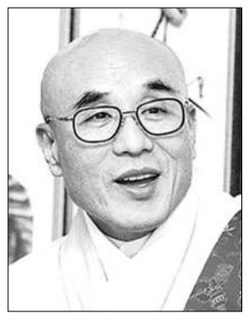
특성을 살려 노인복지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올해 9월 개원을 목표로 치매 및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외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 중"이라고 밝힌 스님은 "전국 사찰 중에서 제일 처음 복지사업을 시작했고 또 제일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인 만큼 불교복지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복지영역 개척에도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화합으로 종교문화 발전 이끌터"

한국종교협 새회장 운산 스님



제17대 한국종교협의회 회장에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사진)이 1월 31일 총회에서 선출됐다.

운산 스님은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의 종교적 상황과 문화, 이웃종교간 협력을 이끌어 화합의 종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1965년 창립된 종교협의회는 조계종 태고종과 대종교, 원불교, 천리교, 유교, 천도교, 개신교, 예수장로교연합총회, 이슬람교, 통일교 등 10개 종교의 협의체 기구로, 종교간 이해 증진과 협력을 위해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0년에는 새천년 종교인 윤리헌장을 제정하기도 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에서 능가 스님, 월산 스님, 청담 스님, 서옹 스님이 1, 6, 7, 9대 회장을 각각 역임했다.

박봉영 기자

"함께하는 마음으로 평화 심어요"

아프가니스탄 자원봉사 1년 마친 유정길 씨



"위함(for)이 아닌 함께(with)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프간인들에게 필요한건 식량과 복구물자 등의 단순지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갈 방법과 도구입니다."

한국JTS 아프가니스탄 책임자로 지난 1년간 현지에서 5명의 자원봉사자 및 현지 스텝을 이끌고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정길(45 · 법명 · 법운 • 사진) 법사. 정토회 총회차 지난 1월 17일 일시 귀국한 유 법사는 아프간 현지에 들어와 있는 1500여개의 국제 · 민간NGO단체들 중 '생색내기성 지원'에 그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 법사는 "해당국가의 문화와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국의 방식과 기술만으로 단행되는 개발과 복구 작업들은 현지인들에게 이질감과 무기력함만을 줬다"며 "천막학교를 세우고 다리복구 공사 하나를 하더라고 주변의 흙과 자재, 노동력을 이용해야, 추후 아프간에서 국제기구들과 NGO단체들이 물러가도 아프간이 희망과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00여단체 생색내기 지원
필요한 건 살아갈 '방법과 도구'

어려움도 많다. 칸다르 지역에서 JTS의 활동을 도왔던 현지스텝 바라 씨가 사살되기도 했고,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아 낭패를 본적도 많다. 하지만 유 법사는 일속에서 오는 무수한 난관 속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마음을 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게 수행이고, 그것이 JTS활동의 근본이라고 믿는다. 유 법사는 오는 2월 중순 아프간으로 돌아가 구호활동을 계속한다. 후원문의(02)587-8995

김은경 기자

광동중 교장부임 이학송 교법사

체험 통해 불심 함양시킬것



"특별한 포교전략보다는 학생들이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본 틀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심이란 강요가 아닌 스스로 느끼고 깨우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니까요."

2월 23일 경기도 남양주시 광동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는 이학송 교법사(45 · 현 광동여고 교감 · 사진)는 체험을 통한 불심함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이 교법사는 학생들을 소쩍새마을과 군부대 등에 데리고 다니며 견학, 체험시키고 있다.

"불교계는 청소년포교를 종립학교와 몇몇 청소년 단체에만 떠넘기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청소년 포교활동은 23곳의 종립학교보다 그의 수백 배, 아니 수천 배에 달하는 일반학교들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다른 학교와의 연계 · 교류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진각종에 장학금 1억 희사 김수현 씨

어머니 유산 값있게 쓰고자



"학교를 세우고 싶다던 어머니의 생전 서원이 담긴 희사금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을 값있게 쓰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네요."

90~98년 '여행스케치' 그룹에서 활동했던 김수현(34 • 사진) 씨가 2월 8일 서울 밀각심인당에 장학금으로 1억원을 내놓았다. 이 돈은 어머니 故 백외선 보살이 낙원동에서 '제일떡집'을 하며 푼푼히 모은 재산.

故 백외선 보살이 학교를 세우고 싶었던 이유는 어렵게 자란 어린시절의 사연 때문이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잃을 뻔 했던 남동생이 어느 독지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생전에 은혜를 갚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고인이 2년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그 몫이 김수현 씨에게 돌아왔다.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던 김 씨는 최근 어머니가 마련해놓은 집을 정리하고 그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화촉

△불교신문사 허정철 기자가 2월 15일 오후 12시 30분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상록원 3층에서 서정연 씨와 화촉을 밝힌다. (02)2260-8977

인사

진각종 경주교구청
△총무=정효(정지심인당) △재무서리=관명(광명심인당)

천태종 주요 사찰 신도회장
△서울 관문사=권영철 △인천 황룡사=이종상 △대전 광수사=민병구 △대구 대성사=김정길 △울산 정광사=황세열 △광주 금광사=강병연 △춘천 삼운사=구인회 △포항 황해사=최병렬 △마산 삼학사=윤윤원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매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천사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베개

02)446-4422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불자 세상보기

최 성 렬
조선대 철학과 교수

무너지는 천륜

내 나이 열 살도 채 안 된무렵, 그 때 나는 <명심보감(明心寶鑑)> 흥얼거리기를 좋아 했었다. 그 나이에 무엇을 알았으랴만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이화니라(子曰 爲善者 天報之以福 爲不善者 天報之以禍, 공자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을 준다' 고 했다)"는 구절을 외고 또 외웠다. 아니 차라리 떠들고 다녔다고 해야겠다. 뜻은 그만두고 그저 공부를 빙자한 욕설이라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그런 암기식 교육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펄쩍 뛰겠지만 그때는 무턱대고 외는 것이 상책이었다. 그래도 그런 공부 덕분에 지금도 가끔 원문을 외울 수 있어 좋다. 아마도 반복학습을 통한 훈습(薰習)이 아쉬워서 그럴지도 모른다.

한참 나이가 들어서 안 일이지만 <명심보감>은 원래 20편으로 되어 있다. 후에 증보(增補), 팔반가(八反歌), 효행(孝行), 염의(廉義), 권학(勸學) 등이 더해져 현재는 25편으로 되었다. 그 바람에 같은 이름을 가진 편(篇)이 하나 더 늘었다. 본래부터 분량이 많아 상하로 나누었던 성심편(省心篇)에 추가된 효행편이 그것이다. 추가된 것임을 표시하면서 성심편의 그것과도 구별하기 위해 일부러 <효행편(續)>이라고 한 것도 묘미가 있다.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 이라는 책 이름 그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보배 거울이 될 성현들의 격언(格言)이 주를 이룬다. "천명(天命)에 순응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천명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라고 한 것처럼 처음의 계선편(繼善篇)에서부터 마지막 권학편(勸學篇)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섭리를 본받아 인간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라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다. 얼마 전께는 광주에서 한 비정한 아버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여섯 살짜리 아들과 함께 여관에 투숙했던 아버지가 아들만 남겨 둔 채 혼자 사라졌다는 것이다. 차가운 한강 물에 어린 남매를 던져 수장시킨 아버지가 우리를 경악케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부천에서는 초등학생 두 명이 무참히 살해되었고, 포천에서는 귀가하던 여중생이 실종되기도 하였다.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생활고나 경제 불안 등의 이유로 보육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의 수도 2002년에 이미 2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후안무치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죗가를 치러야겠지만 나라의 희망인 우리의 아이들이 왜 무참하게 희생당해야 하는가. 어린 넋을 차마 보낼 수 없어 구슬피 우는 부모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알고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다는 기인지우(杞人之憂)의 고사성어를 말이다. 지금 우리는 그 기우(杞憂)가 아닌 천륜(天倫)이 무너지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삼국유사>를 읽어 본 사람은, 아니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들어서 알고 있을 법한, 손순(遜順)의 얘기도 말이다. <명심보감> 효행편(續)에 다시 등장하여 우리에게 훈습된 얘기가 아니던가. 아이가 버려지기는 그 때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그런데도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부모 봉양이 아니라, 단지 경제가 힘들다는 것이 이유의 전부이다. 그것도 카드 빚이다 뭐다 해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뿐이다. 내 어렸을 때처럼 '천보지이복(天報之以福)'을 귀가 닳도록 듣고, 눈이 시리도록 보게 하는 몸에 배게 하는 훈습 교육은 언제 이루어질까.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희망으로 자랄 텐데.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새해 들어 불교문화계에는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 각 종단이 다투어 서울에 불교문화와 관련된 회관건립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조계종은 현 서울 종로 조계사 안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했는데,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 2월 17일에 준공식을 갖는다고 하며, 이어 2차 공사도 금년 말까지 끝날 것이라 한다.

조계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하여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 · 전승하고 활성화 · 대중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국불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전통불교문화산업 지원센터'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예술의 전당 인근에 건립한다. 부지 1만여 평에 건평은 5천평의 규모로 2006년 상반기에 완공될 계획이라 하니 자못 기대가 크다.

불교문화 '중흥불사'

한편 태고종도 '한국전통문화전수회관'을 종로구 사간동에 자리하고 있는 법륜사에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 시작하여 내년 8월경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 회관은 영산재를 비롯하여 불화, 단청 등, 주로 불교문화 가운데 무형문화재 분야의 전수를 위한 중심공간 역할을 다할 것이라 한다.

그 동안 불교문화 공간이 전무하다시피 해서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불자들도 안타까워 해왔다. 매우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아쉬운 대로 갈증을 풀게 되는 셈이다. 문화 공간 또는 전통문화를 산업화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출현을 손꼽아 기다려 온 입장에서 부디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 불교문화 중흥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빈다.

다만 이 사업이 단지 문화공간의 확보나 전문기관의 설립이라는 명분에 머물지 않고 내실을 기하려면 지금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들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자율성도 보장돼야 한다. 또한 불교계 전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단별이나 기관별로 특성화하거나 전문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기선(불교조형연구소장)

이렇게 들었다 '나'는 '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크게 재물을 모은 다음 한꺼번에 보시를 하겠다." 그러나 크게 모으기도 전에 임금이나 수화(水火)나 도둑에게 빼앗기든가, 그런 화를 면한대도 문득 죽게 되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이런 사람은 우유를 한꺼번에 짜려는 사람과 같다.

〈백유경〉

대보름을 맞는 마음이 몹시도 불편했다. 아무 죄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길거리에 버려지고,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켰다가 일가족이 변을 당하고, 저녁 운동을 나갔던 아이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이 삭막한 세상에,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따위는 가당찮은 일이다.

농경사회에 뿌리를 둔 대보름의 풍속이 오늘날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도 본래 모습으로 전승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 본래 의미는 오늘날 말하는 '시민의식'과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공동체 의식'이다.

대보름 세시풍속의 일관된 정신은 공동체의 번영과 결속이다. 동제(洞祭), 달집태우기, 줄다리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액운을 떨치고 복을 받기 위해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는다는 '백가반(百家飯)'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연대의 행위다. 흔히 아홉 집을 도는데, 세 집 이상의 타성바지 집의 밥을 얻어먹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가. 이구동성으로 경제난을 말하면서도, 해고된 동료를 걱정하는 듯하면서도, 내 월급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공교육의 붕괴를 개탄하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상식 밖의 고액 과외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허위의식을 걷어내지 않는 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야만은 계속된다. 연기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다.

■윤제학(아동문학가 / 본지 논설위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도법 스님의 대통령 옹호

선우도량을 이끌고 있는 도법 스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는 칼럼을 최근 한 일간지에 기고했다. 나 역시 선우논강의 회원이며 불교 개혁에 대한 스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당선에 내심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 중 한 명임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도법 스님의 이번 글은 몇 가지 이유에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우선, 노 대통령의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발언을 "권위주의와 절대 권력의 칼을 내려놓은 일"이라고 한 점이다. 도법 스님은 '탈권위주의'로 평가했지만 발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마치 국민에게 투정 부리듯, 대통령이 되면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되고 보니 '딴 죽 거는 것이 많아' 못해 먹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 후의 재신임 발언과 행정수도 이전 등의 표현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이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의 감각을 갖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들다.

"일찍이 본 적 없는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시장바닥의 놀림감으로 취급되어 있어 안타깝다"라고 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정작 놀라운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초기의 압도적 지지율에서 불과 몇 개월도 안 돼 과거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 준 대통령의 능력과 자기들은 '다르다' 고 항변하던 그들도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들이 개혁의 대상이라 여겼던 이들과 너무나 똑같아져 버린 현실이다. 도법 스님의 말처럼 "'가능성 있는 싹'이니 잘 키워보자"라고 기다리기엔, 더욱이 그간 노력과 인내를 마다하지 않은 이들에게 '싹수'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 공감대를 요구하기엔 무리가 아닌가 싶다.

말꼬리 물고 호들갑 떠는 것은 나도 진절머리가 난다. 나의 '나섬'이 도법 스님에게 누가 되거나, 더욱이 상상력은 풍부하나 속물(俗物)인 무리들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성법 스님/
세존 사이트(www.sejon.or.kr) 운영자

하와이 포교 여건

불교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수미산이다. 수미산은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상상의 산으로, 세계의 최하부를 풍륜(風輪)이라 하고 그 위에 수륜(水輪) · 금륜(金輪:地輪)이 겹쳐 있으며, 금륜 위에 구산팔해(九山八海), 즉 수미산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8개의 큰 산이 둘러싸고 있고, 산과 산 사이에는 각각 대해가 있는데 그 수가 8개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지구의 중심부인 남태평양 한 가운데 있는 8개의 섬과 8개의 바다로 되어 있는 하와이가 수미산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힐로섬은 이곳에서 제일 큰 섬으로 여신 펠레가 산다고 하는데, 펠레신은 지장경 표지에서 본 지장보살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곳 오하후섬에 있는 하와이 무량사(대원사)뿐만 아니라 일본 사찰과 하와이 호놀룰루 시내 여러 곳에 있는 중국 사찰들이 모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다. 하와이야말로 자연과 기후 환경이 극락정토로 불릴만하기 때문이다.

오래 전에 열반하신 고암 스님은 지금의 무량사(대원사)를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제일 규모가 큰 한국식 사찰로 창건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셨다. 또한 일타 스님도 이곳을 국제포교의 근거지로 활용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하와이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포교 여건도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한국 불자들이 이곳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와이는 불교의 성지가 될만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누구든지 이곳에 와보면 수미산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할 만큼 아름답고 깨끗하며 살기 좋은 정토임을 깨달을 수 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 하와이와 인연을 맺기를 권하고 싶다.

김덕조/하와이 정법사 포교사

'현대' 만평 심 민 섭



대한항공 미얀마 특별전세기 운항

부처님 마음(佛心)이 살아있는 때묻지 않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출발일 : 2/25, 2/29, 3/4, 3/8 (5박6일) 단 4 회 한정 / 선착순 500명

* 불교성지순례 – 종전 ₩1,680,000 ⇒ ₩ 1,380,000 (전세기 특별가)
인천-양곤-파간-만달레이(샤가잉)-양곤-인천

* 문화탐방 – ₩ 1,450,000
인천-양곤-해호-파간-양곤-인천



주관 여행의 명문 한진관광 후원 대한항공 BBS 불교방송 btn 불교텔레비전 32 미얀마 관광청

한진관광 서울 02)726-5788, 5780 / 부산 051)463-2115

미안마 불교성지순례 일정 5박 6일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양곤 파간	국내선	06:30 07:50	아침공양후 국내선으로 파간 이동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 쉐산도파고다,이라와디강 석양감상후 호텔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3일	파간 만달레이 샤가잉 만달레이	국내선	08:45 09:15	아침공양후 공파웅왕조의 만달레이 이동 우베인다리,마하간디용수도원,만달레이언덕 순례 샤가잉 이동후 쉰우퐁야산,우민동제파고다 순례 만달레이 귀환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MANDALAY HILLRESORT CLASS		
제04일	만달레이 양곤	국내선	09:30 11:05	아침공양후 양곤 이동후 로카찬다옥불사,차욱탓지파고다,칠엽굴 및 까바예파고다(진신사리 천견/정대불사 봉행) 아웅산마켓 견학 저녁공양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RADDERS HOTEL CLASS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전세기	전일 23:35	아침공양후 쌍쉐다곤파고다,마하시수도원 순례 아웅산기념탑 경유 양곤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 성 불 하 십 시 요 *	조	기내식
					중	
				HOTEL	석	

미안마 문화탐방 5박 6일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양곤	KE전세기	19:00 22:35	인천국제공항 집합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양곤 도착후 호텔 투숙	조	
					중	
					석	기내식
				HOTEL | TRADERS HOTEL CLASS		
제02일	양곤 해호	국내선	15:30 16:40	호텔 조식후 쉐다곤파고다,아웅산기념탑 경우 쉐도파고다,로카찬다 옥불사 해호 이동 석식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한 식
					석	현지식
				HOTEL | HUPPIM HOTEL CLASS		
제03일	해호 파간	전용보트 국내선	17:05 18:35	호텔 조식후 인따족의 수상시장 및 수상경작지 외발노젓기 관광 팡도우파고다,인뗑유적지 관광 파간 이동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현지식
				HOTEL | THARABAR GATE HOTEL CLASS		
제04일	파간 양곤	국내선	18:55 20:15	호텔 조식후 2,500여개의 불탑파노라마 관광-쉐지곤파고다,아난다사원,마누하사원,부파야파고다,쉐산도파고다 양곤 이동후 호텔 투숙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TRADDERS HOTEL CLASS		
제05일	양 곤	전용차량 KE전세기	전일 23:35	호텔 조식 후 칠엽굴 및 까바예파고다 관광 차욱탓지파고다,아웅산마켓 관광 양곤 출발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HOTEL | 기내박		
제06일	인 천		07:35	인천국제공항 도착후 해산	조	기내식
					중	
				HOTEL	석	

마른 산에 눈 내리니 '생명'들은 조용히 체온 유지…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22) 고령산 보광사의 겨울살림



대웅전 뒤로 멀찌감치 떨어진 산자락에 석불상이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다. 그 아래로 활엽수들도 가지마다 눈꽃을 피웠다.



보광사 설경.

영조대왕 때 원찰로 지정
기둥 · 서까래 굵고 튼튼
⋮
일제 때 용성스님 주석했던
도솔암 쓰러지기 일보직전
⋮
정상에 올라서면
불국산 사패산 북한산 등
한눈에 굽어 보여

하늘은 계절에 따라 천변만화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겨울에는 눈 덮인 설산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겨울 숲은 눈을 이불로 삼으며 동안거(冬安居)를 난다. 이번 걸음은 해제(解除)를 저만큼 앞둔 겨울 보광사를 찾았다.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혹한 끝에 나선 걸음이다.

보광사로 가는 숲길 가장자리 햇살 녘에 '연우지석(戀友之石)'이 서 있다. 지난 1994년 불교개혁에 동분서주하던 중 교통사고로 졸지에 세상을 떠난 종태 스님을 추모해 도반스님들이 세운 비석이다. 비석은 종태 스님의 본사인 지리산 화엄사의 돌이라고 한다. 철분이 산화되면서 생성된 붉은색이 이루지 못한 꿈인 양 해마다 짙어간다.

비석 건너편 눈 덮인 얼음장 밑으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몇 마리 곤줄박이가 영혼의 도반인 양 뭐라고 지껄이며 호로록 호로록 날아다닌다.

"…전송하면서 / 살고 싶네 // 죽은 친구는 조용히 찾아와 / 봄날의 물 속에서 / 귓속말로 속살거리지 / 죽고 사는 것은 물소리 같다고…."(마종기)

보광사의 본래 이름인 '고령사(高靈寺)'는 뒷산인 고령산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그러다가 조선조 영조가 부근에 있는 생모 숙빈 최씨의 묘소를 소령원(昭寧園)으로 추봉하면서 보광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원찰로 삼았다고 전한다.

고색창연이 날로 더해가는 대웅전 건물은 흙을 쓰지 않은 판벽이다. 현악기의 공명통 역할을 해서 안에서 목탁을 치면 그 울림이 퍽이나 아름답다.

만세루는 조선조 당시 법당을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었던 왕실의 상궁들을 위해 따로 마련한 예불공간이다. 왕실의 원찰이 아니고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근래 시멘트 한 삽 쓰지 않고 옛 그대로 해체복원을 해서 눈 맛이 좋다. 기둥과 서까래를 비롯한 부재들도 궁실에서 보듯 굵고 튼실하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전통건물에다 알루미늄 새시로 짠 유리문을 달았다는 점이다. 전통건물은 전통성에 충실하지 않으면 생태건축이 되기 어렵다.

어실각 앞 향나무는 영조 임금이 어머니 숙빈을 기리며 심었다고 전한다. 수령이 3백년을 넘어 심재(心材)에 부후(腐朽)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마침 제(祭)를 마친 유족들이 망자의 유품을 들고 와 소대(燒臺)에 넣고 태우고 있다. 시커먼 연기가 끊이질 않는다. 망자의 옷 한 벌도 예전에는 무명이나 삼베 같은 천연섬유였으나, 요즘은 모두가 화학섬유라서 함부로 태우기가 께름칙하다. 옷을 태울 때 발생되는 다이옥신 때문이다. 이젠 절에서도 선별해서 소각해야 할 일이다.

헌식대에 얹힌 공양물들은 제를 마치고 난 뒤 조금씩 떼어다 주위의 새와 동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린 것이다. 헌식대 주위로 새들의 발자국이 모여 있다. 눈 때문에 며칠을 굶은 토끼도 내려와 발자국을 남겼다. 만류일체(萬類一體)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그러나 요즘 농약과 유전자 조작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드물어서 적이 걱정이다.

대웅전 뒤로 멀찌감치 떨어진 산자락에 석불상이 머리에 흰 눈을 이고 있다. 부처님 등 뒤로 백발이 성성한 노장처럼 눈 덮인 고령산 능선이 지나가고 있다. 그 아래로 활엽수들도 가지마다 눈꽃을 피웠다.

눈꽃에도 종류가 있다. 설화(雪花)는 나뭇가지에 앉은 눈이요, 빙화(氷花)는 가지에서 눈이 녹아 물방울처럼 얼어붙은 것이다. 무송(霧凇)은 서리가 나뭇가지에 내려 그대로 얼어붙어 눈처럼 보이는 것이다. 무빙(霧氷)은 공기 중의 습기가 나뭇가지나 줄기에 부딪쳐 급히 얼어버린 성에의 일종이다.

겨울산은 볼 것이 없다고 한다. 풀은 말라 죽고, 나무들은 낙엽을 떨어뜨렸고, 곤충들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구릉과 골짜기와 산길이 모두 눈에 덮여 빈사(瀕死) 상태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들은 생태계를 떠나 따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을 뿐, 모두가 제 자리에서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잘 들리지 않을 뿐.

노랑턱멧새가 동자처럼 앞서 도솔암 길을 안내한다. 오색딱다구리 한 마리는 나무 꼭대기에서 사시마지 목탁을 내리고 있다. 조선 중기 문인인 송순(宋純)은 딱따구리 소리를 '박박탁탁(剝剝啄啄)'이라고 표현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것은 구멍을 파기 위함만은 아니다. 딱따구리는 강한 부리로 나무를 톡톡 쳐서 그 안에 벌레가 숨었는지를 알아낸다. '그 안에 뉘 계시오?' 하며 '박박탁탁' 노크를 해대는 것이다.

산길 주변 골짜기에 다래나무가 간간이 눈에 띈다. 세상을 등진 은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고 '다래'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닌지 모르겠다. <동의보감>에 다래 안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나는 것을 멎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으니, 은자들이 세간에 살면서 열 받힌 가슴을 다래로 식혔을 법도 하다.

도솔암 오르는 숲길은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느티나무, 쪽동백, 단풍나무, 서어나무…등등이 총림을 이루고 있다. 몇 그루 소나무가 살아남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전성시대는 이미 끝이 났다. 식생의 천이를 감안해도 오늘날의 고령산 숲 모습은 4반세기 전 영조 당시에도 이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 굴참나무가 참나무 세력을 이끌고 있다.





도솔암 토굴과 굴참나무 껍질.



만세루 전나무숲(왼쪽)과 어실각 향나무(아래).



굴참나무는 코르크 성질의 껍질을 보면 다른 참나무와 쉽게 구별된다. 먼 옛날 스님들이 첩첩산중에 임시로 거처할 토굴을 지을 때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지붕재료가 바로 굴참나무 껍질(굴피)이었을 것이다.

해발 450미터에 자리하고 있는 도솔암은 일제 때 용성 큰스님이 1915년부터 3년간 주석하며 빼앗긴 나라의 미래를 고뇌하던 곳이라 한다. 100년 된 노송은 그때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도솔암은 쓰러지기 일보직전이다. 언제 내걸었는지도 모를 불사 현수막이 세월에 퇴색된 채 삭풍 끝에 펄럭이고 있다.

또 유감스런 것은 도솔천에 와서까지 함부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봐야한다는 사실이다. 음식물 쓰레기들이 버려진 곳은 바로 보광사 상수원 계곡이 아니던가. 이건 도무지 도솔천의 모습이 아니다.

정상에 오르면 천산만봉이 눈 아래 굽어보인다. 불국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감악산…. 날이 쾌청하면 개성 송악산이 자운빛으로 보인다고 한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사찰문화연구소
신/대/현 연구위원

기록이 남아야 문화재도 삽니다

사찰의 역사·풍광 꼼꼼히 체크
13년 동안 매년 100여곳 답사
수집한 자료 사진만 수십만 컷
20권의 <전통사찰총서> 발간

"스님, 지난해 찍어두었던 청룡사 사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청 문양도 사라지고 옛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꼭 간직하세요."

"우리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주니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꼬."

2월 9일 오후 4시.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가 스님이 되어 평생 단종을 그리워하며 생을 마감한 서울 종로구 숭인동 청룡사 심검당. 사찰문화연구소 신대현 연구위원(43 · 문학박사)과 청룡사 주지 진우 스님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을 선물한 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사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몇 년전부터 계속해 온 불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주지 스님에게 꼼꼼히 물어본다. 또한 최근 새로 단장한 청룡유치원에도 직접 가 보며 사찰 변화의 모습을 일일이 카메라에 담았다.

1992년 사찰문화연구소의 출범과 함께 신 위원은 사흘에 한 번은 절을 답사하는 사람, 매일 사찰 자료를 모으고 뒤적이거나 사찰의 역사와 풍광 ·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기획하는 사찰과 문화재에 빠진 사람이 됐다. 연구소는 이용부 전 종무관,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명호근 쌍용양행 사장 등 청년불교운동의 기수들이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불교를 현대화하며 중흥시키는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사찰은 불교의 참 정신이 깃들어 있고, 큰스님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으며 몸과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는 신행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사찰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동안 사찰의 연혁에서부터 소중히 보존해야 할 문화재, 하나하나의 성보에 깃들어 있는 의미, 그 절이 지니는 신앙의 성격, 관련 설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사찰문화연구소 상근 연구원인 신 위원은 13년동안 매년 100여개의 사찰을 답사했다. 단순하게 셈하면 사흘에 하루는 절을 답사한 것이다. 그동안 수집한 사진만도 수십만 컷에 이르고 메모노트도 수백권에 이른다. 수집된 자료는 매년 지방별로 묶어 책으로 발간했고 올해 마지막 2권을 끝으로 총 20권의 <전통사찰총서>가 완간된다.

"사찰을 조사하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오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 현재 남아있는 문헌을 일일이 대조해 가며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사찰총서>는 사찰의 진수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안내서이자 저의 연구소가 10년 넘게 한 작업의 부산물인 셈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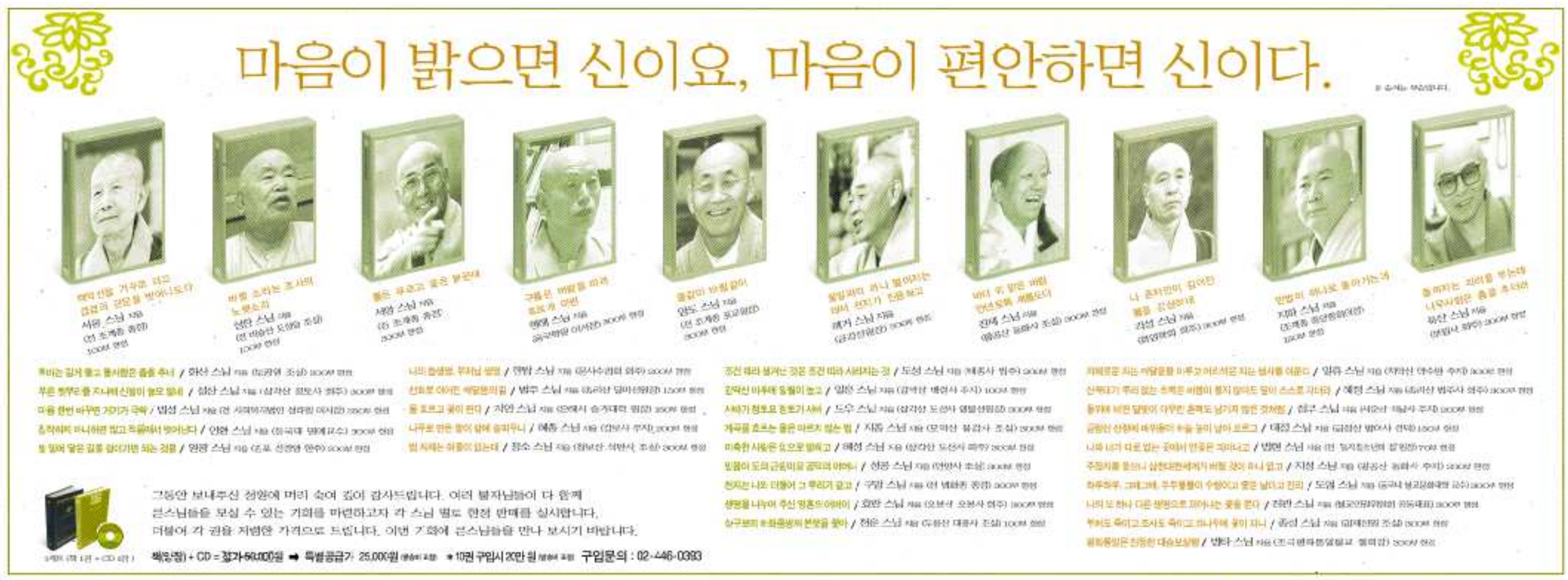
그 외에도 용주사, 낙산사, 봉은사, 보문사, 선본사 등의 사지를 편찬했고 <북한사찰연구>, <불교의 효사상>등의 책을 편찬했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 위원은 답사를 다니면서 성보의 가치를 모르고 방치하거나 없애 버리는 일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모 사찰을 방문했을때 아궁이에 현판이 땔감과 함께 놓여 있어 스님에게 그 뜻을 설명해 겨우 불소시게를 면한 적도 있다고 한다. 또한 터에 맞게 불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나 대웅전을 비롯한 여타의 전각에 현판을 가린 채 불사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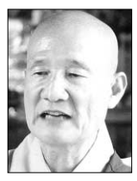
"어느해 가을 경북 울릉도를 답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찰에 도착해 스님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스님이 잠시 옆방으로 저희를 안내하더군요. 근데 옆방에 들어가자마자 장정 5~6명이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들은 사복경찰과 정보기관 관계자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어서 간첩이나 도굴범으로 오인을 받은 거죠."

신 연구위원은 현재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전파를 타는 불교방송 사찰순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다. 올해 <전통사찰총서>가 완간되면 사찰사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커다란 꿈도 가슴에 키우고 있다. 그 꿈이 있기에 신 위원은 또다시 답사할 사찰을 정하고 자료 수집에 착수한다.

글=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자재만현 스님의 염불선 이야기 <3>



아라한 · 보살의 경지

대승 불교에서는 성자의 위계를 아라한-보살-불로 보십니다. 인간은 사생결단의 발심으로 정진해 가면 해탈의 자리인 아라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력 수행의 한계입니다.

아라한도를 깨친 이라면 칠흙같이 깜깜한 암굴에서 햇빛의 굴밖 세상으로 갑자기 벗어났을 때의 경지, 천지가 뒤집혀진, 언설 가지고 어찌 표현할 수 없는, 생각 따위가 미처 들어갈 여지가 없는, 공(空)한 경계를 맛보았을 겁니다.

소위 강하게 자성(自性)이 드러난 경계인 견성의 경지입니다. 남-북방의 여러 수행법으로 일체가 공(空)이요 무아(無我)임을 확실히 깨친 수행인이 더욱 보임공부를 잘 해가면, 아라한의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습니다. 아라한과를 이룬 성자의 오라(aura), 영체의 빛은 보름달 속 밝은 부분의 색(은백색)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좌탈입망이 가능한 아라한 성자의 경지입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해탈한 자리
보임 잘하면 생사 윤회 벗어나

그러나 아라한 성자라 해도 견성한 후에 청정계율, 특히 사음계를 파하면 절대 안됩니다. 부처님과 법을 능멸하는 큰 구업 역시 범해선 안됩니다. 대신 보임을 잘 해나가면 생사의 윤회를 벗어납니다. 윤회 밖 성중(聖衆) 하늘 상품(上品)까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성중 하늘을 지나면 도솔천 내원궁, 곧 미륵불이 교주인 도솔정토가 있습니다. 불과(佛果)를 이룬 대성자의 부모님들이 주로 태어납니다. 다시 그 위가 아미타불의 정토 극락세계입니다. <아미타경>에서 1일에서 7일 동안 일심불란으로 칭명염불할 수 있어야 왕생한다는 극락입니다. 팔지(八地) 이상의 보살과를 증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보살과를 이루려면 <화엄경>의 10주, 10행, 10회향의 보살행을 닦아가면서 다음 경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첫째 시방세계 일체가 선명히 드러나는 해인삼매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금강석 같이 일체를 여읜 마음은 청정해서 한 티끌 한 생각이 녹아져 햇빛처럼 밝습니다. 둘째,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의 방광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공부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보살의 영체는 요즘 절기로 봐서 아침 8시경 태양의 빛깔입니다. 넷째, 마음은 삼독의 번뇌를 벗어나 중생에게 기쁘게 회향할 줄 아는 이타행 보살심이 투철합니다. 가령, 나는 살아 남아서 눈 먼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며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처절한 절규를 들었다면, 자기가 대신 처형받을 것을 자원할 정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화엄경> 10지품 말씀처럼 2명의 금강역사(신장)가 호신하게 됩니다.

극락에 왕생한 이는 불퇴전의 경지입니다. 성불을 보장받는 위(位)입니다. 이곳에 왕생할 정도로 청정하고 수행이 깊은 이는 남자로 바뀌어 태어납니다. 그리고 보살과를 이루는 데는 부처님의 타력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염불이 보살과를 증할 수 있는 소중한 수행법인 이유입니다.

미타 삼부경 등에서 볼 수 있듯, 염불선은 경전상의 근거가 분명하고 3천년 간 검증을 받은 최고의 수행법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염불선에도 선지식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 남섬부주는 외도의 그물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위험한 늪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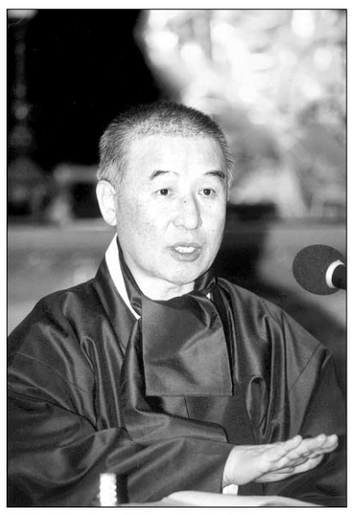
느낌·관념·행동으로 마음 알기

묘원법사의 심념처 수행현장

번뇌, 없애야 할 대상아닌 알아차릴 대상
집착은 무상-괴로움-무아 봐야 사라져



매주 목요일 저녁 묘원법사의 지도로 심념처를 수행하는 동산불교청년회 회원들.



국내 위빠사나 1세대 수행자인 묘원 법사.

달마어록에 '마음을 보는 한가지로 모든 행동을 다스린다'는 '관심일법 총섭제행(觀心一法 總攝諸行)'이란 유명한 언구가 있다. 달마 대사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 달라고 말하던 혜가 선사가 '그 마음을 찾을 래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마음은 볼래야 볼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관하는 것은 남북방 모든 수행의 근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간화선의 경우, 다소 막연하거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남방 위빠사나의 4념처(四念處) 수행 가운데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처(心念處) 수행은 마음을 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월 29일 서울 동산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 동산불교청년회의 심념처 수행현장.

"부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우주의 모든 이치를 아셨어요. 자기의 몸과 마음이 없으면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의 성품은 같은 원리이므로 물질과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주를 안다는 것이 됩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 묘원(58) 법사의 설법은 신(身, 몸의 움직임), 수(受, 감각), 심(心, 마음의 움직임), 법(法, 생각의 대상) 등에 대해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과 아비담마를 바탕으로 자세히 진행됐다. 이어 마지막 30분은 좌선 또는 와선 자세에서 몸 구석구석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나중에는 '(대상을) 보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심념처에 대한 설명과 실참이 있었다.

1988년 국내에 위빠사나를 처음 소개한 거해 스님으로부터 근본불교를 접한 1세대 남방선(禪) 수행자인 묘원 법사. 96년부터 미얀마 마하시 센터와 쉐우민 센터에서 7년여간 집중적인 수행을 통해 '마음 보는 법'을 알게 됐다는 그는 서울 강남(매주 목 오후 2시) 및 강북(매주 화 7시30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동산불교대학(매주 목 오후 7시30분, 011-9708-3531) 등에서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심념처관을 지도하고 있다. 마음 관찰을 강조하는 선과 심념처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수행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번뇌가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위빠사나에서는 어떤 번뇌이거나, 그것들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고 알아차릴 대상일 뿐입니다. 생각들은 잠재된 나의 고정관념이고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망상은 알아차릴 '대상'이므로 바로 법(法)인 것이죠. 먼저 호흡과 느낌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된 뒤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시면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그 순간의 마음을 이미 안 것입니다. 이 때의 마음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마음을 새로 내야 합니다."

-비물질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뜬 구름 잡는 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마음은 비물질이라서 분명하게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수(受, 느낌), 상(想, 관념), 행(行,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수, 상, 행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킨 마음을 안다는 것은 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라서 수행자에게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마음의 어떤 특성이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가요.

"마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마음이 길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 순간 서로 다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데 항상 뒤에 일어난 마음은 새로 일어난 마음입니다. 순간 순간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마음은 조건이지 나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아(無我)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무상과 괴로움과 무아를 보아야 사라지며 그중에서도 무아를 보면 더 확실하게 집착이 끊어지고 더 높은 의식수준을 얻게 됩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통찰'이 지혜의 증득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행은 궁극적으로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대상의 모양을 보지 않고 빠라마타(Paramattha, 실제, 성품)를 알아차리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통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통찰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 사물의 본성을 바로 알아 집착을 끊게 되고, 궁극의 열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보는 수행은 보려고 애쓸 수록 새로 망상을 짓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이, 없애려고 하지 않고,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본다는 생각 없이, 작용하지 않고 비 작용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목표는 있으되 바라는 것이 없이 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그냥 알아차릴 대상이 있어서 조건 없이 알아차려야만 비로소 통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Sati)의 특성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숙달되면 일상에서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르게 수행하면 직장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진실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이나 어려워하지 않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직장생활이 바로 일상의 알아차림입니다. 수행 따로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알아차릴 대상으로 보면 간단해 집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봉은사, 선 수행의 고전 '육조단경' 논강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8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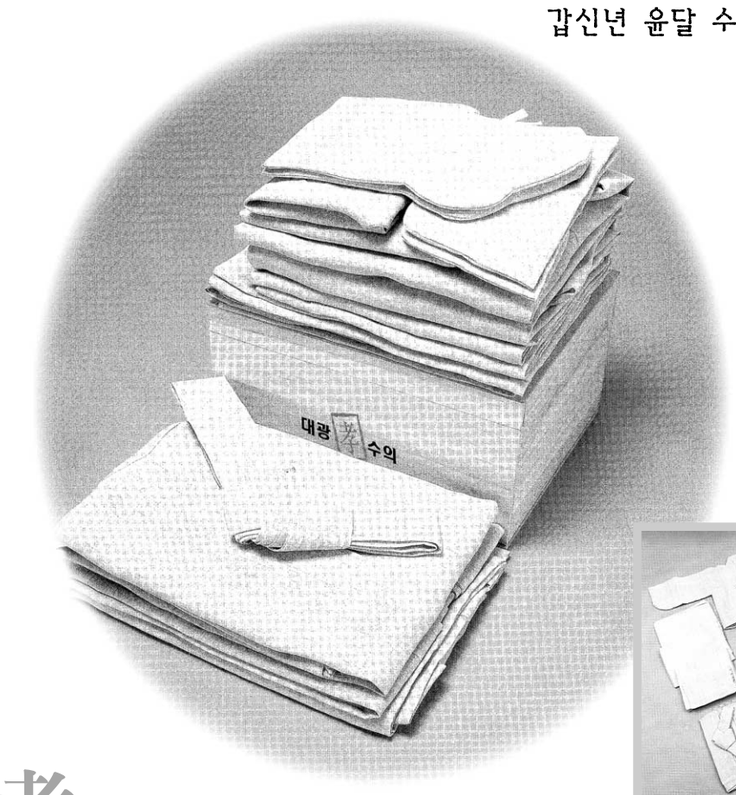
선사와 강백이 펼치는 <육조단경> 논강이 서울 봉은사 봉은학림에 개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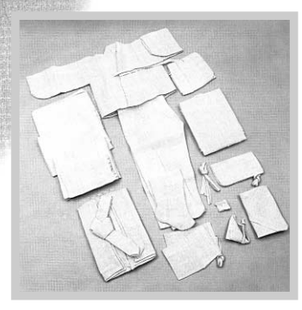
봉은사는 2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육조단경> 논강을 연다. 8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논강은 선의 생활화와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석.

2월 21일과 28일, 3월 6일 열리는 1~3강은 혜국 스님(제주 남국선원장)이 돈오견성과 좌선의 정의, 참문 등 '육조단경의 사상'에 대해 강의한다.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4강을 이어 받아 '육조단경에서의 대승불교 수용'에 대해 강론한다. 5~7강은 육조단경의 세분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주와 논사, 대중이 함께 논강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안 스님(승가대학원 원장), 이중표 교수(전남대), 김진태 박사가 각각 논주를 맡았다. 마지막 8강에서는 고우 스님(각화사 태백선원장)이 선 수행담을 들려준다. 이들 논강의 논사로는 정각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각묵 스님(실상사), 세등 스님, 이덕진 교수(창원대) 등이 나서 논주와 토론을 벌인다. (02)516-5652 박봉영 기자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孝]수의로 하세요

갑신년 윤달 수의 특별가로 불자님들을 모십니다







孝 대광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02)2275-8075, 2279-7450 FAX. 02)2272-6715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孝]윤년수의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면...

(1) 믿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여유있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혼합된 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고가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으나 금년 윤달에 "대광"에서는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막상 큰일을 당하여 급한 나머지 아무 수의나 입혀드린 후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고품직의 수의를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여 경황없는 중에 저가품의 수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하시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은 현재 유통의 문제점입니다.
좋은 품질의 수의를 적정한 시기 윤달에 구입하시는 것은 이런점들을 고려해 볼때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 금번 윤년 "대광상사"에서는 좋은 삼베만을 골라 한올한올 공경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맞춤 바느질한 제품을 그 동안 대광 삼베를 성원해 주신 보답으로 불자님 여러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4) 수의의 옷감은 자연섬유로만 사용하여야 매장용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수년만에 윤달이 가장 좋은 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길년에 효도하시고 고품질에 수의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시어 두가지의 행운을 함께 하십시요.

윤년에 수의를 준비하시는 불자님에게는 오동나무 상자를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

하하하! 웃음도 명상이래요

잠·달리기·허밍 등도 명상 소재
고정관념 버리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하는 '생활 명상'

명상이 보편적인 문화코드가 된 지는 이미 오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명상을 어려워한다. 적막과 가부좌 그리고 꼭 감은 눈만을 떠올려서일까, 명상은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기분으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제 그 같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명상법은 얼마든지 많다. 여러 명상가들이 제시하는 생활명상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스럽게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춤과 웃음"이라며 "웃음은 무념의 세계로 들어가는 훌륭한 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잠 깬후 5분간 웃어라

△웃음명상= "아침에 잠을 깨고 기지개를 펴며 마냥 웃어라. 5분 동안 마냥 웃어라. 처음에는 웃음소리를 인위적으로 내야 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웃음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여러 날을 반복하다보면 웃음이 그대의 하루 전체를 바꿀 날이 온다."

오쇼 라즈니쉬의 웃음명상법이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웃는 순간'에 생각이 멈춘다. 웃음과 생각은 변증법적으로 정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순간에는 웃음과 생각 둘 중 하나밖에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웃을 때는 마음이 돌연 사라지고 모든 경계와 구분 역시 사라진다. 라즈니쉬는 "가장 쉽고도 자연



요가니드라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같은 웃음은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월드 잠실센터 김영자 원장은 "웃음수련은 뇌호흡센터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기는 수련"이라며 "활짝 웃어주면 뇌도 활짝 깨어나 산소가 활발하게 공급된다"고 밝혔다.

몸·마음은 休, 의식은 깸

△요가니드라=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일상적 망상을 제거하고 교감신경계의 활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올바른 이완기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버드 의대 허버트 벤슨 교수가 말한 '올바른 이완'은 요가니드라 명상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요가니드라란 '요가의 잠'이란 뜻으로, 몸을 바닥에 뉘여 이완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딴트릭 요가의 명상법이다. 편히 누워 몸을 고요하게 하고 자기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든 일어나도록 허용하지만, 결코 잠드는 것은 아니다. 몸과 마음은 재우지만 의식은 깨어둬야 한다. 물론 누운 채로 몸을 이완시키다보면 잠에 빠지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요가니드라 명상을 시작할 때에는 '명상 도중 잠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 되새긴다.

스와미 싸띠아난다 요가센터 대표 스와미 싸띠아미뜨라 씨는 "요가니드라는 몸과 마음은 재우고 의식은 자각상태로 유도하는 명상법"이라며 "한 시간의 요가니드라만으로 네 시간의 깊은 수면과 같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긴장과 스트레스에 젖어 사는 현대인이 짧은 시간에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제자리 달리기로 시작

△만다라명상= 만다라는 산스크리트어로 '원모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만다라 명상은 자연스러운 센터링(centering:중심 잡힘)이 일어나도록 에너지 원을 만들어내는 명상법이다.

총 네 단계로 이뤄지는 이 명상법은 달리기로 시작한다. 무릎을 가능한 높이 들어올리고 제자리 달리기를 한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에너지를 내부로 몰고 갈 것이며, 달리는 자는 마음과 육체를 잊고 오직 달리기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렇게 15분을 달린 후에는 눈을 감고 입은 느슨하게 벌리고 앉아 몸을 앞뒤좌우로 부드럽게 흔든다. 그리고는 가만히 누워 눈동자를 시계방향으로 돌린다. 될 수 있는 한 크고 빠르게 움직인다. 호흡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입과 턱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움직인다. 마지막에는 침묵으로 명상을 마무리. 윤구용 니케타나 명상센터 원장은 "만다라 명상은 선 채로 몸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던 수피(이슬람 신비주의자)들의 회전명상과 닮았다"며 "이들 명상법은 에너지 순환을 창조해내는 강력한 정화기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웃음 수련에 참여중인 단월드 회원들. (사진제공=단월드)

전신 진동 느끼며 '옴' 허밍

△나다브라마= 티베트 스님이 수행 중 피곤하거나 지루할 때 행했던 명상법이다. 먼저 눈을 감고 입을 다문 상태로 앉아 '옴'이라는 허밍을 시작한다. 전신에 진동이 일어날 만큼 큰 소리로 지속하다보면 허밍이 저절로 이어지는 시점이 온다. 이 시점에 이르면 내면에 흐르는 에너지가 자각된다. 이렇게 생산·자각된 내면의 에너지를 우주와 주고받는 과정이 바로 2단계다. 단전부위에서 출발해 양팔을 내뻗으며 원을 그리고, 다시 반대방향으로 되돌리며 모아온다. 내뻗는 원에 에너지를 주고, 들여오는 원에 에너지를 받는 것. 이후 3단계에서는 누운 채로 고요히 침묵에 젖어든다. 윤구용 니케타나 명상센터 원장은 "나다브라마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우주와 주고받아 존재계와의 합일을 시도할 수 있는 명상법"이라고 말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자혜 스님 (下)

성운대사 법문 섬세하게 통역

자혜(慈惠) 스님을 말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성운 대사의 법문을 대만 말로 통역하는 데 있어 탁월했다는 점이다. 그 당시 대만의 시골은 대부분이 대만말인 민남어(閩南語)를 쓰고 있었기에, 이들에게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대만말의 통역이 필수적이었다. 성운 대사도 "만약에 자혜 스님의 통역이 없었다면 대만에서의 포교가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말했을 정도다. 성운 대사의 법문을 일일이 알기 쉽게 절묘한 표현으로써 전달할 뿐만 아니라 감정과 정신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은 수많은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낸다. 또한 자혜 스님은 일본어 통역도 매우 능숙해 일본 불교학자들로부터 칭찬받을 정도다.



기획력과 지도력 탁월
천수관음 별칭 얻기도

자혜 스님의 이러한 능력은 스님의 천부적인 소질과 노력도 있었지만 성운 대사의 엄격한 훈련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성운 대사는 통역을 할 때 자리에 앉는 것은 물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으며 필기도 못하게 하고 10여분을 연설한 뒤에야 통역을 하게 했다. 또한 통역하기 전에는 일체의 사전 자료도 주지 않고 즉석에서 소화해 내도록 했다. 이러한 훈련 덕분에 자혜 스님은 엄청난 주의력과 순발력으로 모든 통역을 무리 없이 소화해 낼 수 있었다.

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불자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신행이 활발해졌지만, 대만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기복이 아니라 신도들이 정지정견(正知正見)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행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었을 때는 학술과 문화를 연계하여 신도들의 수준을 이끌어 올려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묵묵히 노력해 온 자혜 스님은 1982년부터 성운 대사의 지시로 국제불교학술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1985년의 세계불교청년학술회의를 비롯하여 세계현밀학술회의, 국제불교학술회의, 불광산 불교학술회의, 돈황학국제학술토론회 등 대규모의 학술회의를 해마다 개최해 불광산의 성가를 높이고 대만의 불교수준을 끌어 올렸다.

불광산에서 출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여러 가지 소임을 동시에 맡고 있지만 자혜 스님만큼 다양한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도 드물다. 자혜 스님은 일찍부터 수산불학원(壽山佛學院) 훈육주임을 비롯해 동방불교대학 학장, 보문중학교 교장, <보문(普門)>잡지 발행인, 불광출판사 사장, 까오슝 수산사(壽山寺) 주지, 보현사(普賢寺) 주지 중국불교연구원 원장, 국제불광회 수석비서장 등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불광산종무위원회 위원겸 교육원 원장, 불광산문교기금회 집행장, 월간 <각세(覺世)> 발행인, 남화관리대학 이사, 세계불교도우의회 부회장, 동경별원 주지 등의 다양한 소임을 맡고 있다.

일에 대한 기획과 스텝들을 지휘하는 것이 능수능란 해 천수관음이란 별명을 얻은 자혜 스님은 일하는 표를 내지 않으면서도 큰 일들을 무난히 치러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불교계와 학술문화계의 교량역할을 해 온 것도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구사론>에 대해 석사논문을 쓴 스님은 대학에서 5년 동안강의를 했고 국내외의 저명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대만의 불교학 수준을 끌어올렸다. 그 중에서도 불광산문교기금회를 통한 교환교수의 지원, 미국 콜롬비아대학과 연계해 전자대장경을 발간한 것 등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누구나 처음 자혜 스님을 대하면 글만 아는 서생인 듯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본인의 말처럼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진리로 사회를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세대의 사고를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자혜스님은 출가자는 재능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덕이 있어야 세간, 출세간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다고 여긴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쉽게 포교하며,
21세기의 풍요로운 삶을 생활불교의 실천수행으로.....

금강불교대학 2004년도 신입생 모집

(사이버 동영상강좌 = http://www.kkbuddha.net)

1. 모집과정
불교기초과정
불교 전문 과정-(포교사)
장례지도사 과정-(장례지도사)
공통 : (컴퓨터기초.기초의식.경전)

2. 모집방법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및 등록

3. 개 강
2004년 2월 7일

3. 입 학 식
2004년 3월 6일(토)오후1시

● 특전(자격) : 포교사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장례지도사 (한국장례업협회)

문의 : 금강불교대학 (www.kkbuddha.net)
경남창원시동정동708-48번지 (641-490) 전화:(055)253-0108 / 전송:(055)296-6200

갈곳없는 모든 부모님을 부처님으로 맞이하여 모시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迎佛院 노인전문요양원 연꽃피는집 개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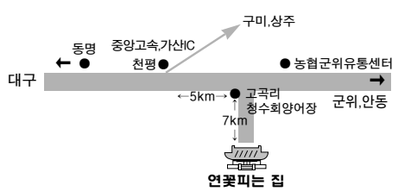
■ 기관연혁
2002년 11월 26일 건축준공(건평1,594㎡)
2003년 4월 8일 사회복지법인 영불원 인가
2003년 6월 1일 증축공사
2004년 1월 개원예정(대지면적 - 2,800평, 연건평 - 945평, 규모 - 지상 2층, 입소정원 - 100명)

설립목적
소승의 선원생활 중 스님들께서 속가 부모님 봉양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스님들의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소승의 상속받은 재산과 친지들의 도움으로 스님들의 부모님을 보다 안락한 요양시설에 모시고자 합니다.

대 상
노인성질환, 치매 ·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1.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부모님
2. 스님 외 무의탁 부모님
3. 속가사정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
4. 사찰에서 오랫동안 공양주, 화주 보살님으로 계셨던 분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시는 분

신심 있는 불자직원을 모집합니다
• 간호사 : 운전(1종)가능 필, 병원근무경력자 우대
• 생활복지사 : 운전(1종)가능자, 사회복지사1급, 2년이상 경력자 우대
• 생활지도원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우대
• 영양사 : 병원 및 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 물리치료사 • 취사원 • 위생원(세탁부) 모집
※기숙사 완비, 이.사.주 우편 접수
• 근무지 : 경북 칠곡군 가산면 용수리 6번지
• 연락처 : 054-971-6064 Fax 054-971-0355

사회복지에 뜻있는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 직원 및 입소부모님, 봉사자들의 불교 교육을 담당할 비구니 스님(강원 졸업 45세 이하) • 문의 : 0019-514-1033 宗明스님



사회복지법인 迎佛院
노인전문요양원 연꽃피는집



한암 스님(1876~1951): 강원도 화천 生. 금강산 장안사에서 행름 스님에게 득도. 신계사 등에서 공부하고 경허 스님의 법을 이음. 오대산에서 27년간 정진. 조계종 초대종정.

네티즌 교리문답

'회광반조'란 무엇인가요?

문 선 해설서를 보다보면 '빛을 되돌려 비춰본다'는 '회광반조(廻光返照)'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ID '부천시민')

답1: 회광반조란 한 생각 일어 난 그 자리를 돌이켜 비춰 보는 것입니다. 고요히 앉아서 참선함을 말하는데, '참선할 때의 마음자리 잡음'이라고나 할까요. 회광반조로써 조심(調心)하면 육신의 느낌이 사라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경계가 옵니다. 물론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하여도 정신은 더욱 생생하나 바쁘지는 않고 한가하여 분명하고 또렷합니다. 무아의 경계를 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아를 알면 제법도 무아인 줄을 알 것이고, 열반적정을 알게 되는 수행의 한 방법중 '마음 갖춤'을 일러서 회광반조라고 합니다.(ID '심심해서')

답2: 내면의 빛과 빛을 보는 자가 같음을 알게 될 때 회광반조 하였다고 합니다. 즉 회광반조란 빛을 보고 있는 자가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대상이 사라지면 보는 자가 남는데, 이때 보는 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반조라고 합니다. 주시자(注視者)가 주시될 때, 관찰자가 관찰될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ID '김명상')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㉚

불립문자(不立文字)-3

성불하기 위해선 연기적 존재라는 진상 깨달아야

앞에서, 불교에서는 언어를 불신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 이유는 언어라는 것이 분별의 기제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분별이 왜 문제가 되는가?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온갖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분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 분별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어쩌란 말인가?

불교에서 문제 삼는 분별은 보다 근본적인 분별이다. 즉 나 자신을 세상의 다른 모든 존재와 철저히 구별해서 독립되고 고유한 개체로만 보는 의식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아상(我相)이라든가 아집(我執) 등의 개념이 그것을 가리킨다. 내가 나 이외의 개체와 구별되는 존재임은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한 개체로 태어난 이상 그 이외에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문제로 삼는가?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항변이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현실의 양상에서는 다 옳은 항변이다. 불교에서도 그 엄연한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 다만,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그런 개체성 너머 또 다른 면의 진상을 담고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그 또 다른 면의 진상이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연기(緣起)라는 개념으로 지칭된다. 즉, 다른 개체들과 서로 철저히 구별되어 독립된 존재로만 보이는 나 자신이 사실은 다른 모든 개체들, 나아가 세상 전체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개체가, 세상 전체가 그런 존재라고 본다. 모든 것을 구별하는, 특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객(主客)의 관계로만 보는 분절적인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박혀있어서, 우리는 그것만이 세상의 진상이라고 철썩 같이 믿는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들이미는 것이 불교의 세계관이다. 경전에 보면 "연기(緣起)를 보는 이는 법(法)을 보고 법을 보는 이는 곧 연기를 본다"고 했고, "법을 보는 이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이는 법을 볼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법이란 세상의 온갖 존재와 현상, 또는 그 진상을 가리키며, 둘째 구절에서 '나'란 부처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세상의 진상인 연기법을 보는 이가 부처라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자면 부처란 연기법을 깨달은 이라는 얘기이며, 성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이,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와 세상 전체에 의존하는 연기적인 존재라는 그 진상을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분별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분별의 기제인 언어를 불신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언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했다. 불교도 엄청나게 많은 말을 쏟아냈고 엄청나게 많은 문서를 남겼다. 경전이 어찌나 많은지 하다못해 팔만 사천 법문이라는 말까지 있다. 언어문자에 대한 불신을 가장 극명하게 표명하는 선종에서조차 엄청나게 많은 기록이 생산되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다음 회의 글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개부일체수화 주야신의 법문

십바라밀로 그릇된 삶 바르게 인도
여래의 가르침 행하면 큰 기쁨 성취

선재동자가 다음으로 찾아가는 선지식은 '모든 나무의 꽃을 피우는 주야신(開敷一切樹華主夜神)'이다. 이 선지식에게 선재동자는 보살행을 배우고 온갖 지혜를 얻는 법을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주야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이 사바세계에서 해가 지고 연꽃이 오므리어 사람들이 구경하던 일을 파할 적에, 여러가지 산이나 물이나 성읍이나 벌판 둥지에 있던 여러가지 중생들이 모두 그들의 있던 데로 돌아가려는 것을 보면, 내가 가만히 보호하여 바른 길을 찾게 하며 가려는 곳에 가서 밤을 편안히 지내게 한다. 선남자여, 어떤 중생이 한창 나이에 혈기가 충실해서 교만하고 방탕하여 다섯 가지 욕락을 마음껏 즐기려 하면, 나는 그에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보이어 두려운 생각을 내고 나쁜 짓을 버리게 하며, 다시 갖가지 선근을 칭찬하여 닦아 익히게 한다. 인색한 이에게는 보시를 찬탄하고, 파계하는 이에게는 청정한 계율을 칭찬하고, 성 잘내는 이에게는 인자한 데 머물게 하고, 해칠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참는 일을 하게 한다. 게으른 이에게는 정진하게 하고, 산란한 이에게는 선정을 닦게 하고, 나쁜 꾀를 가진 이에게는 반야를 배우게 하고, 소승을 좋아하는 이는 대승에 머물게 하고, 삼계(三界)의 여러 길을 좋아하는 이는 보살의 서원바라밀다에 머물게 한다. 만일 중생이 복과 지혜가 미약하여 번뇌와 업의 핍박으로 걸림이 많은 이는 보살의 힘바라밀다에 머물게 하며, 중생의 마음이 어두워 지혜가 없으면 보살의 지혜바라밀다에 머물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미 보살의 '큰 기쁨을 내는 광명의 해탈문'을 성취하였다."

이 주야신이 설하고 있는 '보살의 큰 기쁨을 내는 광명 해탈문'의 법문은 어두운 밤이 되어 여러 곳의 갖가지 중생들이 각각 있던 곳으로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고 있는 경지이다. 이것은 갖가지의 모습으로 밝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에게 각각 알맞은 지혜의 빛을 비추어서, 인생의 여러가지 질곡에서 구원해 주고 일체지(一切智)의 도(道)를 구하게 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십바라밀의 도로써 중생의 그릇됨을 바로잡아 그들을 이익되게 하는 행(行)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문을 듣고 나서, 선재동자가 이 해탈문의 경계가 어떠한가를 묻자, 주야신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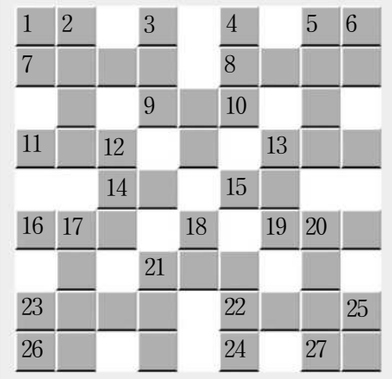
"선남자여, 이 해탈에 들어가면 여래께서 중생들을 두루 거두어 주는 교묘한 방편 지혜를 알 수 있다. 어떤 것이 두루 거두어 줌이냐 하면, 모든 중생이 받는 여러가지 낙은 모두 여래의 위덕의 힘이니, 여래의 가르침을 순종하기 때문이며, 여래의 말씀을 실행하기 때문이며, 여래의 행을 배우기 때문이며, 여래의 두호하는 힘을 얻기 때문이며, 여래의 인가하는 도를 닦기 때문이며, 여래의 행하던 착한 일을 심기 때문이며, 여래가 말씀한 법을 의지하기 때문이며, 여래의 성품이 깨끗한 업의 힘으로 거두어 주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줄을 아는가 하면, 내가 이 큰 기쁨을 내는 광명의 해탈에 들어가서 비로자나 여래 · 응공 · 정등각께서 과거에 닦으시던 보살의 수행바다를 분명하게 본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야신은 여래의 과거의 보살행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래의 과거의 보살행을 깊이 사유해서 분명하게 보는 것이 보살의 큰 기쁨을 내는 광명 해탈의 법문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의 보살행을 생각하고 분명하게 보는 것에 의해서만 어두운 밤에 광명을 발해서 바른 길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해 비추어진 생사의 현실세계에서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보살행은 부처님의 뜻을 이어받아 환희심을 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이 하시던 거룩행을 본받아 스스로의 참생명을 꽃피우고 또한 일체중생의 참생명도 꽃피우게 하는 행이다. '모든 나무의 꽃을 피운다(開敷一切樹華)'고 하는 선지식의 명칭도 결국은 여래의 근본뜻[本願]을 열어 모든 행을 꽃피워서 방편바라밀을 성취하여 두루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구리의 합금으로 만든 주화를 두루 이르는 말 5. 망루 7. 지(止)와 관(觀)이 둘이 아닌 일체 라는 것 8. 느릿느릿한 사람 9. 섬유로 이루어진 물질 11.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설치한 단 13.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는 일의 영어단어 14. 시가 15.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16. 번뇌에서 해탈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일 19. 양쪽 문설주 아래에 가로댄 나무 21. 호흡을 세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관법 23. 조그마한 물건을 크게 보이기 위해 포장하는 것 24. 배가 닻을 내리지 않을때 잡아매려고 바닷물에 띄운 부표 26. 전기가 한때 들어오지 않음 27. 12시 중의 상오 9시부터 11시까지를 일컬음.

세로 1.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12월 22일 2.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관 후에도 재임 당시의 예우를 하는 일 3.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南山面) 방하리(芳荷里)에 있는 섬 4. 바느질로 옷 따위를 짓거나 꿰매거나 하는 일 5. 관광객을 태우고 다니는 버스 6. 군대에서 하사를 지칭하는 북한말 10. 과거의 인류가 남긴 유형(有形)의 제작품 12. 짧은 시간 13.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세워서 적은 글 17. 세계적인 규모로 벌어지는 큰 전쟁 18. 지나치게 많이 먹음 20. 처소나 시간 및 문장 안에서의 사실 등을 가리키어 한정하는 부사 21. 집을 수장하는데 쓰는 재목을 통틀어 이르는 말 22.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 23. 일이 되어 가는 경로 25. 남에게 알리려고 드러내어 발표함.

쪼개쓰면 커지는 시간의 비밀





'시간'을 이해하고 '시간'을 사랑했으며, 그 '시간'속에서 인생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던 과학자 '류비셰프'.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셰프

다닐 알렉산드로비치 그라닌/이상원 · 조금선 옮김
황소자리/1만2천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시간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시작한다'던 세네카의 탄식 이후 시간을 정복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에는 놀랄만한 가속도가 붙었다. 사람들은 마차에서 기차로, 기차에서 비행기로 갈아탔고, 전화기와 컴퓨터기를 만들어 냈으며,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시킬 온갖 신약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간 부족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기만 하고, '시간 강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은 듯 하다. 그래서 요즘 '아침형 인간'이나 '저녁형 인간'과 같은 시간 관리형 책들이 붐을 이루고 있는 지도 모른다.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셰프> 에도 82년이라는 삶을 바쳐 '시간(時間)'이란 명제와 꿋꿋하게 마주섰던, 그래서 영원한 난제처럼 버티던 '시간'을 마침내 정복해 버리고 도덕적 자기 삶의 완성에 몰두했던 생물학자의 인생 기록과 철저했던 시간 관리법이 담겨져 있다.

수만권 분량 원고 남긴 곤충학자
하루 8시간 자고
산책과 운동 한가롭게
문학작품도 줄줄이 외우고
공연 전시관람도 빠짐없이...
비결은 50년간 쓴 '시간통계노트'

이 책의 주인공 류비셰프는 50여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통계 노트'를 작성하면서 시간의 속성과 존재감을 정확히 인식했고, 그 시간속에서 자기 삶의 가치와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해 냈다. 그 결과 1972년 8월 31일 소련의 곤충분류학자인 알렉산드로비치 류비셰프가 82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세상에 남겨 놓은 것은 70여권의 학술서적과 총 1만 2500여권(단행본 100권 분량)에 달하는 연구 논문, 방대한 양의 학술자료와 꼼꼼하게 수제본한 수천권의 소책자들이었다.

생전에 류비셰프와 교류를 가졌던 국내외의 지식인들은 그가 남긴 엄청난 양의 원고 앞에서 할말을 잃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속속 밝혀지는 류비셰프의 학문적 성취는 물론 철학과 역사, 문학과 윤리학 등을 전방위로 넘나들며 성실하고 해박한 논리를 펼치는 그의 독창적 이론에 그들은 다시한번 아연 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생존당시부터 류비셰프에게 꾸준한 관심을 보였던 이 책의 저자 그라닌은 말년에 류비셰프가 체류했던 울리야노프스크를 여러차례 방문해 이 방대한 원고들 속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한다. 바로 '시간통계 노트'다. 1916년, 당시 26세 나이로 시작한 이 일을 그는 하루도 빼먹지 않았다. 기록 형식은 간단했다. "곤충분류학 연구 2시간 20분, 논문집필 1시간 5분, 편지 3시간 20분, 프라우다지 15분, 이즈베스티야지 10분, 문학신문 20분, 톨스토이 책 1시간 30분…."식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시간에만 얽매이지는 않았다. 시간에 쫓기는 일은 맡지 않았고 잠을 8시간씩 충분히 잤으며 힘든 일과 즐거운 일을 섞어서 했다. 또 산책과 운동을 한가로이 즐겼으며, 단테와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줄줄이 외우고 주요 공연과 전시까지 빠짐없이 관람했다. 그는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1분 1초에 의미를 부여했다. 시간을 사랑하고 아꼈으며, 시간 앞에 경건했다. 숫자 인생 82년을 25억8천5백95만2천초로 미분(微分)해버렸다. 이런 노하우로 그는 시간을 정복했다.

하루, 한달, 일년 등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공평하게 분배된 재화다. 또한 시간이란 에너지는 단 한번도 전진을 멈춘 적이 없다. 이 세상이 처음 만들어 졌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이 시간은 끊임없이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고 있다. 그 평범한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기시간을 철저히 통계적으로 관리해 온 류비셰프의 삶은 목적없이 표류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15년 전 국내에서 해적판으로 출간된 적이 있다. 당시는 중국어판 번역이었다. 보다 말끔한 번역과 산뜻한 포장은 15년이란 시간이 가져온 진화의 결과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책속의 밑줄긋기

△"버스를 탈 때에도 여러상황을 고려해 두 세권의 책을 가지고 탄다. 출발지 근처에서 타게 되면 앉을 수 있으니 책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기도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게 되자 새로이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쌓여 들었다. 반면 필요한 시간은 점점 더 많아졌다."

△"계획이란 시간을 분배하고 그 과정에서 생활의 질서와 조화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즉 맑은 정신으로는 수학을 공부하고 피곤하면 읽기 편한 책을 읽는 등으로 시간을 짜면 효율적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엄격하게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재판관은 없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자기 생활을 추적하며 만들어 놓은 수치와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이룬 류비셰프의 경우는 스스로가 재판관이었다."

전문가 서평



용서
프레드러스킨 지음/장현숙 옮김
중앙 M&B 펴냄/9천8백원

용서하면 무엇을 얻나

몸 · 마음 건강해지고 미래도 밝아져

'용서란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의 무도한 행위를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과거를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놓아주고 현재를 치유하기 위해 내가 내린 선택. 그것이 바로 용서다.'

직업상 싸움(소송)을 많이 지켜보기 때문에 때로는 '조금만 상대방을 너그럽게 용서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 때가 많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과 머릿말이 서점의 수많은 책들중에서 금방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것인가, 나 자신을 되찾고 희망적인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이 책은 용서가 가진 치유력과 의학적 유익함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또한, '용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처입은 사람들이 희생자 역할을 벗어나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게끔 친절한 안내도 해주고 있다.

저자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용서 프로젝트'는 그 규모와 비중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우선 첫 실험은 25세에서 50세의 성인 중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260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그 결과 용서 집단은 스트레스와 분노가 훨씬 감소했고,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을 좀더 쉽게 용서하게 되었고, 모욕적인 상황에 닥쳐도 덜 당황하고, 자기 감정을 의연히 다스릴 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과학적 조사와 연구의 결실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특히 '용서하기'를 배우면 정서적 육체적 건강이 증진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분노와 상처를 내내 지니고 있다 보면 개인생활 뿐 아니라 결국 직장생활마저 파괴된다는 충고도 빠뜨리지 않고 지적한다.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분노의 포로가 되어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들이 보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의 기술'을 단계별로 알려줘 누구에게나 유익한 책이라고 감히 권하고 싶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용서했을 때 얻어지는 것은 힘든 만큼 크다. 무엇보다 과거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미래로 힘차게 나갈 수 있어 좋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리고 용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용의 정신을 전파하게 된다. 또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 마음의 여유까지도 생긴다. 어떻게 보면 분노의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꿰뚫고 그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용서의 대상은 꼭 타인만일까. 그렇지 않다. 대학 입시나 결혼 같은 결정적인 일에서 겪은 좌절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괴로워하거나,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간절히 필요로 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거나 등 자책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면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어쨌든 자신이나 타인이나 너그럽게 용서한다면 결심하기까지가 자존심 상하고 힘들지 몇시간만 지나면 오히려 마음속히 후련해짐을 느끼는 경험을 이 책은 다시한번 독자들에게 각인시켜 준다. 일상생활에서 '용서'란 단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책을 정독해 보라.

조병식 변호사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람을 한번 멋지게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절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선망조상 영가님들을 천도하는 역시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천도재 기도도량입니다.
주[대비주 = 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 기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 입재 : 2003년 11월 2일 ◎ 회향 : 2006년 8월 27일

생전예수재 안내
만 49일간 봉행
◎ 입재 : 2004년 양력 윤 2월 29일 ◎ 회향 : 2004년 음력 윤 2일 29일

<<불설수생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승으로 부터 이른바 인생자금을 대출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사업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만 한가지 다른 점은 이승에서는 자기자본이 충분하다면 구태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 때는 누구나 받드시 그 돈을 받아야만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중생들은 자의에서든 타의에서든 그 빌린 인생대출자금을 저승에 다시 갚아야 합니다. 그 상환하는 의식이 바로 [생전예수재]라는 의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절에서는 2000여년의 우리나라 불교역사상 최초로 [예수재의식]을 우리글 사언절로 완역한 만큼 국내에서는 가장 여법하게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아이를 더 크게 사랑하는 법

오쇼 라즈니쉬 지음 / 손민규 옮김

지혜의 나무 / 9천8백원

부모 – 자녀간 마음의 벽 명상하며 허물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사랑은 세계적으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다. 하지만 때때로 '내 아이만은 최고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나 억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의욕만 앞선 탓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식사랑'은 자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세계적인 명상지도자 오쇼 라즈니쉬가 전하는 '아이를 더 크게 사랑하는 법' 역시 자녀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아이의 순수함을 함부로 짓밟지 마라', '안되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라고 말하라', '아이를 사랑하되 지배받지는 마라', '아이가 물으면 진실하게 대답하라'…. 결국 자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것이다. 라즈니쉬는 "낯선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아이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며 "내 아이에게 지식이나 사회적 성공을 바라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흠뻑 빠져들게 할 때 삶의 행복과 자유가 찾아든다"고 충고한다.

'부모와 아이를 위한 명상'이란 부제가 붙은 <아이를 더 크게 사랑하는 법>은,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학교에 다닐 때까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자녀와의 대화법', '성격고치기', '부모의 역할' 등의 주제를 문답형식으로 풀어놓은 이 책은 '육아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다른 실용서와 구분되는 점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명상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라즈니쉬는 아이가 14살이 되면 명상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라고 말한다. 이 때는 명상을 하기 전 15분 정도 춤을 추거나 뛰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이후 5분 동안은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이 밖에 '긴장풀기', '웃음명상', '자궁으로 돌아가기'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천함으로써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명상법을 소개한다.

여수령 기자

변호사가 푼 '부처님 원음'

아함경 번역한 이상규 변호사



전해오는 부처의 가르침 1·2

이상규 엮음

해조음 / 각 1만2천원

주제별로 묶고 색인 마련
한역 원문도 함께 실어

아함경 한권으로 묶어
영문판과 함께 낼 계획

"자극적이고 화려한 것에만 반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꾸밈없고 진솔한 부처님 원래의 가르침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아함경>을 우리말로 풀이한 <전해오는 부처의 가르침> 1, 2권을 펴낸 이상규 변호사(71, 李종합법률사무소 대표). 이 대표는 1952년 스무 살의 나이로 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법제처 법제관과 문교부 차관, 고려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법조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런 그가 회갑을 넘기면서 '세속의 법'에서 '부처님 법'으로 관심을 옮겼고, 최근 6권에 달하는 <아함경>의 번역을 마친 것이다.

"10여년 전만해도 초기경전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번역되어 나온 책도 많지 않았지요. 그러다보니 제가 공부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하고 경전이 주는 감동을 전하고 싶어 <아함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아함경>의 참뜻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내는 만용을 부리게 됐습니다."

그는 <아함경>을 번역하는데 있어 빨리어본이 아닌 한역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중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한역본을 저본으로 택한 이유는 '한역경전의 위상과 중요성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다.

"남방불교를 주로 받아들이고 연구해 온 서양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한역경전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스승들이 엮어 놓은 한역경전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번 책에서는 <아함경>에 실린 2천여 개가 넘는 설법 중 중복되는 것과 후대에 덧붙여진 것은 생략했다. 또 경전을 설법의 크기만으로 분류해 놓아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기 어려웠던 경험에 비추어 전체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색인을 마련했다. 번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역 원문도 실었다. 법조인 시절 <신 행정법론>과 <환경법론> 등 12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었지만, 경전을 번역하는 작업은 녹록치 않았다.

"세속의 법에 대해 쓸 때는 그 분야의 프로로서 자신감도 있었고, 실수가 있더라도 나 혼자만의 책임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아마추어잖아요. 혹시 오류가 있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전하는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보니 원고를 몇 번이나 다시 읽고 다듬게 되었습니다."

19살 무렵, 법서(法書)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눈에 띈 <반야심경 강의>란 책을 몇 번이고 읽은 후 "언제가 나도 이런 책을 번역해 널리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이 대표. 그는 이 다짐을 50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금 이뤄냈다.



지난 2월 2일 서울 삼성동 '李종합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이상규 변호사는 "진솔하고 담백한 <아함경>을 조용한 곳에서 읽다보면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회장과 환경법학회 명예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장 등을 맡아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아함경>의 대표적인 경을 한 권으로 묶은 <아함경의 세상>(가제)과 영문판도 낼 계획이다.

책의 판매 수익금은 자신의 회갑과 고희 잔치를 여는 대신 찾아가곤 했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 기탁하기로 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우리말 금강반야바라밀경>**(동봉 스님 엮음, 운주사, 6천원)=곤지암 우리절 주지 동봉 스님이 사경?독송용 <우리말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펴냈다. <금강경>을 우리말로 옮긴 이 책은 경구를 사언절로 엮어 놓아 읽기에 편할 뿐 아니라 경전에 담긴 뜻을 쉽게 풀었다. 또한 금강경 송경의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성불로 가는 법화경>**(영산 스님 엮음, 중명출판사, 1만5천원)='경전 중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법화경>을 진주 해룡사 주지 영산 스님이 우리말로 옮기고 자세한 법어풀이를 곁들였다. '법화경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영산 스님은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일승법화의 수행을 통해 진정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성재도 엮음, 무량수, 5천원)=부산불교교육원장과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국장을 역임한 성재도 씨가 펴낸 불교경전 선집(選集). '지도자'와 '실천', '행복'을 큰 주제로 <선림보훈>과 <육조단경>, <백유경>, <자경문> 등의 구절을 가려 담았다.

■ **<빛을 향한 100개의 꽃다발>**(타카모리 켄테쓰 지음, 이선희 옮김, 이레, 9천원)="하루에 한 사람만이라도 기쁘게 만들어보자. 10년 뒤에는 3650명을 기쁘게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생활속의 지혜를 전하는 100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톰 아버지가 그린 현대판 손오공의 모험



나의 손오공

데즈카 오사무

솔 / 전 8권, 각권 4천8백원

'우주소년 아톰'과 '사파이어 왕자' 등을 통해 '일본 만화의 신'이라 불리는 만화작가 데즈카 오사무. 그가 중국 4대 기서의 하나인 <서유기>를 만화로 각색한 <나의 손오공>이 국내에 소개됐다.

<서유기>를 데즈카 오사무 식으로 재해석해 재치 넘치는 웃음과 고전의 깊이를 함께 담은 <나의 손오공>은 <만화왕>이라는 잡지에 1952년부터 8년간 연재됐으며, 67년에 애니메이션 '손오공의 모험'이란 제목의 TV만화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나의 손오공>은 삼장법사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불경을 구하기 위해 마귀들과 싸우며 천축으로 간다는 <서유기>의 기본 줄기를 담고 있지만, 상황 설정은 원작과 많이 다르다. 삼장법사 일행이 실수로 일본행 배를 타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구름을 타고 아프리카에 다녀오고 만화 주인공 뽀빠이와 산타클로스, 실존인물인 알 카포네 등 다양한 인물을 만나기도 한다. 원숭이 해에 만나보는 원숭이 손오공의 모험이 경쾌하게 그려져 있다.

격월간 '불교와 문화' 새단장

격월간 불교문화잡지 <불교와 문화>가 새롭게 단장했다. '단행본 같은 잡지'를 표방하며 개편을 단행한 <불교와 문화>는 각계 저명 필자를 통해 문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문화칼럼'을 신설하고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특집을 강화했다. 또 교리와 수행, 문화, 자연과 사람, 정보창고 등으로 주제를 세분화해 각 주제별로 '생활인을 위한 경전읽기', '재가불자를 위한 눈높이 수행, 수행의 ABC', '마음을 밝혀주는 세계음악 여행', '등잔 밑을 밝히는 사람들'의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불교정보창고'에서는 불교계 정보 구축을 위한 '한국불교관계논저총합색인'을 실어 국내외에서 출판·발표된 각종 문헌을 망라했다.

개편호인 2004년 1?2월호에서는 '산문을 열고 나온 불교, 세상과 소통하다'를 주제로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문화포교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특집과 테마가 있는 문화 산책의 '단청이 아름다운 사찰', 지운 스님(대구 용연사 주지)의 '자비수관 수행법이란 무엇인가', 홍승 스님(사찰음식연구회 회장)의 '사찰음식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기' 등을 볼 수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스님	시공사
2	운명을 뛰어 넘는 길	김지수	불광
3	달라이 라마의 수행의 단계	달라이 라마	들녘
4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5	기도	효림 스님	효림
6	틱낫한의 반야심경	틱낫한	장경각
7	불교수행법강의	남회근	지잇을 뿌리는 사람들
8	달라이 라마의 행복에 이르는 길	달라이 라마	경성라인
9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색
10	틱낫한 스님의 아! 붓다	틱낫한	반디미디어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 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2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봄반)
2. 교육장소	동산 법당(동산불교회관)
3. 개강일시	2004년 2월 19일(목요일) 오후 7시
4. 교 과 목	불교의 정의,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회 비	90,000원(3개월)
8. 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반야회

2004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2년과정)
불교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지도법사 : 무진스님, 심만춘스님, 문종순법사, 양성도법사

불교의식 I	불교의식 II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 · · · · · · 장엄염불	◇백일, 돌,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 · · · · 일반의식 ◇장례의식(2) · · · · 입종, 매장, 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의한 천도의식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야간반 30명(1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4년 3월 6일까지 (토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1:00 ~ 3:00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야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바라반)

3. 개강일시 2004년 3월 6일(토) 오후 1시 (정규반)
10일(수) 오후 7시 (야간반)
5일(금) 오후 3시 (바라반)

4. 입 학 금 일십만원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6.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의식 · 교육도량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방생 및 삼사순례 안내



삼보전에 귀의 합니다.
각 사암 대덕 큰 스님께 인사 올립니다.

본 성모암은 **진묵대사**님께서 탄생하신 불거촌에 효행을 실현한 사찰로서 진묵대사님 어머님의 묘소와 더불어 진묵대사님의 영정을 봉안한 도량으로 가까이에는 진묵대사께서 육신방생의 유래가 있는 100만평의 능제 저수지가 자리한 해동의 최고 방생지이며 방생과 더불어 금산사 · 망해사 · 흥복사 · 봉서사를 연결하는 삼사순례의 적격지입니다. 조사님의 혼이 머무는 본도량에 왕림하시어 일체 서원을 이루시길 사부대중과 더불어 발원합니다.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종무소 ☎(063)544-0416 (사전에 필히 전화 접수바랍니다.)
Fax 063)542-6991 www.sungmoam.net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루 일천명의 점심공양 가능(무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리 불거촌 388번지
성 모 암 대중일동

제9회 현대불교 신행수기공모

특별상 (천태종총무원장상)

향광행(서울시 수유3동)

세 자매의 부처님 <하>

그런데 이상스럽게 아이 중 하나가 아프면 다 따라서 아팠습니다. 큰 아이가 눈병이 오더니만 세 자매가 눈병이 와서 매일 안과에 가서 1만2500원 씩 내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10일을 지내니 다 낳아갔습니다.

그 다음엔 바퀴벌레가 어찌나 빈틈없이 어린 살을 물었던지 긁다 긁다 탈이 난 피부를 고치기 위해 피부과에 10여일 넘게 다녔습니다. 둘 째 아이는 너무 심해서 거의 한달 쯤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흉터가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수두를 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더니 아니나 다를까 셋 모두 수두를 했습니다. 병원에는 2주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큰 아이 윤녕이가 벌레 속에서 살아서인지 지하방 습한 곳에 살아서인지 그놈의 기관지 천식으로 온 식구가 잠을 못 잤습니다. 병원에 2주일이 넘게 다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방 서적에 처방문이 쓰여 있기에 그대로 약을 해서 먹였더니 다 나았습니다. 기침 소리에 온 식구가 잠 못 이루고 꿀물을 타다 먹이고 보리차를 먹여도 소용없던 날에는 정말 힘들고 괴로워 이 할미도 같이 울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렇게 나았습니다.

셋째 여섯 살바기 지호는 지난 해 10월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눈병 · 피부병에 수두 · 천식까지 겹쳐
아이들 병치레에 집안은 '난리통'
기도하며 마음 안정 · 성적 쑥쑥 올라
세 자매는 가정에 기쁨 주는 '웃음 꽃'

아이 윤녕은 72점이 넘고 둘째 서임은 국어도 산수도 100점, 올백을 맞았답니다. 남들은 과외다 학원이다 수없이 배우고 가르치는데 과외는 엄두도 못내고 학원은 문앞에도 못가본 아이들이 두 과목 다 올백이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도 놀라운 글을 써서 보내왔습니다. 20점, 30점 겨우 받던 아이들이 그반에서 1등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할미와 틈틈이 공부하고 절에 따라다니고 '관세음보살님' 염불만 했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두 과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 세 자매 부처님이 계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생활은 활력이 넘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불기 2548년 초파일날에는 화계사 어린이 목탁반에서 동대문 운동장에 경연대회 나간다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그렇게 추운데도 세 자매 부처님은 새벽에 일어나 3km를 걸어 화계사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손가락을 돌에 찧여 부서져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손가락도 잡지 못하고 연필도 제대로 쥐지 못할 때는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손가락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사정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친정 남동생은 쌀 40kg을 보내서 아주 잘 먹고 있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났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 속에 사는 것을 보고 통장님이 동사무소에 말을 해서 쌀 20kg을 1만9000원에 준다고 합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세 자매 부처님께서 학교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생기고 많이 밝아졌답니다. 한 가지 더 기쁜 것은 지난 12월 9일 평가시험에 100점을 맞았답니다. 큰

정은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부처님 세 자매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답니다. 가정의 웃음꽃이요, 부처님과 같기에 '세 자매 부처님'이라 부릅니다. 이들 부처님 덕분에 이제 이 할미의 다리와 허리도 다나은 기분이 듭니다.

이 세 자매 부처님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꼭 기도 발원문을 외우고 또 과일이 나오면 아껴서 이 할머니 입에 가져다 넣어줍니다. 화계사 어린이 법회 때는 과자를 준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아껴서 가져왔는지 할아버지께도 드립니다.

이렇게 착한 부처님을 보셨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세 자매 부처님들이 부처님 가피를 입어서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도록 열심히 발원하는 마음에, 매일 35번씩 빠지지 않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합니다.

이제 제 딸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 봉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맹아학교에 일하러 다닐 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부처님과 우리 세 자매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처음에 우리 아이들을 모셔 올 때 모두 보육원으로 보내라는 것을 꿋꿋하게 이 한마음으로 버텨 온 것이 정말 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토록 기쁨을 맛보게 된 것도 다 부처님 가피인 줄 압니다.

우리 부처님을 믿고 이 한마음에 맡기고 살아왔으니, 이렇게 큰 영광이요 아름다운 광경들을 맛보게 해 주셨으니 이제 더할 나위없이 기쁘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밤도 세 자매를 모시고 불교대학으로 가렵니다. 매주 목요일 밤이면 공부하러 가는 날이니까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릴레이 수행일기 <下>

실상관법은 본질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본질에 이르는 방법이었으며, 'Why(이유)'가 아니라 'How (방법)'의 세계였다. 실상관법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수행자 자신의 절대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그것은 지적인 이해의 세계가 아니라 성주괴공(成住壞空)하는 자연과 나의 성품이 서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최명수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과장

내 경험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실상관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잘 되는 경우보다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실상관을 할 수 있는 수행자세가 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간의 대화에서 실상관을 하면서 판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특히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경우에 실상관을 하고 있을 때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 왜냐하면 성주괴공하고 생주이멸하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

직장 · 가정서 꾸준한 '실상관' 수행
편견 버리니 만물 아름답게 보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무실에서 세면장에 갈 때 발걸음을 관하고, 세면장에서 물로 손을 씻는 행을 관하고, 전기 드라이기로 손을 말리는 행을 관하는 등 의도적으로 실상관을 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 출 · 퇴근시에도 옆사람의 목소리와 열차의 각종 소리를 관하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소리와 느낌을 관하는 등 나와 만나는 모든 대상을 상대로 실상관을 하게 되면 이슬에 옷이 서서히 젖듯이 내 일상생활을 관할 수 있는 수행자로서 서서히 변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하다보면 언제나 마주대하는 사람은 물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너무 새롭고 신기한 모습으로 닿아온다.

매주 선원 법회 때 시행하는 20분간의 좌선 실수는 호흡을 단전으로 떨어뜨려 즉시 입정에 들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선정을 일상화시킬 수 있었다. 선지식의 인도가 있는 바른 호흡은 혼자서는 여간해서 선정에 들 수 없는 참선의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우곡선원과 인연 맺어진 이후 대주혜해 선사의 <돈오입도요문론>과 달마대사의 <혈맥론(血脈論)>과 <무심론>, 신수는 도반으로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나로서는 종종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괜히 짜증스러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수행을 지어간 이후 나도 모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됨을 보고 나 자신 스스로 놀라게 되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는 중간간부로서 직원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며, 또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묵묵히 관할 수 있는 실상관법을 통해 수행의 대상으로 삼으면 자연히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바로 수행자의 올바른 삶이라는 것도 터득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 세상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다 인연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마음으로 대하게 됨에 따라 우주만물이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게 와 닿는다.

이렇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인연에 의한 소중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니, 마음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하고 발원하는 이 기쁜 마음이 우주와 직접 연결된 것임을 온 몸으로 느끼며 수행하고 있다.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6>



우리는 안전한가?

우리는 고통에 가득 찬 세계에 살지만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있으면 인생이 고단하다라는 것을 새삼 확인한다. 그리곤 그때뿐이다. 그 고통을 이내 잊어버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생활하는 것이다. 얼마 전 이란에서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지진만큼 많은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지만 작년 가을에 부산 등 남부 지방을 강타했던 태풍의 위력에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밤을 세우며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기만 바랬다. 지진과 같은 거대한 자연 재해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이런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부모 형제를 잃는 경우도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평탄하게 보이던 인생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한 사고로 눈물 바다가 된다. 이런 삶의 불안한 모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보험을 들고 있지만 보험 회사가 위험을 막아주고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은 보험을 들어 현실의 위험을 무시하고 있을 뿐이다.

5욕락에 사로잡힌 중생의 삶은 '불타는 집'
위험조차 망각하고 쾌락 빠져들면 죽음 뿐

붓다가 정각 후 얼마 되지 않을 때 설했다는 다음의 경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불로 비유하고 있다. 붓다는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생활이 화재의 현장이라고 단호하게 비유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으로 위협받고 있는지 실감나게 하는 가르침이다. 불은 인도인에게 있어 가장 가까이 있는 고통이다.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눈은 불타고 있다. 색채와 형태는 불타고 있다. 눈의 식별작용은 불타고 있다. 눈의 접촉은 불타고 있다. 눈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감수는 좋거나 나쁘거나 혹은 그 어느 쪽도 아닐지라도 그것 역시 불타고 있다.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가? 탐욕의 불로, 혐오의 불로, 미혹의 불로 모든 것은 타오르고 있다. 출생과 노쇠, 죽음과 근심, 슬픔과 고통, 번뇌와 번민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불로 타고 있지만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을 알지 못하지만 욕망 등의 불꽃은 죽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다.

우리 감각기관은 불쾌감을 초래하는 대상은 피하고 쾌락을 안겨다 주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눈은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귀는 듣기 좋은 소리를, 코는 좋은 향기를, 혀는 맛 나는 음식을, 몸(피부)은 부드러운 감촉을 향해 달리고 있다.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추구하는 쾌락을 오욕락이라고 한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 우리들은 이런 물질적인 대상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그래서 붓다는 활활 타오르는 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 경전 중 <법화경>에도 이와 유사한 비유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불타고 있는 집에 비유하고 있다. 집이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헛된 즐거움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다.

중생은 위험한 삶을 영위하면서도 어리석게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전을 하나 더 살펴보자.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불설비유경>은 널리 알려진 경전으로 우리나라 사찰의 벽면에 그 내용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붓다는 우리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어떤 청년이 광야에 놀다가 사나운 코끼리에게 쫓겨 황급히 달아나다가 한 우물이 있고 그 곁에 나무 뿌리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곧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 때 마침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가 그 나무 뿌리를 번갈아 갉아먹고 있었고, 그 우물 사방에 그리고 우물 밑에는 독사가 있었다. 그는 그 독사가 몹시 두려웠고 나무 뿌리가 끊어질까 걱정이었다. 그런데 우물 옆 나무에 달려 있던 벌집에서 떨어지는 벌꿀을 즐기면서 청년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무 뿌리에 매달려 있는 청년은 바로 우리 중생을 대변하고 있다. 검은 쥐와 흰 쥐 두 마리는 밤과 낮에 비유한 것으로, 나무 뿌리를 갉는 것은 순간순간 목숨이 줄어드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벌꿀은 5욕락에 비유한 것이다. 청년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떨어지는 달콤한 꿀에 탐닉해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런 청년의 모습이 우리 중생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생명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5욕락에 사로잡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중생들에게 결국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디가 안전한 곳일까?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이상의 두 가지 비유는 먼저 인생이 고통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대답하고 있다.

자신을 철저히 봐야



혜산 스님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승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상 백고좌

혜 산 스님

(내소사 회주)

1월29일 내소사는 온통 눈천지였다. 내소사가 위치한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가 서해 절경을 불러모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어디 내소사의 겨울 운치만 하랴. 깎아지른 듯한 벼랑을 품은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그 아래 아담한 대웅전과 전각들이 넓지도 좁지도 않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니 편안하고 아늑하다. 눈에 푹 파묻힌 내소사를 보고 있자니 며칠 묵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인다.

내소사 회주 혜산 스님은 내소사의 산 역사로 통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1963년 이곳에서 출가해 40년 세월 대부분을 여기서 살았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스님께서 수행하셨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후학들에게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말씀도 해 주시고요."

"둘 다 나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네. 한 것도 없는 늙은이가 후학들에게 말을 할 처지가 되나."

괜히 그러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20안거는 넘게 해오시면서 평생을 수행에만 매달려온 스님이 아니던가.

"견성을 했어야 할 말이 있고 그 말이 가치가 있는데, 견성하지 못한 바에는 저나 나나 같은 처지인데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러시더니 마지못해 한 말씀 하신다. "그래도 내가 한 마디는 할 수 있지. 참선 공부 하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야 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병은 죽어도 못 고쳐요. 이따금씩 납자들이 선지식이 누구냐고 묻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답할 수가 있겠어요. 부득이 말하자면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 이라고 할 수 있겠지."

깨달은 자가 깨달은 자를 안다고 했다. 한창 공부하는 납자들이 깨달은 자를 알아볼 수는 없는 일. 그러니 누구를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해야 할지 난감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런 사람들이 법문을 잘 못하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모두 죽이는 일이지.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는 지혜가 아니라 문자로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것과 체득해서 아는 것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단지 지식에 불과할 뿐이지. 체득해서 아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지식이고 이것을 '선지'라고 해요. 더구나 체득을 해서 안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 말하기 힘들지. 잘못 말하면 큰 일 나는 것인데 누가 함부로 입을 열겠어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선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 숙제 중 숙제야."

"스님 말씀대로라면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배워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듯이 여기저기서 묻더라도 참스승을 만나야만 해.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모르면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고,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수행자들이 찾는 그런 사람이야. 묻고 또 물어서라도 찾아가야지."

혜산 스님이 유달리 스승을 강조하는 이유는 스님 스스로가 바로 그런 경우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혜산 스님으로부터 들은 스승(해안 스님)의 가르침은 이랬다.

"스승께서는 수행에 철저하셨지. 그렇다고 무조건 수행만 하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농사 짓고 나무하면서 수행을 하게 하셨지. 그래서 공부시간이 더 아깝게 느껴졌어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경전을 가르치시는 것도 빼놓지 않으셨고요. 나와 내 도반들은 자연히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지팡이나 젓가락 소리만 들어도 스님의 심경을 읽을 정도가 됐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게. 답은 간단해, 스승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셨기 때문이지. 24시간 수행에 매달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하셨던 게야. 화두로 일어나고 먹고 자고 하도록 만들었지. 멋모르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작심하고 달려들었던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화두 참구 때는 교리 접는 것이 좋아



혜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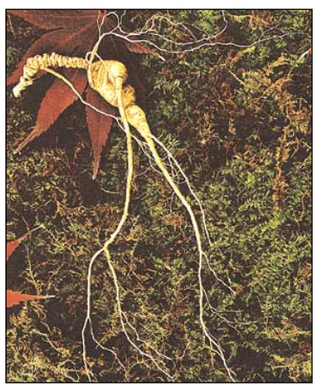
1933년 전북 정주에서 태어나 58년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63년에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73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수계하고 74년에는 해인사 해인총림 선원장을 맡아 후학들을 지도했다. 75년부터 79년까지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교무국장, 종정 수석 사서, 조계사 주지, 한일불교교류협의회 이사, 전등선림 선원장, 동명불원 주지 등을 역임했다.

80년부터는 다시 내소사에 내려와서 후학지도와 내소사를 수행도량으로 가꾸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기업이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청동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21세기 불가의 신개념 전자종틀』 가릉빈가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 법문을 하실 경우 종 밑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퍼지므로 장엄한 법문을 불자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 수 있어 따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따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종을 제외한 종틀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틀 교환도 가능합니다.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실물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최 첨단의 제품으로 법회시에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문화재 원광식

● 문의처 : 02-733-6141(代)
032-772-5451(代)

- 제 품 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여 M 정도에서도 송장한 종소리 및 녹음한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맑고 송장하게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 앰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법회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알람시간조절, 임의적 작동, 볼륨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 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조, 독경 40여분 장착), 오토리버스 기능, 볼륨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매시간 타종 기능(타종 횟수 조절 가능) – 알람기능 (3번 작동 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 앰프 기능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분들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있습니다.
- 소비자가 : 4,500,000원 (종25관+종틀+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 종제작업체 : 성종사
- 전자 종틀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자금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점포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

성불한다



"철저히 자기자신을 보라. 성불 못할 이유가 없다." 혜산 스님은 몇번이나 이 말을 반복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더 굳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혜산 스님의 스승에 대한 애정은 샘이 날 정도로 각별하다. 후학을 지도하는데 스승만큼 열의와 애정을 가진 스님도 드물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법은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간에 처음 시작이 중요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기 어렵지. 스승께서는 늘 기초를 강조하셨지. 그래서 무엇이든 물으면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참선이나 경전 공부나 어느 하나에만 빠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해요."

혜산 스님은 평생 참선 수행을 해오셨으면서도 경전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참선이나 공부나 어차피 생사문제와 깨달음을 보는 것인데, 선후가 있을 수 없고, 이해득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참선을 할 때는 경전을 놓고 오직 참선에만 매달리라고 하신다. "화두를 참구할 때는 교리를 접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게 병이에요. 화두는 의심 하나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알면 화두에 꿰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혜산 스님은 세월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었느냐가 중요할 뿐, 수행자가 그 외에 달리 또 무엇을 얻으려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늘 초발심을 강조하신다.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언제나 깨달음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다.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수행을 하거나 포교를 하거나 행정을 하거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라면 당연한 도리지. 선방에 앉아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포교를 한다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철저히 자신을 봐야지."

그러시면서 한 말씀 덧붙이신다. "어디 답해 보시게나, 성불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글=한명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혜산 스님의 건강법

조금 먹고 운동하며 잠 충분히 자고 쓸데없는 생각 않기

혜산 스님은 10여 년 전 내소사 주지 소임을 맡아 내소사를 수행도량으로 가꾸면서 과로를 했고, 그 결과 뇌경색으로 쓰러져 1년여 동안 투병생활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매우 건강하다. 스님의 속세 나이는 72세지만 누가 보더라도 일흔을 넘겼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젊고 활력이 넘쳐 보인다.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혜산 스님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물론 일반적인 건강유지법과 다를 것은 없지만, 그 방법을 행하는 마음가짐은 역시 수행자답다.

혜산 스님은 조금 먹고, 운동 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건강 4계명을 세워놓고 매일 실천하고 있다.

먼저 먹는 양은 보통 스님들의 절반 가량으로, 소식을 한다. 그 다음엔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누운 자세에서 요가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변형시킨 운동법으로 몸을 푼다. 그 다음엔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체조와 같은 간단한 운동을 한 다음 자전거나 역기 등 각종 운동 기구를 이용해 땀을 흘린다.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만도 1시간 40여분.

혜산 스님은 "운동에 조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을 뿐"이라고 하신다. 혜산 스님이 말하는 법칙이란 운동할 때는 모든 잡념을 버리라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강조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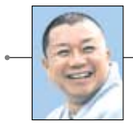
잠은 6~8시간 정도로 충분히 잔다. 혜산 스님은 "자는 시간은 수행자에게는 분명 아깝지만 그만큼 수행이나 일에 집중하면 건강을 지키고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운동이나 수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 혜산 스님의 지론이다. 머리 속에서 잡념이 끊이지 않으면 그게 곧 스트레스가 되면서 건강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고 잠을 충분히 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쓸데없는 생각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을 줄여야 해요. 욕심이 많다고 해서, 얻는 것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진각스님의 스님이야기

혜암 스님(1)



말쑥하게 신사복을 차려 입은 청년과 시골 할아버지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노스님이 해인사 원당암 염화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면서 세속에서는 잘 살았으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삶이 있고, 출가하여 마음을 잘 닦아서 정신적으로 안정과 평온함을 누리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삶이 있다고 하자. 이 두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보람된 인생이고 잘 살았던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노스님이 청년에게 물었다.

그후 일주일이 지나서 청년은 노스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변을 정리하고 해인사로 출가했다. 그 양복을 입은 청년이 바로 나다. 나에게 수행자의 길을 걷도록 방향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은사 스님인 혜암 스님(前 조계종 종정)이



그림 · 문병성

다. 혜암 스님은 "행자생활하는 목적은 오로지 스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니, 다른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수계하는 복도 무량한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현재 남해 조그만 암자에서 묵묵히 수행 잘 하고 있는 지도 스님에게 나를 해인사 행자실에 넣으라고 하셨다. 은사 스님은 이후 자상함과 세심함으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여러 모로 큰 의지처가 돼 주셨다.

해인사 행자실은 엄격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만큼 행자들 스스로의 자부심도 대단했다. 어느 절에서 스님으로 몇 년 살아도 해인사 행자 생활 일년만 같지 못하다는 등 세뇌 교육도 수시로 있었다. 스님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혜암 스님 말씀을 늘 새기면서 살아야 버텨 낼 수 있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일도 많았다.

혜암 스님은 행자들의 신심 고취를 위해서 행자들이 특별 법문을 청하면 언제든지 즐겁게 법문을 해 주셨다. 태백산에서 공부하시면서 밤길에 호랑이를 만났을 때 수행자의 기상으로 호랑이를 물리쳤던 일, 오세암에서 겨울에 용맹정진할 때는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도토리와 솔잎 등의 초근목피로 생계를 이어가니 일주일 뒤 부터는 해우소에서 일을 보고 나면 검은 콩알 만한 염소똥이 나오더라는 등의 얘기를 하시는데, 특유의 순진한 미소에 덧붙여서 수행 이야기가 탄력을 받으면 서 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이야기는 장황해도 스님의 지론은 한결같았다.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타납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큰 절에서 행자생활을 마치고 수계하기 한달 전에는 은사 스님의 암자로 가서 시봉을 하면서 허드렛 일도 했다. 원당암은 마침 요사채를 시민선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늘어나는 신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요즘말로 내부확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지게질을 난생 처음 그때 해봤다. 다른 행자들은 여기저기 사숙 스님뻘 분들 찾아 인사드린다고 버스를 타고 해인사를 벗어나는데, 나는 원당암에 온 날 부터 아침공양 끝나기가 무섭게 일을 시작해서 깜깜한 밤이 되어야만 끝났다.

그야말로 중노동이 따로 없었다. 해인사를 벗어나는 행자들만 부러운게 아니라 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만 눈에 띄어도 부럽기가 그지 없을

행자들이 법문 청하면 언제든 즐겁게 반겨

정도로 일이 고되었다.

그래도 스님께서는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면 당신께서 옛날 가야산 중봉에서 토굴을 지어놓고 공부하시던 곳에 데려 가시기도 하면서, "내가 토굴에 살 때면 시장보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만 시장을 다녔는데 깜깜한 길을 다니려면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만큼 여간 불편한게 아니야. 그런데 같은 길을 자주 다니게 되니 깜깜한 밤에도 익숙해져 낮처럼 다니게 돼, 마음 공부라는 것도 이와 똑 같은 이치니라." 이렇게 비유를 해 주시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넌지시 일러주시곤 하셨다.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깜깜한 어둠속에서 생사의 윤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길을 헤매고 있는것과 똑같다. 그러니 부지런히 마음공부하는 일 외에는 달리 중요한 것이 없다." 하시면서 돌담만 남은 토굴을 가리키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집 지을 때의 일화도 곁들이시곤 하시던 스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험한 산길을 가벼운 몸으로 젊은 사람보다 더 잘 걸으시고 앞장서시는 스님을 보면서 잠시도 쉴 줄 모르는 스님을 시봉하고 가르침을 받자니 원력이 턱없이 부족한 나로서는 그저 앞일이 걱정될 뿐이었다.

진각 스님은 해인사에서 혜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승가대학과 율원을 졸업했다.

월간 <해인> 편집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과 구례 수미정사 주지로 있다.

이젠! 깊은 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설레임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업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차안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속에 행운이 깃드는 신비의 돌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솔잎, 난초국화, 몸에 좋은 모과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베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냥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방안의 냄새는 물론 담배생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맥걱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 알갱이를 하루에 한알(작은알은 두세알)씩 뚜껑에 보충시켜주십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냥의 신비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氣"이며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타 051)633-4070 / 향장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현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정품)
▶ 불제 고추전구, 인지전구
▶ 종류 :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윌라멘트가 6배(특 윌라멘트)로 밝이 윌등이 밝고 잘견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탑돌이, 방생)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 합니다. (건전지 사용)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02)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630-706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주말에 고즈넉한 산사의 멋을 느끼고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사찰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가 마련된다.

스트레스에 지친 심신 산사에서 달래볼까?

풍경소리, 사찰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곡사 사나사 등 6곳서 1박2일간 참선 · 다도 배워

'열심히 일한 당신 모든 번뇌 망상을 놓으러 산사로 떠나라.'

고즈넉한 산사의 하룻밤 풍경소리에 젖다 보면 어느새 어지러웠던 마음이 씻겨진다.

풍경소리(이사장 혜자 스님)와 웹투어(대표 김준수)는 사찰에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풍경소리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란 주제로 산사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밀양 표충사, 공주 마곡사, 양평 사나사, 영천 은해사, 대구 파계사, 동해 삼화사 등 6개의 사찰에서 시범적으로 사찰체험여행을 진행하고 추후 전국사찰로 확대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하다. 해당 사찰에 도착하면 입소식 후에 '불교'를 주제로 한 강의가 펼쳐진다. 다음날에는 좌선지도와 차문화 강의, 행다실습에 이어 운력과 산내암자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회향식에는 주지 스님 특강이 마련된다.

일정은 △2월 28일 마곡사 △3월 27일 사나사 △4월 24일 은해사 △5월 29일 파계사 △6월 26일 삼화사 순이다.

수련복과 고무신은 제공되며, 요금은 8만4천원. 1박2일로 진행되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출발한다.

예약은 풍경소리(www.pgsori.com)와 웹투어(www.webtour.com)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풍경소리'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포교단체로 그동안 전통 참선문화, 다도 등 사찰에서 지켜지고 있는 전통문화를 지하철 게시판과 체험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알리는데 힘써왔다.

행사를 진행하는 웹투어 국내여행사업부 김춘수 부장은 "사찰전통문화 프로그램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연수나 단체 프로그램을 위한 맞춤 여행도 가능하다"면서 "이제까지 1천7백여 년 동안 한국인의 정신적 피안처가 되어온 사찰에서 색다른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천했다.

또 김 부장은 "도시민들에게는 바쁜 생활 중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생생한 한국 사찰 전통문화 체험 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2)2112-2714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극장가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Something's gotta give) / 코미디 / 117분
개봉예정일: 2월 13일
감독: 낸시 메이어스
출연: 잭 니콜슨, 다이안 키튼, 키아누 리브스 등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1997)'로 중년 로맨틱 코미디를 선보였던 잭 니콜슨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다이안 키튼이 주연을 맡은 로맨틱 코미디. '매트릭스' 시리즈 등으로 한동안 액션물에서만 볼 수 있었던 키아누 리브스가 젊은 주치의 역할로 오랜만에 로맨스 물에 등장한다.



러브 미 이프 유 대어(Love me if you dare) / 로맨스 / 93분
개봉예정일: 2월 13일
감독: 얀 사뮤엘
출연: 기욤 깨네, 마리온 꼬띨라르 외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은 깨닫기 쉽지 않다? 어릴 적부터 사탕상자를 걸고 내기를 하는 등 뗄레야 뗄 수 없을 만큼 가깝게 지낸 두 친구 줄리앙과 소피. 두 사람이 서로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얀 사뮤엘 감독만의 독특한 색감과 유머로 그려냈다.



8명의 여인들(8 Femmes)
개봉예정일: 2월 27일
감독: 프랑소와 오종
출연: 까뜨린느 드뇌브, 이자벨 위페르 등
'쉘브르의 우산'으로 한국관객에게도 친숙한 까뜨린느 드뇌브 등 프랑스의 유명여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미스터리 뮤지컬 코미디물.

전통 남성춤 장인의 무대

21일 문예진흥원 '2004 조흥동 춤의 세계'



반세기를 전통춤과 함께 살아왔다면 분명 그는 이 시대의 장인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전통춤꾼 조흥동(63 · 사진)씨가 신명나는 춤판을 벌인다. 2월 21~22일 서울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2004 조흥동 춤의 세계'가 바로 그것. '남자가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매장'을 각오해야 했던 시절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라벌예대에서 무용을 공부한 조씨는 62년 국립 무용단 공연을 시작으로 150여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한국남성 무용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번 공연에서 조씨는 발디딤새의 어려운 기교 때문에 남성 무용수들이 좀처럼 하지 않는 '태평무', 민속악기인 호적과 사물장단에 맞춰 전통무를 선사하는 '호적 시나위', 최승희씨가 신무용으로 재구성한 '노사공의 하루' 등을 공연한다. 이외에도 이날 무대에서는 김정학 · 윤성철 · 이영진씨 등이 한영숙류와 이매방류 승무를 새롭게 조명한 '승무'를 펼쳐 보인다. (02)2263-4680

김주일 기자

클릭! 불교문화상품

황토달마



우리나라 7대 호황토분포지역 중 하나인 지리산 청학동 적송림 부근에서 채취한 양질의 황토로 만든 제품. 물을 뿌렸을 경우 황토의 특성상 수분을 축적하는 특징이 있어 집안 습도조절에도 효과적이다. 크기 가로 25cm, 세로 30cm. 9만 8천원. (02)732-15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 Btn 불교TV <ch 32>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06:05 불교강좌
08:55 우리들의 찬불가
11:10 행복스튜디오
14:45 고승열전
18:15 유쾌한 저녁길
20:00 다시듣고 싶은 노래
23:25 명상음악

11일 12:00 전통의 손맛
12일 09:10 밥상에 도가 있다
13일 09:10 차문화 산책
14일 14:00 불교TV 주간뉴스
15일 15:40 영상 니르바나
16일 14:25 특별법문
17일 16:05 디지털 동의보감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명상음악(2월 14일 23:25~24:00)- 늦은 저녁 명상을 통해 자기 내면을 관찰해 마음의 정화를 이끌어 보는 시간. 이를 위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르의 명상음악이 준비돼 있다.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며 청취자들을 명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불교텔레비전**: 밥상에 도가 있다 (2월 12일 09:10~10:00)- 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 '열려라 건강의 문, 깨' 편에 이어 '흑진주 콩의 비밀' 편이 방송된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등 콩의 주 성분을 분석하고 효능을 알아본다. 또 청국장을 비롯해 콩으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을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시

韓 - 티베트 불교회화 한자리에

2월 10일부터 한달간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한국불교의 조형미와 티베트 불교의 섬세한 기법이 혼합된 괘불탱화.

만다라 갤러리 소장 3백여점의 불교만다라와 다양한 크기의 괘불탱화가 2월 10일~3월 10일까지 잠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화랑에서 전시된다. 특히 처음 일반인들에게 선보이는 3점의 괘불탱화는 만다라 갤러리와 선불교미술대학장인 윤일호 화백의 공동작품으로 다양한 크기의 석가모니 독존, 아미타상존도, 영산회상도를 한국불교의 조형미와 티베트 불교의 섬세한 기법으로 3년에 걸쳐 완성한 것들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국내외의 각종 진귀한 불교소품들도 만날 수 있다. (02)732-6372 **김주일 기자**

동양적으로 본 정물

일민미술관 '정물예찬'


손응성 '회도사자서'.

32명의 작가가 그린 다양한 정물화가 선보인다. 서울 세종로 일민미술관에서 3월 14일까지 열리게 될 '정물예찬' 展. 이번 전시회는 두 주제로 나뉜다.

1층에서는 전통적 민화나 고서(古書)의 이미지를 화폭에 옮긴 박이소씨, 수묵, 목탄 등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지필묵(紙筆墨)의 전통적 속성에서 탈피하기 위해 노력한 박병춘씨의 작품 등에선 새롭게 재해석한 동양적 화법이 드러난다.

또 2층에서는 정물적 소재를 조각, 사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팝아트적 정물'이 나온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회에는 박수근, 도상봉, 손응성 등 1960~80년대 회화 대가들이 그린 전통 정물화 60여점들도 '특별전'으로 선보인다. 특히 불상 고가구 등을 소재로 한 손응성의 '회도사자서(繪圖四子書)'와 한국 근대미술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 도상봉의 '꽃' 등은 고전과 품격을 느끼게 한다. 3월14일까지. (02)2020-2065

파도 일렁이는 대나무 숲

갤러리 도올, 이재삼 개인展



이재삼(44)씨는 그림이 손의 노동임을 새삼 일깨워주는 화가다. 치밀하고 촘촘한 사실적 묘사로 드러난 대나무 숲은 흑백이면서도 다양한 색깔을 뿜어낸다.

2월 29일까지 서울 팔판동 갤러리 도올에서 여는 개인전에 그는 대작 '저 너머'(사진)를 전시장 벽면 가득 걸어놓았다. 면 천에 목탄으로 그린 대나무의 물결은 식물성의 장엄한 파도처럼 보는 이의 가슴으로 철썩거린다. (02)739-1405

게시판

공부합시다

정토행자 천일결사 8차 입재식
정토회에서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1시 부산 해운대 정토법당에서 천일결사 제8차 입재식을 갖는다. '정토행자 만일결사'의 네 번째 천일결사에 해당되는 이번 입재식에서는 법륜 스님의 법문, 즉문즉설, 신규결의자 입재식, 실천과제 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름, 법명, 전화번호가 기재된 수행일지와 결사보시금을 준비하면 된다. (02)587-8994

봉인사 자비수관 및 다도 수련
남양주 봉인사(주지 적경)는 지운(前 송광사 강주) 스님을 법사로 2월 14~19일 자비수관, 2월 15일 다도 수련을 각각 진행한다.

자비수관은 지, 수, 화, 풍, 공에 대한 5대 관법을 위주로 하는 위빠사나와 티베트밀교 계통의 자비관 수행이다. (031)574-5585

호두마을 용맹정진 수행



천안 호두마을은 2월 13~19일(성오 스님 지도), 2월 27~29일(혜진 법사 지도) 위빠사나 수행에 이어, 2월 29일~3월 5일 삼존 스님의 지도로 용맹정진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용맹정진은 경험자만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041)567-2841

문화재 사진 · 답사기 콘테스트 응모하세요

문화재청은 홈페이지(www.ocp.go.kr) 개편을 기념해 문화재 사진 콘테스트와 문화재 우수답사기 콘테스트, 문화재 퀴즈 행사를 연다.

문화재 사진콘테스트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촬영한 문화재 사진을 문화재청 홈페이지 '국민참여코너-사진게시판'에 3월 31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문화재 우수답사기 역시 '국민참여코너-답사게시판'을 통해 응모하면 되며 문화재 퀴즈는 올해 말까지 매월 출제된 10문제를 모두 맞힌 정답자 중 10명을 선정한다.

순일수련원 금강경 강의
양평 순일수련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이동호 원장의 <금강경>강좌를 연다. 비용은 무료, 일반인도 참석 가능. (031)771-9765

보리수선원 7일간 집중 수행
서울 보리수선원은 2월 14~21일, 21~28일, 3월 20~27일 7일간의 집중 수행을 실시한다. 입제 토요일 오후 5시, 회향 토요일 오후 5시. (02)517-2841

어린이 궁궐체험학교
문화유산 시민단체 '한국의 재발견(www.palace.or.kr)'은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궁궐체험학교를 개최한다.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등을 견학하며 궁궐생활사, 궁궐놀이, 풍수지리, 전통건축양식, 근대사 속의 궁궐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초등학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8만원. (02)723-4206

함께 해요

ST · 효림원, 케어복지학 강의
수효사 부설 불교복지법인 ST · 효림원은 2월 17일부터 케어(care)복지과와 성훈따주기과를 신설해 강의 한다. 교육 과정은 사회복지개론, 장애인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케어개론, 케어실습 등의 9개 필수과목과 불교상담심리, 수화 · 치매 노인의 케어 등 7개 선택과목, 불교의 이해와 불교 사회복지 등 2개의 기타 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케어복지과(매주 화 · 수 오후 1시30분)는 6개월, 성훈따주기과(매주 화 오후 2시)는 3개월 과정이다. 교육 수료후에는 케어복지사 2급 자격증과 따주기 자격증이 수여된다. (02)313-3060

시각장애 체험스쿨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각장애 체험스쿨을 연다. 시각장애에 대한 이론 강의와 점자배우기, 시각장애 생활체험 등이 마련된다. (02)950-0122

맑고향기롭게 알뜰시장
맑고향기롭게 모임은 2월 15일 오전 10~오후 2시 길상사 내 관음석상앞 마당에서 알뜰시장을 연다.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 위해 사용된다. (02)741-4696

즐겁게 떠나요

금산사 귀신사 정기순례
'불교와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004년 1차 정기 순례를 떠난다. 전북 김제 금산사와 귀신사를 참배하게 될 이번 순례에는 김열권 법사가 진행하는 특별법회도 열린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2월 14일까지 인터넷(cafe.daum.net/altlovebuddha)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성인 2만 5천원, 초 · 중 · 고생 1만 5천원. (017)343-2759

남도 환타지아 기차여행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남해 보리암, 하동 쌍계사와 낙안민속마을, 녹차밭 등 하동과 순천 일대를 돌아보는 '남도 환타지아 기차여행'이 마련됐다. 매주 월, 수, 금 출발. 자유여행사(02)3455-0003)

구룡사 · 참숯가마 여행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 구룡사와 횡성 참숯가마를 돌아보는 여행상품이 등장했다. 2월 29일까지 매주 토, 일에 출발한다. 호도투어 (02)753-8244

< 20면 「상식 퍼즐」 정답>

동	전		남		바		관	각
지	관	불	이		느	리	광	이
	예		섬	유	질		버	
기	우	단		물		논	스	툽
		시	세		폭	설		
출	세	간		실		문	지	방
	계		수	식	관		시	
과	대	포	장		계	선	부	표
정	전		목		자		사	시

새집은 병의 온상? 건강을 지켜라





대표적인 친환경적 건물인 흙집의 모습. 사진제공=목천 흙집연구소. (061)371-5146

창문 활짝열고 하루 두번 10분이상 환기
목조·흙 등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최선

새집 증후군 예방 이렇게

새로 지은 집이나 막 인테리어 공사를 끝난 건물에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르며 목이 칼칼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새 건물이니 당연하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 경험이 사실은 심각해 질 경우 '화학물질과민증(Multiple Chemical Sensitivity, MSC)' 까지 일으킬 수 있는 새집 증후군이다.

새집 증후군은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5대 환경문제로 부각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뒤늦게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5월 30일부터 환경부가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입주직전부터 실내공기의 질을 유지하도록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새집 증후군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 새집 증후군이란?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 SHS)은 건물에 쓰인 자재나 페인트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포름알데히드(HSHO) 등의 화학물질이 사람에게 두통, 알레르기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생활공해이다. 특별한 질병이 없던 사람이 새집이나 수리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두통, 아토피성 피부염, 호흡곤란, 피로, 천식, 비염, 천식 등을 앓는 경우를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새집에서는 특히 시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가 위험요소다. 새로 지은 콘크리트 건물에서 느껴지는 눈 · 코 · 목의 따가움은 암모니아 가스가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건축자재 뿐 아니라 가구, 싱크대, 벽지, 타일, 장판, 천장 등의 마감재와 단열재에는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다량 포함돼 있다. 시공과정에서 사용된 접착제, 페인트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소화기, 신경계, 호흡기 장애는 물론이고 간이나 신장 등에도 장애를 일으킬 만큼 위험하다.

시멘트 뿜어내는 암모니아 가스
눈 코 인후 점막자극 '위험'

△ 가정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새집 증후군 예방법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장 신동천 교수는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일반 가정에서는 적절한 환기와 불필요한 화학물질 생활용품의 사용을 줄이면 충분히 예방가능하다"라고 말한다.

환기는 하루에 두 번 오전 10시 이후, 오후 9시 이전에 주로 낮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밤에는 외부의 오염된 공기로 인해 제대로 된 환기가 어려우니 피하는 것이 좋다. 실내공기와 외부공기를 완전히 바꾸도록 베란다의 창문과 반대편의 창문을 최소한 10분 정도 열어놓는다. 평소에도 창문을 약간 열어 외부공기가 계속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가스사용이 잦은 주방이나 다용도실의 창문을 열어두도록 한다.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밀폐된 공간에서는 두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환기는 필수적이다.

온도와 습도도 중요하다. 코, 눈, 목 등의 점막이 자극돼 따가움을 유발하는 증상은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심해지기 때문. 실내온도는 18~22도, 습도는 55% 전후가 적당하다. 겨울에는 조금 춥게 느껴져 실내에서도 스웨터를 걸쳐 입을 정도가 좋다.

새 건물에 입주하거나 새로 인테리어를 한 집은 이사 가기 전 2~3일 동안 고온 난방해 벽지, 바닥재, 가구 등에 배어있는 휘발성 화학물질이 날아가도록 한다.

황야자나무, 접란, 파키라, 네프로레피스, 스파티필럼, 벤자민고무나무, 디펜바티키아, 산세베리아, 관음죽, 잉글리쉬 아이비, 보스턴 고사리 등 공기정화에 효과적이거나 잎이 큰 식물을 실내에 들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물이 잎 뒷면 기공을 통해 공기 속 오염물질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전체 집 면적의 3~10% 정도 배치하면 충분히 공기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귀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부터 대안 가옥으로 떠오르던 흙집도 각광받고 있다. 흙집은 우리나라의 풍토에 알맞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로 평가받는다.

흙집은 바깥의 열기나 냉기가 내벽에 영향을 직접 미치지 않아 난방과 단열의 효과가 뛰어나며 공기를 흡수, 방출하는 기능을 지녀 실내습도 조절에도 탁월하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새집 증후군 예방법

실내온도	18~22도 유지
습도	55~60%, 빨래는 적당히 널 것
환기	하루 2번 10분 이상. 오전 10시 이후, 낮 시간대, 오후 9시 이전
화분	황야자, 대나무야자, 접란, 관음죽, 잉글리쉬 아이비, 보스턴 고사리, 파키라 등 공기정화에 강하고 잎이 넓은 식물
기타	이사 전 2~3일 동안 고온 난방, 환기 필수 살충제, 방향제, 세정제 등 화학물질로 된 불필요한 생활용품 사용 줄이기

'이혼, 현실과 미래' 강좌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은 오는 2월 20일부터 매주 금요일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라는 주제로 강좌를 실시한다. 이혼률 증가 등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뤄진다. 비디오감상, 집단상담, 개별상담 등 2단계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02)782-3472

백화점서 메주 바자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2월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 미아, 영등포점에서 '메주바자회' 를 연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100% 국산콩으로 만든 재래손메주, 메주가루 등을 판매한다. 강남점은 12일까지. (02)752-4227~9.

튼튼한 어린이 사진 공모

사이버어린이 건강박람회(www.itntn.co.kr)는 '우리집 아이 튼튼 사진공모전' 을 개최한다. 10세 이하의 자녀의 모습을 500x400(픽셀) 이내 규격으로 찍어 자녀이름, 촬영장소, 나이, 일시 등의 설명과 함께 3월 12일까지 응모하면 된다. 1등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아토피케어시스템 세트, 2등 전자체온계 등의 상품이 마련돼 있다. (02)3676-6141

현장에서 만난 우바이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



부산에는 매월 손으로 직접 쓰고 우표를 붙여 보낸 편지를 받는 행복한 여성불자들이 있다. 바로 부산여성불자회 70여명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10년째 한결같이 왕선자(64. 정토행) 회장이 직접 쓴 편지를 공문대신 받아왔다. 자필로 쓴 편지글에 인터넷에서 찾아낸 시, 법문 등을 곁들인 왕 회장의 편지는 부산 불교계를 이끌고 있는 여장부 70명을 '포로' 로 만들어 버렸다.

왕 회장의 여성불교운동은 이처럼 '구호' 가 아닌 '감동' 으로, 1994년 3월 부산여성불자회를 창립하면서 시작됐다. 7명으로 시작된 부산여성불자회가 내원정사, 마하사, 대성암 등 굵직한 사찰과 신행단체의 주요 임원들이 주축이 된 70여명의 회원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여성 불교를 일구겠다' 는 왕 회장의 원력은 남달랐다. '여성' 이라는 말은 커녕 '여자가?' 라는 말을 들어가며 여성불교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했다. 내 사찰, 내 기도 등 개인의 기복에 머물러 있던 여성 불자들을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다. 10년 동안의 교직 생활을 접으며 마음에 품어두었던 제자 사랑은 부처님 사랑으로 옮겨왔고 부산불교교

"불법 실천 여성이 앞장서야"

10년 동안 70여회원과 함께 자비심 전파

육대학을 거쳐 포교사가 되고 선암사자원봉사단장을 거치면서 여성불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승화된 것이다.

"절에서 좋은 법문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마을에서 불법을 실천해 보자고 마음 먹으니 할 일이 무궁무진했다"는 것이 왕 회장의 설명이다. 가장 시급했던 것은 여성불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갑신년 첫 법회를 '여성리더십 교육' 으로 대신할 만큼 여성 불자들의 인식과 역할을 강조해 온 왕 회장은 수행와 실천의 두 바퀴를 동시에 굴려나갔다. 회원 전체가 법화경과 금강경을 사경하고 매월 법회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했으며 교도소 위문법회, 군법당 포교, 연꽃마을, 천마재활원, 소쩍새마을 등 전국의 크고 작은 시설 방문 등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곳곳에서 실천해 왔다.

어느덧 10년. 부산여성불자회는 3월 1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부산여성불자회의 새로운 10년을 향한 다짐의 자리를 갖는다. 이날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승가대 스님들과 파라미타 청소년들에게 5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뜻 깊은 행사도 열린다. 매년 1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사업비 때문에 장학금 전달은 엄두도 못 냈지만 이번 장학금 지급을 계기로 장학사업은 계속할 각오다. 또한 10년 뒤를 준비하기 위해 회원이 단체로 불교교양대학을 수료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밑거름을 다지는 한편,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여성휘호대회' 를 내년쯤 열고 연례 행사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천주교, 원불교 등 타 여성 종교인들과 함께 하는 폭넓은 봉사활동도 구상중이다.

"불교를 위해, 사회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여성불자를 한사람 한사람 발견하는 기쁨으로 10년이 잽나처럼 지나갔다"는 왕 회장은 이제 부산 여성 불자들뿐 아니라 전국의 여성 불자들을 향해 눈을 돌렸다. 불교여성개발원 초대 부원장을 맡아 '자랑스러운 여성 불자 108인'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 잠시 놓았던 부원장을 지난 1월 다시 맡은 왕 회장은 부산과 서울의 먼 거리를 오가며 한국 여성 불교 발전의 견인차가 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佛經漢文科

통신반 · 출강반 募集

1. 募集期間 ▷ 전기 : 1월 15일 ~ 2월 15일(기간엄수)
2. 教育科目 ▷ 무량의경(漢文本)
▷ 묘법연화경(漢文本)
▷ 관 · 보현보살 행법경(漢文本)
▷ 교양과목(생활한자 5,000자)
3. 教育期間 ▷ 3년(6학기) / 통신반 출석반 동일
4. 教育方法 ▷ 매주교재와 강의테이프 우송(통신반)
▷ 월1회 출석특강(통신반)

※ 본 연구소에서는 불경공부와 수행이 알음알이로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5. 畢業惠澤 ▷ 畢業證書 수여
▷ 전문 연구과정 입학자격부여
6. TEL. 053)952-8711 / 017-501-8711

※ 자세한 입학 안내서는 청구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社)國際語文研究所

所長 · 哲學博士 崔光永

대구시 동구 동대구우체국 사서함 41호(우 701-600)

간(肝)이 염간방지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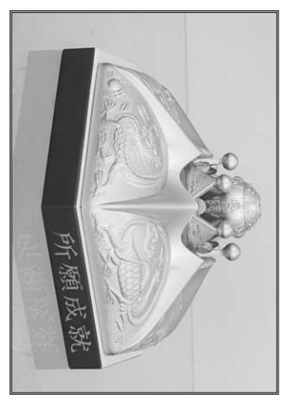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운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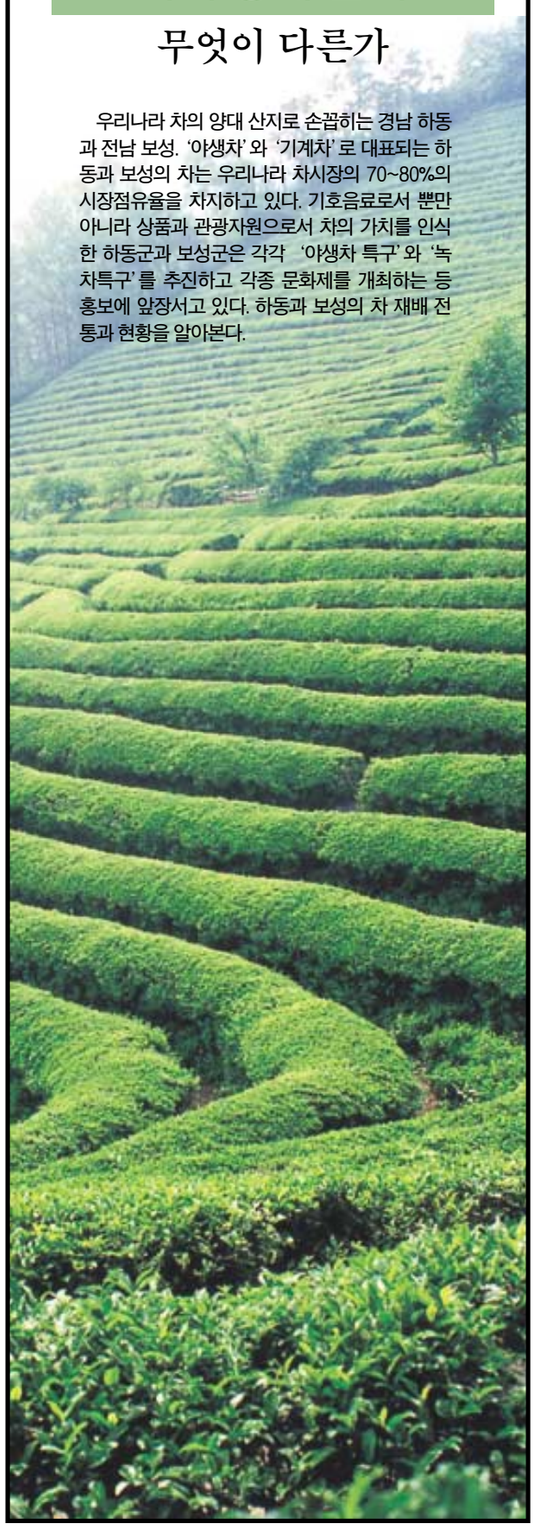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차의 양대 산맥
무엇이 다른가

우리나라 차의 양대 산지로 손꼽히는 경남 하동과 전남 보성. '야생차'와 '기계차'로 대표되는 하동과 보성의 차는 우리나라 차시장의 70~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기호음료로서 뿐만 아니라 상품과 관광자원으로서 차의 가치를 인식한 하동군과 보성군은 각각 '야생차 특구'와 '녹차특구'를 추진하고 각종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하동과 보성의 차 재배 전통과 현황을 알아본다.



야생차로 승부한다
경남 하동

우리나라 차 시배지(始培地)인 경남 하동. <삼국사기>에 따르면 약 1,100여 년 전인 신라 흥덕왕 3년(828년)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김대렴이 녹차씨를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 자락 쌍계사 입구에 처음으로 심었다고 전한다.

하동은 오늘날에도 전국규모 1, 2위를 다투는 차 재배지다. 1천 2백여 농가가 474ha에서 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하동지역에서 등록 허가된 50여 개의 차 생산업체에서 연간 260여 t의 차가 생산되고 있다. 이 중 고급 잎녹차가 전체의 60% 수준인 160여 t이다. 하동녹차 역시 지난해 5월 농림부 지정 '지리적표시' 제2호 특산품으로 등록됐다. '하동녹차'는 하동차영농조합법인이 생산, 가공한 녹차 중 15%이내의 상품에 한해 표시된다.

하동 야생차가 예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은 그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지리산 일대의 연 평균 기온은 섭씨 13.8도, 강수량은 1,538㎜. 차나무 성장에 있어 최적의 조건이다. 일교차가 크고 배수가 원활한 것도 유리한 조

허가된 50여 업체 연 260톤 생산
지리산 지역에서 재배, 맛 · 향 탁월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광객에 인기

건이다. 이 지역 녹차밭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가꾸기 어려운 산악지역에 분포해 있어 재배조건이 까다롭고 기계작업이 힘들어 손으로 따고 덖는 수작업을 통해 생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맛은 최고로 치지만, 가격 경쟁력은 보성 녹차에 비에 약하다. 최고급 상품은 100g당 최고 55만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상품(上品)은 보통 6~8만원 선이다.

부춘다원(055-883-0516)과 청석골다원(055-883-1847), 곡천다원(055-883-5160) 등에서는 찻잎을 일일이 손으로 따서 솥에 덖어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동군이 개최하고 있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매년 1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부터는 일본과 중국 등의 차 관계자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부춘다원 여봉호(42) 대표는 "기계로 잎을 대량 채취해 증기에 쪄서 말린 것과 찻잎 하나하나를 따내 솥에서 손으로 비비며 덖어낸 수제차 맛은 확연하게 다르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배지가 평지로 점차 내려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야생차가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오다 보면 기존의 재배차와 차별성이 없어지고 고유의 맛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자동화로 생산한다
전남 보성

한 비구니 스님이 녹차밭 사이를 걷고 있다. 어디선가 자전거를 탄 수녀가 나타나 비구니 스님을 태우고 차밭 사이를 달린다.

몇 해 전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던 이 광고의 촬영지는 전남 보성군. 이곳에 펼쳐진 백만여 평의 대단위 차밭이 광고와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보성군은 차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됐다. 녹차밭이 차 관광농원으로 인기를 끌자 보성군은 2007년까지 '한국 차 · 소리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국비를 포함해 290억원을 들여 7만5000평의 부지에 차와 소리에 관한 문화적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지로 먼저 세인의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보성은 우리나라 최대의 녹차 산지다. 현재 220여 농가가 518ha의 밭에 녹차를 재배해 연간 약 960여 t을 생산하고 있다. 전국 차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양이다. 보성녹차

광고, 영화 등 촬영지로 유명
전국 녹차 생산량의 40% 점유
싸고 품질좋은 상품 대량 보급

는 2002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의 품질을 농림부에서 보증하고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되어 그 명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아열대 식물인 차나무는 날씨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1500㎜ 이상 되는 곳에서 잘 자란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보성 지역은 강수량은 부족하지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산에 따뜻한 해풍이 불고 기후 변화가 뚜렷해 차나무 생장에 좋다. 이 같은 자연조건을 살려 보성군은 1963년 차밭 일대를 관광농원으로 지정하고 차 산지 일번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보성녹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 농업기술원 차 시험장을 건립해 국내 최초의 고유품종인 '보향(寶香)'과 '명선(茗仙)', '참녹' 등 3개 품종의 개발에 성공해 관심을 끌었다.

보성차의 가장 큰 특징은 기계화 설비를 이용한 대량생산을 들 수 있다.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지는 대한다업(061-852-2593)과 동양다원(061-852-2255), 봇재다원(061- 853-1117) 등 대형 차밭은 자동화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 체제 구축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차를 대량생산 · 보급하고 있다. 최고급차가 6~7만원 선이고 상품(上品)은 4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차문화 교육현장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다 교육

중국차문화협회 짱유화 회장, 국제명차품평심사위원회 정인오 심사위원, 한서대학교 한방병원 도원석 원장….

차인들 사이에선 널리 알려진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서대 건강증진대학원 차학전공 교수라는 것이다. '수십 년 간 한국 차문화를 연구해온 분만 교수로 모신다'는 학교측의 자랑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명교수진과 알찬 교과목
현장실습 통한 전문인 양성

지난 2002년 문을 연 석사과정의 차학전공은 학과의 이름이 말해주듯 '차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터전이다. 사실 그동안 차의 재배와 제다에 관한 연구는 일선 차 생산자들의 경험에 의지해 온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차학전공에서는 차문화에 있어 예절이나 행다보다는 차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제다교육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국내 및 세계의 차문화 발전을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전문 차인 양성'을 위해서다.

교과목 역시 차나무의 품종과 효능에 관해 배우는 '차식물학 연구'를 비롯해 차에 대한 식물학적 · 화학적 · 물리학적 연구와 차별화된 차상품 개발을 위한 '차의 과학적 연구', 제다기술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한 '제다 방법론', 차육종에 대한 학습을 통해 보다 나은 재배법을 개발하는 '차재배 연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덕분에 몇십 년 씩 제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도 많다.

매년 10여 명 안팎의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현장실습을 제일 중요시 한다. 한 달에 한 번 서울 안암동에 있는 품평실습실에서 국제 규격의 품평기를 기준으로 한 품다교육을 받기도 하고, 차 채취가 시작되는 4월부터 7월까지는 주말마다 지리산 일대의 제다업체에서 직접 차를 따고 덖는 실습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이 곳은 방학이 없기로도 유명하다. 방학이면 주말마다 합숙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국내 차문화 유적지 답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차학전공이 문을 연지 불과 2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국내 최초로 '세계명차 차엽 전시관'을 개관하고 학부과정의 디지털 대학을 개설하는 등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여수령 기자

인터뷰 정인오 주임교수

실용적이고 차별화된 차인 양성



"차문화의 주인공은 바로 '차'입니다."

한서대 차학전공 정인오 주임교수는 "차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차에 대한 자연과학적이고 본질적인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한서대 차학전공에서는 차문화와 차산업계에 꼭 필요한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철저한 기본교육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차인 양성을 위해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는 학부과정의 디지털 대학을 열어 차에 관한 기초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일반인을 위한 교양강좌와 국제적인 차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문화 알리기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한다.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무념과 반야로 바꾸는 수행방법과 수행단계

부산 법기불교대학 제3기 수강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의 참뜻은 중생 스스로의 수행으로써 마음의 속성을 바꾸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참선수행은 중생심인 무기와 번뇌를 부처의 마음인 무념과 반야로 바꾸는 노력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행의 입문부터 무여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수행단계와 수행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법기선원 불교대학 제3기 과정이 아래와 같이 시작됩니다.

[부산법기불교대학 강의 일정]

차례	강 의 내 용
1주	불교 바로보기 / 중생의 마음 (무기와 번뇌, 가아와 진아)
2주	수행방법 (관법과 염법) / 수행에 관한 법담
3주	기초교리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삼법인) / 수행 점검
4주	기초교리 (오온, 12처 18계, 계율, 대승과 소승) / 반별 법담
5주	수행자 호흡 (지식 호흡, 반지식 호흡) / 선배수행자의 수행경험담
6주	좌선과 행선 / 삼매와 삼매관성, 수행과 업장소멸
7주	수행자의 건강관리 / 상기의 극복 (멜로디)
8주	수행의 단계 / 호흡 점검
9주	돈오, 유여·무여열반, 여래심 (무념과 반야) / 이근관, 안근관
10주	기복불교, 북방불교·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도반의 수행담
11주	잘못된 불교상식 바로알기
12주	선지식 법문

개강
주간반 : 2월 10일(화요일)
야간반 : 2월 11일(수요일)

수업일시
*매주 1회 수업
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9시

방문접수
목요일 : 오후 2시 - 9시, 토요일 : 오후 6시 - 9시

연락처
법기선원 : 051-516-9104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서울법기불교대학 강의일정은 02-854-1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BUBKI BUDDHIST TEMPLE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안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2004년 3월 11일 개강

제7기 기초반 제5기 경전반

● 기초반 : 매주 화 · 목 오후 2시 ~ 4시 ● 경전반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주요 특강교수진



지관 큰스님 – 前 해인사 주지. 동국대 총장 現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세 민 스 님 – 해인사 주지, 지장선원 회주
법 산 스 님 – 동국대 정각원장
현 각 스 님 – 동국대 선학과 교수
태 원 스 님 – 중앙승가대 교수
권기종교수 – 동국대 前사회교육원장
김용표교수 –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현 호 스 님 – 안양불교학장, 지장선원 주지
최영준거사 – 불교방송 진행자, 개그맨, 가수



행 자 모 집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 안양불교대학
031)444-5935~6 홈페이지 – http://지장선원.kr 카 페 – http://cafe.daum.net / jijangzencenter

실천해 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어

오늘은 입춘입니다. 입춘이라 함은 봄이 오는 소식을 갖다 주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향기로운 꽃내음이 다가오는 소식이며,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일체 모든 걸 주인공에 맡겨 놓고 살라는 겁니다. 어떠한 거든지 '해 주세요'가 아니라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맡겨 놓고 일을 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의학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몸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로, 색신이 망가져 주어진 일을 못하게 되니 가정 또한 행복이 깨지고 하는 등등의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다 가오는 대로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걸림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산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한테 이익을 줄 수 있고 거짓되지 않다는 다짐을 할 수 있었고 실험을 해보고 '아,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았기 때문에 내려왔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난 다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아다본다면 너무도 처참하리만치 고생스러웠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풀 한 포기조차도 해치지 않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고 또 그 지수화풍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 일체를
> 다가오는 대로
> 주인공에 맡겨 놓아야
> 걸림 없이 생활할 수 있어

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 등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는 도리이므로 오신통이라는 재료를 용도에 따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청정하다고 하고, 여여하다고 하고, 들이고 냄도 역시 그렇습니다. 육근 육경을 십이처라 하고, 육근 육경 육식을 십팔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데 합쳐진 것이 인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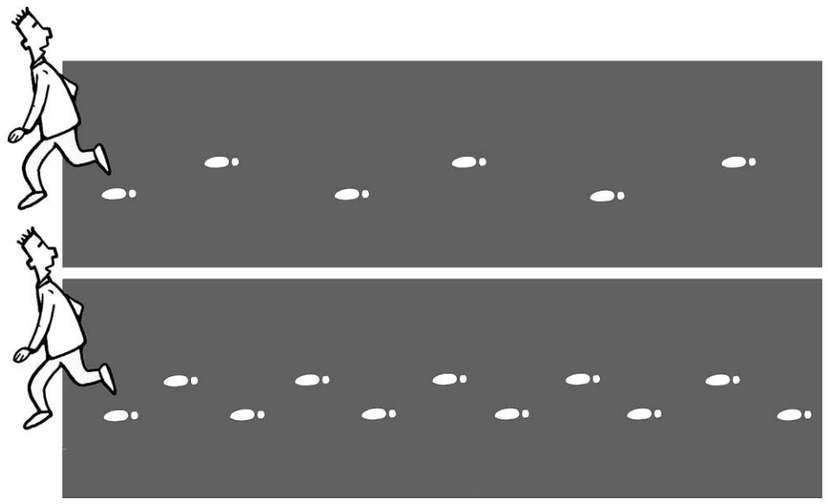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기가 가설이 되어 있듯이, 우리 몸에도 정맥 · 동맥이 돌아가면서 세포가 가설이 되어 있고, 우주 또한 그렇게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계라고 합니다. 인간들에겐 세밀하게 세포가 그렇게 가설되어 있고 지구에도 그렇게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와 인간계가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계합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모두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일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느끼질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설이 돼 있는 건 뭐냐? 여러분이 A형이라면 B형을 넣어서는 안되죠. 그렇게 되면 기가 없어지는데 사람에게 병이 났을 때는 기를 돋우어 주고 병명을 파악해서 그 증세에 맞도록 치료를 해야 하듯이, A형의 환자에게는 A형 피를 수혈해야 하듯이 우리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이런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가설이 다 되어 있으니 주인공에 다 맡겨 놔라, 거기서밖에는 해결을 못한다 할 때는 자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하듯 누르면 되는 겁니다. 법계 자체가 마음먹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먹어야 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여기를 중(中)세계라고 합니다. 그 반면 영령들은 냄새를 맡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사는 세계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세계냐 하면,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자재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찰나생활을 하는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사는 세계, 그 세계에 산다면 죽어서도 눈 밝고 귀 밝아서 마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그냥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산다는 그 이름 자체마저도 벗어나야만이 참마음으로 사는 찰나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 세포에 대해 말했듯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일체 만생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첨단 과학이니 뭐니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죽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도 죽이지 않고 양면을 다 살릴 수 있는 도리입니다.

알고 보면 산과 들에 있는 무정물 · 식물 · 동물이 전부 약 아닌 게 없습니다. 일체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사람의 몸에 피를 수혈하는 것처럼 동물 · 식물의 액을 섭취하면 좋은 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일체 모두가 가설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폴포기 하나도 같이 살지 않는 게 없습니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산다는 그 이름 자체마저도 벗어나야 참마음으로 사는 찰나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 모든 문제를 주인공에 맡겨 놓으면, 병의 원인을 알고 치료법 또한 알고 있어 안 보이는 데 전력이 오고 가듯이 스스로 와서 약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급할 때는 어떠한 식물 · 동물들을 약으로 쓸 수 있는 자동적인 보배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보배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능력이 무한하며 체가 없는 반면에 찰나찰나 돌아가니 그것을 일러 주인공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불가사의한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부처요 모르면 중생입니다. 부처 · 중생이 둘이 아니게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중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공부 아니라고 할 것도 없는 묘한 도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 영원토록 윤회에 끄달리며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과도 벗어나지 못한 채 독 안에 들어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 간 데 없이 가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을 하는 대로 유전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조상들에게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위로는 육신을 주신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인과로 만난 선업 악업들을 다 제도하여 보살로 화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식들한테도 뿌리를 돋우어 즐기와 잎사귀가 싱싱하게 해서 대대손손 번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한한 일입니까?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하나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생각으로 벌어지고 한생각으로 없어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나 벌어지고 없어지는 것에도 걸리지 말고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내가 그대로 행하고 가는 그 자체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자유자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자기를 한 번쯤 관찰하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주인공이 여기까지 자기를 형성시켜 왔으니까, 자기가 죽고 사는 것도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원만하게 해결되게끔 거기다 모든 걸 맡겨 놓고 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죽고 사는 데에 걸림이 없이 이 뜻을 바로 알아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아무리 속상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다가와도 너그럽고 자애롭게 생각하면서 안으로 한번 굴려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한 걸음을 떼어 놓아도 백 걸음 뛴 것보다 무게 있게 그 가치가 월등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경전을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백팔배 삼천배를 하고 정근을 오래 한다 해도 일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관하여서 직접 체험하고 또 실험해 보아야 때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이 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되기도 하고 약사보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보살들이 곧 여러분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세음이니 지장이니 약사니 하는 명호도 다만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이름의 보살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낱 이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아니 그 마음에서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재력을 가지고 찰나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고통을 받고 끝 간 데 없이 유전 등 그 모든 것에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인연에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분명히 알아서 직접 생활하고 공부하는 데 응용하신다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약사보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고, 여러분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한 곳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무심코 여러분의 마음이 뜻으로 와 닿아서 감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때에 따라서 싱긋이 웃음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뼈저린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음으로 가설이 되어 있는 그 자체를 아시려면 주저함이나 물러섬이 없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가정의 아이들 상급학교 진학문제를 놓고 정작 본인의 의견은 중요시 않고 부모들이 이 학교를 택할까 저 학교를 택할까 하고 망설임을 가지고 높고 낮은 데를 가리는데, 아이의 수준에 맞게 마음이 내키는 대로 선택해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들 마음대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고 좌지우지해서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달려 있다 이겁니다. 남의 말만 듣고 일을 처리했다가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가 주인공에 맡겨 놓고 마음 내키는 대로 알아서 하면 되는 데 말입니다.

예전에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 없는 무식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이 약을 쓰기만 하면 환자들의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약초로 병을 치료해도 병이 낫질 않습니다. 이 점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같은 혈액형의 사람끼리 수혈해 줄 수 있다고 했듯이 사람과 약초가 하나가 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과학이나 의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렇듯 마음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양면이 다 살 수 있고, 또 그런 연구들을 해야만 인과에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아마 몇 달이 지났으니 작년에 있었던 일인가 봅니다. 본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선원 어린이 법회에 나오던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아이 부모들이 가방과 책을 여기에 갖다 놓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울면서 애원하는 겁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순간 나는 한편으로 당황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 본래
> 가설이 돼 있는 것이니
> 주인공에 다 맡겨 놔라
> 거기서밖에 해결 못한다

그러다가 위로해준다는 말을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 그 아이가 당신들한테 다시 태어나면 되잖아." 하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딸아이가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주어야 할까 생각하다가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말만이 아니라 그 말의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말할 때는 쉬워도 그 뒤에 감당해야 하는 일은 참으로 회향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뒤에 따르는 문제를 감당해야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어렵게 생각하겠지만, 물론 억만금을 들여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화두를 참구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나는 쉽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화두이자 참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화두를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를 받아가지고 끊어질까 봐 애쓰다가, 일하느라고 미처 챙기지 못했으면 '아이구! 또 놓쳤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보니 '참나'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헛바퀴 돌듯 그냥 빈 맷돌만 돌아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문득 한 그루의 나무에 단풍이 들었다가 단풍잎이 무수히 땅에 떨어져 구를 때 밟으면 부스럭 하고 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해 보는 마음, 혹은 큰 바위나 돌을 보며 묘하게도 생겼구나 하고 생각해 보는 마음, 누가 베어간다 해도 누가 깨뜨려간다 해도 아무런 말이 없고 그냥 잠자코 그 자리에 놓여있는 것을 생각해 보

☞30면으로 계속

이론으로만 공부할 생각 말고 마음으로 관하며 들어가야

☞29면에서 계속

는 의증, 그런 의증을 낸다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도 의증을 내고 돌아가는데, 남에게서 받은 화두를 끊어질까 봐 붙들고 있으니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여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천지차이로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변화했기 때문에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아는 것이 많아졌으므로 남에게서 받은 화두 가지고는 빠르게 변해 돌아가는 지금 세상에 대처해 나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발전되지 않아서 침체되어 있었으므로 사람들의 마음도 단순하고 순수하여 '이 뭣고?' 하고 의증을 내도 그냥 돌아갔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 세상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구와 우주 전체의 진리에 순응하고 돌아가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이 끝없는 진리에 순응하셨습니다. 볼바퀴가 돌아가는 소용돌이 속에도 거기 들어가고 나옴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엔 언어가 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차라리 내가 학문을 배우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았다면 단지 말만으로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 없는 말을 했겠습니까. 내 양심은 내가 더 잘 알고 내 잘못 또한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고 지혜롭게 남을 위해서 행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함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나더러 이런 말을 하더군요. "스님은 왜 누가 못산다고만 하면 돈을 주십니까? 지금 절에도 돈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재무스님을 통해서 알아보니 정말 돈이 없긴 없더군요. 그러나 그럴 때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괴롭지 않으려고 그런다구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생각이 났을 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으리만치 남김 없이 다 주곤 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편하려고 조금이라도 넣어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국수를 사 먹습니까, 떡을 사 먹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연을 맺더라도 좋은 인연 맺어야 합니다.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인데, 길을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나누어도 그것 또한 인연인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의 집에 가서 무엇을 부탁하게 되지 생면부지의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부탁하지 않는 것처럼, 알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데,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인연이냐 아니면 해롭게 하는 인연이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이 있었는데 하루는 스님이 탁발을 하러 왔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스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음식을 바리때에 가득 담아드렸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집 아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부잣집 아들이었던 수좌가 천야만야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두 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수행하는 데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스승이 "얘야, 수행하는데 무척 괴롭겠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수좌가 "예, 스님. 팔로 해야 할 일을 발로 하려니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가 너의 본체를 바로 안다면 너의 과거 또한 현실에서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넌 과거생 어느 나라의 정승이었단다. 하루는 사냥을 하러 산에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던 중, 어느 팔이 없는 수행자를 만났는데 길을 물어보니 팔이 없는 수행자는 다리를 들어서 길을 가리켜 주었단다. 그런데 그 정승은 감히 내게 발로 길을 가리킨다고 화가 나서 그나마 쓸 수도 없는 팔을 가져서 무엇하겠느냐고 하면서 남아있는 부분마저 칼로 잘라 버렸단다. 바로 네가 그 정승이니라. 너도 그만큼 어렵지? 네 두 팔이 그냥 잘라진 게 아니라, 그것이 인과응보니라. 네가 한 대로 받는 것이지." 이와 같이 우연은 없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듯이 내외가 자식을 돌려달라고 울었을 때 그들은 뒤 사정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이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울며 애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꼭 어린애가 사탕 사달라고 우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의 언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난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만 가졌지, 실은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감내하면서 훌륭하게 키워서 저희들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 애쓰는 심부름꾼 말입니다. 아마 저하고 같을 겁니다.

조금 전, 우리 인간은 일체 만물과 더불어 전부 가설이 되어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용도에 따라 꺼내 쓰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짓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온통 야단인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좀더 침착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50%만 말을 하지, 50%는 말 못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활에서 그냥 그대로 체험하고 돌아갈 때 그대로가 보살이고 부처인 것입니다.

보살과 부처 또한 이름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처는 자유자재하는 그것이 부처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만약 여러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달마대사는 왜 수염이 없을꼬?" 달마대사는 수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반면에, 머리를 틀어 상투 끝에 동곳을 꽂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달마대사의 수염은 변해서 붉은 연꽃으로 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 쿡쿡 찔러 보는 낚싯밥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의 세계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어떠한 말에도 걸리지 않겠지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승이 하루는 제자에게 이르시길 "즉심즉불이니라." 하셨는데, 그 소리를 들은 제자가 공부를 하러 떠나서 삼사년이 지나도록 영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소식이 궁금한 스승이 하루는 다른 제자를 시켜서 이번에는 "비심비불이라고 전해주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가 "즉심즉불이나 비심비불이나 돌이 아니니 돌아가서 스승님께 그렇게 말씀드려라."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스승께서는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익었구나, 익었어!" 하시며 기뻐했습니다. "중국에 수염이 붉다더니 이렇게 붉을 줄이야" 하고선 무릎을 탁 쳤다 하듯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수염은 붉은 연꽃으로 화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바른 길을 인도하고 향기로운 꽃내음을 주시고 만법을 증득하는 바른 길을 인도하시니, 머리를 틀어 동곳을 꽂았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천차만별로 된 우주 전체 삼천대천세계를 한데 틀어서 꽂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론으로만 공부하실 생각 말고 마음으로 관하며 들어간다면 앞으로 스스로 느끼고 알게 될 겁니다. 여기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 먹어줄 수도 없고, 대신 잠자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대신 화장실에 가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인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내지 않는 중생들은 제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똑똑하든 모자라든 간에 일체를 맡겨 놓고 그대로 사십시오. 그대로 사세요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엉겁결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지 말고 거짓되지 않게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고 나가면 올바른 뜻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반면 바른 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위로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아래로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옷을 벗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갈 때가 되면 그냥 갈 수 있게끔 말입니다. 내가 가도 될 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자세하게 말한 '가설되어 있다'는 것과 '자동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내 가슴이 덜 아프고 내 눈물이 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29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체가 한마음으로 가설돼 있는 그 자체를 알려면 주저함이나 물러섬 없이 노력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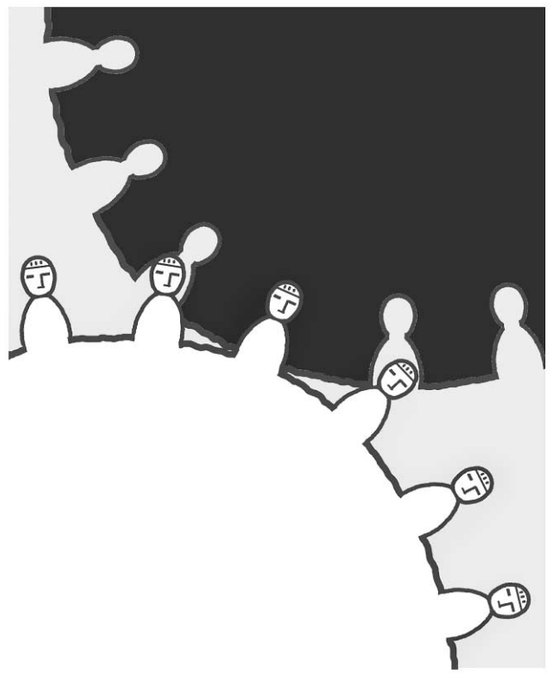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엄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당 뇨
당치발란스
국내최초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생약캡슐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당치 발란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7일~15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자(김종연 교수) 약력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교수
-영남대학교 기초의학연구소 소장
-영남대학교 비만·당뇨 선도연구센터 센터장
현재 역임중
현직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학적 검증을 거쳐 개발된 한국인의 식생활 습관에 맞춘 월당강하 식품입니다.
- 당치발란스의 기타 질환에 대한 효과 -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갱년기 장애
· 고혈압, 고지혈증
영남대학교 당뇨선교연구센터 소재 공동연구
주문 및 무료상담전화 080-558-6633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 : 특징 - 울 50% 폴리에스텔 50%
적삼, 바지 150,000~180,000
동방, 바지 180,000~210,000
두루막 150,000~180,000
2. 무 명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80,000
3. 무명, 면 : 면100%[먹물 염색]
적삼, 바지 140,000 동방, 바지 170,000
두루막 140,000
4. 솜 없는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170,000 동방, 바지 200,000
두루막 170,000
5. 면 목화솜 누비 [먹물 염색]
적삼, 바지 230,000 동방, 바지 270,000
두루막 210,000
6. 골 덴 : 면100% 적삼, 바지 180,000
7. 장삼 고급모직 220,000~250,000
대가사 150,000 반가사 70,000
법복 모직 60,000~80,000
◆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요 ◆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대구 중구청 뒤편 [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동삼아파트 지하 공장)

조류독감 · 광우병 공포

고기 없다고 밥 못먹나!

채식의 '색다른 맛' 느껴보세요

주부 보리심(가명 · 51) 보살은 요즘 고민이다. 쇠고기 맛이 혀끝에 맴도는 것 같은데 정작 고기 앞에선 마음을 다잡게 된다. 광우병은 잠복기가 8년이라나…. 발길을 돌려 치킨집 앞에 선다. 따끈한 오븐에서 쉼없이 돌아가는 통닭들을 바라봐도 가슴이 아프다. 조류독감이 부른 가슴앓이.

최근 광우병과 조류독감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고기 먹기가 두려워졌다. 어부지리로 해산물 요리의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고기 마니아'들에게는 그저 달갑지 않은 차선책일 뿐. 이들을 위해 채식을 제안한다. 고기를 향한 향수에 사무친 자들에게 웬 뜬금없는 실언인가 싶겠지만, 고기를 대체하는 식물성고기는 맛과 영양 면에서 육식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오히려 맑고 밝은 신체를 키우기엔 더없이 좋은 선택. 그 선택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서울 불광산사 채식식당에서 의은 스님이 야채돈까스를 내어주고 있다. 사진= 고영배 기자

菜食樂



그래픽 = 최정근

순식물성 '콩고기' '밀고기' 인기 상승
육류의 맛, 영양 살린 식품 다양
이뎀, 불광산사 등 마니아 들에 눈길

● 식물성 고기의 정체는



콩 · 밀단백 구할 수 있는 곳

베지푸드(www.vegefood.co.kr)	(031)796-4081
베지러브(www.vegelove.co.kr)	(02)575-8942
채식바다(www.vegsea.com)	(032)565-8006
남부햄(www.nambuham.co.kr)	(02)672-3434
그레인(www.grainfood.co.kr)	(090)799-1111

식물성 고기를 대표하는 것은 '콩고기'와 '밀고기'. 재료는 순식물성이지만 모양이나 색깔부터 맛이나 질감까지 영락없이 진짜 고기를 닮았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이 없고 영양까지 풍부해 진짜 고기보다 오히려 낫다는 사람도 많다. 이들 고기는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

'밀고기'는 밀의 단백질을 응용한 요리다. 밀가루(강력분)를 반죽하다 보면 녹말 성분이 빠져나오고 찰진 덩어리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밀의 단백질, 즉 글루텐이다. 이를 소금이나 마늘 등으로 간해서 고기대용으로 사용한다. 고기빛을 내기 위해 비트즙을 섞기도 한다. 밀가루 반죽이 힘들다면 채식재료점에서 글루텐 가루를 구입, 물과 섞어 살짝 치댄 후에 이용해도 좋다. 이렇게 만든 글루텐을 찌고 지지고 튀겨서 밀불단백, 밀까스, 우엉밀갈비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콩고기' 역시 콩에서 추출한 콩단백으로 조리한 요리다. 베지푸드 등 콩요리 제품 판매 회사에서는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콩단백' 제품을 시판, 콩불고기, 콩탕수, 콩치킨 등 쉽고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 콩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콩단백을 별도로 구입해 취향에 맞게 조리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자연산 인스턴트 콩제품으로 간편하게 채식식단을 꾸밀 수도 있다.

● 어디 가면 먹을 수 있나

순한 건강식단이 특징인 산골채식 건강식당, 국내 최초의 채식카페인 이뎀 등 국내에는 채식식당이 상당히 많다. 특히 서울 불광산사 내 채식식당은 달걀과 우유를 포함해 오신채까지 금하는 불교식 완전 채식식단을 내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대만산 콩단백을 이용한 야채돈까스, 야채만두 등은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인기 메뉴다. 채식을 시작한 지 10년째 접어들었다는 이미경씨는 "대만산 콩단백이 국내산보다 맛과 질감이 뛰어나다고 들었다"며 "대만산 콩단백으로 조리한 야채돈까스의 맛이 좋아 불광산사 식당을 가끔 찾는다"고 말했다.

콩 · 밀단백 요리가 맛있는 채식식당

-불광산사 적수방(02- 2276-0993, 서울 장충동)
: 대만산 콩단백 요리 전문으로 원만차 등 대만차도 함께 맛볼 수 있다.

-SM 채식뷔페(02-576-9637, 서울 포이동)
: 달걀, 우유는 물론, 오신채까지 금하는 완전 채식식단이 준비돼 있다.

-이뎀(02-392-5051, 서울 이화여대앞)
: 신세대 감각의 채식카페로 채식탕수육, 채식고기탕 등의 메뉴가 다양하다.

-소심(02-734-4388, 서울 안국동)
: 찻집이지만 손님이 원하면 오신채를 쓰지 않은 채식요리를 제공한다.

-뉴스타트 식당(02-565-4324, 서울 역삼동)
: 건강요리와 채식상품이 총망라돼 있다.

-산골채식 건강식당(02-978-9006, 서울 목동)
: 일부 요리에 달걀을 사용하는 식당으로, 채식 탕수육과 밀불고기가 일품이다.

-풀향기(02-2265-1320, 서울 장충동)
: 사찰음식을 변형시킨 한식집으로, 손님이 요구하면 100% 채식식단을 맛볼 수 있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최윤근 교수의 아유르베다 읽기 ❻

3도샤 속성 강하면 인체에 해

우리 몸을 관장하는 3도샤의 속성 Ⅱ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피타(pitta)의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피타 도샤의 대표적 속성은 불 또는 뜨거움이다. 내포하고 있는 성질은 유동성과 전환성이며, 5가지 요소 중 불과 물의 조화와 전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마디로 신진 대사를 주관하는 소화 효소와 호르몬의 존재가 피타의 속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음속에서 뇌신경을 자극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작용케 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피타' 뇌신경 자주 물질 분비 작용케
지나치면 소화장애, 통찰력 상실
'카파' 장기 세포 구조물의 보호, 유지

피타는 7가지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소화를 촉진시켜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뜨거움, 피부와 머리카락이 반짝이며, 정확한 시력을 갖게 하는 가벼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유동성을 비롯해 기억력을 주관하는 날카로움, 이 외 섬세함과 깨끗함 이 7가지가 피타를 대표하는 성질들이다. 이러한 피타 속성이 지나치게 되면 여드름이 나고 화를 잘 내게 되며 내분비에 이상을 가져와 위궤양 등에 걸리게 된다. 반대로 부족하게 되면 소화장애를 가져오고, 신진 대사가 느려지고 행동이 굼뜨게 되며 통찰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피타 체질의 신체적 특징은 어떠한가? 우선 외형적 모습은 보통에 속한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에 보통의 근육의 가지고 있으며 마르지도 비만하지도 않은 체형이다. 피부는 윤이 나고 따뜻하며 기름기가 있다. 눈은 쉽게 충혈되며 날카롭다. 머리카락은 가늘고 기름기가 있으며 치아는 보통 정도로 잇몸에서 쉽게 피가 나는 경향이 있다. 혈액 순환은 좋은 편이나 관절이 헐겁다. 입맛은 아주 좋으나 갈증을 자주 느낀다. 땀을 많이 흘리고 설사 기운이 있으나 변은 부드러운 편이다. 소변 양이 많고 색은 노랗다. 면역력은 보통 정도이고 태양, 불, 열 등 뜨거운 것에 예민해 병에 걸리면 주로 열과 염증으로 나타난다. 질병은 주로 간 질환이나 혈액 질환으로 많이 나타난다. 활동량은 보통이며 참을성도 보통 수준이다. 수면은 약간 불규칙해 잘 자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하며 꿈은 보통 정도로 꾸나 그 내용이 다채롭다. 기억력이 날카롭고 뛰어나며, 성격이 자극적인지라 말 또한 분명하고 모나게 하는 경향이 많다. 장점은 용기가 많다는 것이고 단점은 쉽게 화를 낸다는 점이다. 믿음은 확고하고 강한 편이다.

다음으로 카파(kapha) 체질에 대해 알아보자. 카파는 5가지 요소 중 물과 흙의 조화로 이루어진 속성이다. 카파는 신체의 장기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합성 구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들 조직을 보호, 유지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안정성과 접착성의 성질을 지녔다. 이러한 카파는 다음의 11가지 성질을 가졌는데 차례대로 나열해 보면 이렇다.

①차가움-체온을 유지하고 신진 대사를 느리게 한다. ②밀집성-모든 조직을 밀집시킨다. ③탁함-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느슨하게 하며 힘이 없어진다. ④점액성-관절의 윤활, 이완, 휴식, 점막의 보호. ⑤유체성(liquid)-모든 분비물을 조절하고 관절에 윤활제를 제공한다. 림프와 혈액 순환의 주 임무를 담당한다. ⑥유성(oily)-피부와 각 장기의 절연체 역할을 하고 관절을 윤활케 한다.

■ 포천중문의대 교수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해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중앙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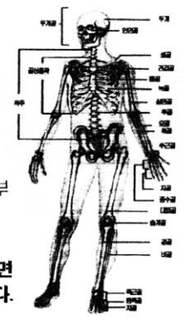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애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대구 대승불교대학 정토사 부설 불교의식 대학
제 2기 불교의식 (범음 · 범패)
수강생 모집
3월초 개강

본 대학은 대승불교의 수행 이념을 전파코자 설립한 교육기관으로서 갑신(甲申)년에 경전 강의와 함께 불교의식반 신입(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 정

㉮ 초급반 (3개월)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5시)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기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행선축원.
신중청, 관음기도법, 산왕기도…

㉯ 중급반 (3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5시)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시다림법, 점안의식, 방생의식, 구병시식

㉰ 작법반 (6개월) :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
천수바라, 다게작법, 오공양작법, 요잡바라, 삼귀의작법 (일명 바라 나비춤)

㉱ 고급반 (6개월) :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희망자 소수)

대구 대승불교대학 부설 범음 · 범패 의식교육원 · 정토사
신청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1914-5 (월촌역4거리)
전화 : 053)622-0333 / 011-699-9120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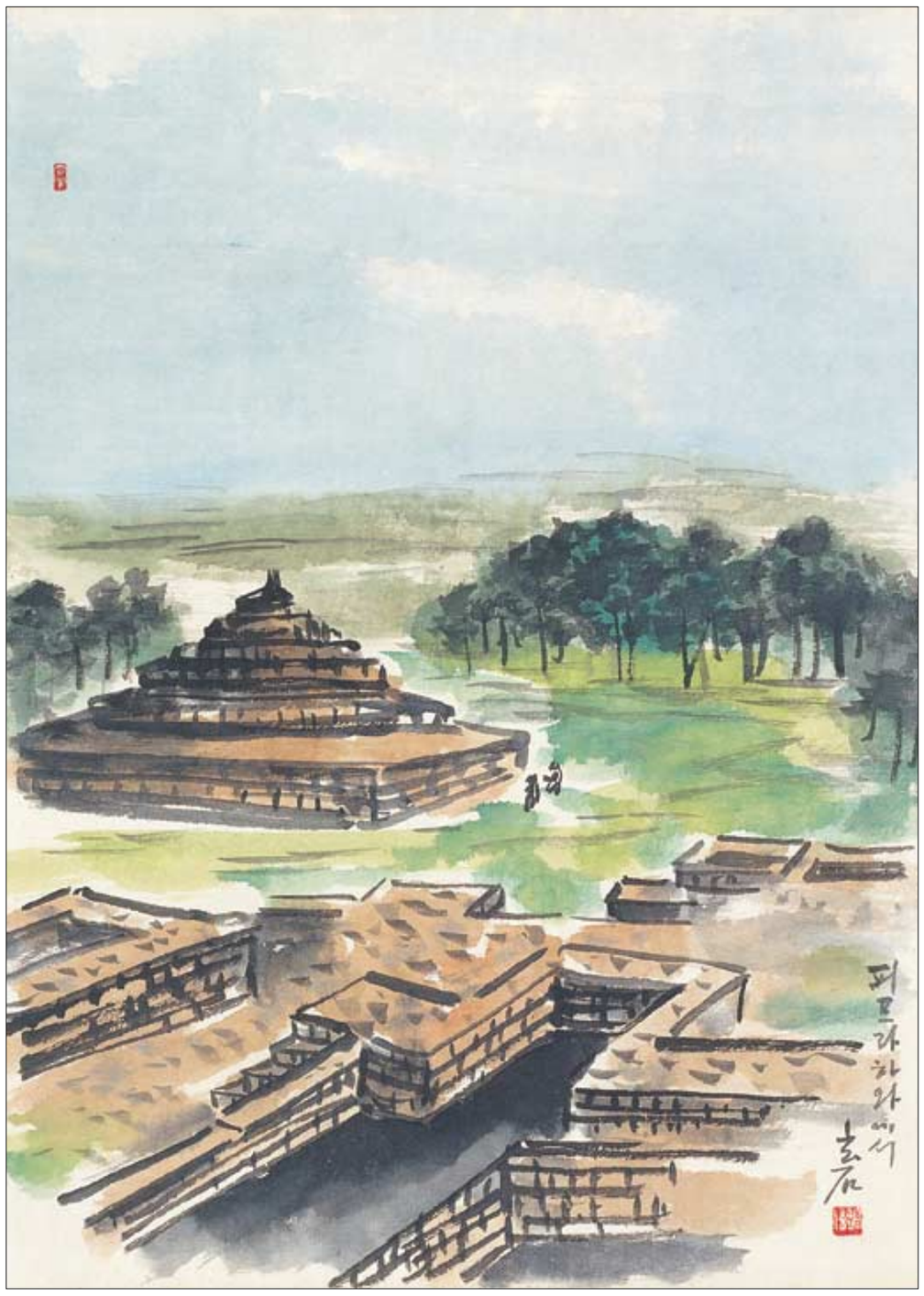
인도그림기행 36

그림·글 이호신

국경너머 붓다의 고향으로

(카필라성터와 네팔의 룸비니)

경계 넘어선 또다른 마음의 고향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 중에서)

붓다의 고향으로 가는 길.

육신의 백골은 삭았으나 혼백이 서린 진신사리가 출토된 곳. 수십일 전 델리박물관에서 본 붓다의 사리용기가 이곳에서 발굴된 피프라하와(PiprahWa) 승원터. 그곳은 붓다의 탄생지인 룸비니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1898년, 승원터의 스투파를 발굴했을때 사리용기엔 "이것은 샤카족의 붓다 세존의 사리용기로서, 그의 형제자매, 처자들이 모신 것이다" 라고 브라흐미 문자로 씌어져 있으니 아마도 세존 입멸 후 8등분한 사리 중 샤카족에게 할당된 사리가 모셔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망고숲이 울울창창 울타리가 되고 있는 승원터는 넓고도 시원한 시야로 거침없는데 들녘에서 불어오는 훈풍, 더없이 푸른 창공을 바라보며 거니는 깨끗한 대지의 초록 물결이여. 그 파문은 마음속으로 잦아들다 다시 솟구치며 무슨 소리를 내는 것만 같다.

순례를 겸한 산책코스는 이제 인근의 간와리아(Ganwaria) 유적지로 길이 열린다. 이곳은 궁성터로 붓다의 조국 카필바스트(Kapilvastu)가 당시 강대국인 코살라(Koshala)에게 멸망한 후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정착한 곳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국경 너머 네팔땅에도 카필바스트가 있으니 사실상 두개의 카필라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국경과 유적 발굴을 놓고 시시비비가 있을 법한데 오늘은 인도 땅의 카필라성터에 인연이 닿았다.

사방으로 난 성문터에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벽돌 구조물. 당시의 건축과 생활 가옥을 살피는데 문외한의 눈에도 아주 중요한 유적으로 느껴진다. 어느 방에 정반왕이 앉았고 마야부인의 그림자가 있었을까. 아기 싯다르타의 숨소리와 씩씩한 청년이 되어 활시위를 당기던 곳은 어디쯤일까. "푸드덕" 후투티 한 마리가 성터에서 솟아오르니 내 상상의 나래짓도 따라 시공을 초월한다.

차는 이제 국경을 향해 달린다.

불조(佛祖)의 탄생지로 가는 길은 어머니 품속으로 다가가는 길인 것만 같다. 마야부인을 떠올리며 '여성은 위대하다' 고 작가(박원자)와 정담을 나누며 가는데 땔나무와 사탕수수를 머리에 이고 가는 여인들의 곤고한 삶의 모습이 노을빛에 저물어 간다.

◀ 피프라하와 유적지(46×64cm).

강을 건너고 국경에 도착한 시간이 6시15분. 벌써 사위는 어둠에 깔리기 시작하는데 수속이 복잡한 듯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무장한 군인과 지렛대 하나만 걸쳐놓은 국경의 풍경은 실로 낭만적이다. 지렛대는 무거운 돌을 달아매었고 장대 끝줄은 가로수 나무에 매달아 놓아 통과 시에만 줄을 푸는 것이다. 13년 전(1991년) 법정스님의 사진(<인도기행>)의 장대가 이제 교통표시 페인트칠

**어머니 품속으로 다가가는 길 같은 룸비니…
싯달타 태자의 숨소리와 고뇌가 느껴지는 카필라성터**

로 변했을 뿐 국경의 문은 여전히 단조롭다.

백미러엔 그새 불어난 통관 대기차량이 즐비한데 조각달이 허공에 걸린 시간, 갑자기 붉은 승복을 입은 베트남 비구니 스님(짬바; Jampa)이 차에 오르지 않는가.

사정인즉 룸비니행 차편을 놓쳐 같은 방향이면 태워달라고 부탁하기에 마침 내 옆자리가 비어있어 스스럼없이 권하였다. 나이(30세)보다 훨씬 해맑은 눈빛을 지닌 스님은 의과대학 출신으로 출가했고 달라이라마를 스승으로 수행중이라 한다. 지나온 기행 화첩을 보여주자 매우 반색하는 순간, 언어의 장벽은 사라졌다. 잠시간이지만 낯선 국경(인도-네팔) 앞에서 국가를 초월한 만남에 고무되어 나는 엽서에다 스님의 모습을 그려드렸다.

그런데 이어 송암 스님께서 적지 않은 보시금을 만행길 노자로 쓰시라고 짬파 스님께 전달하는게 아닌가.

"한국은 베트남에 진 빚이 많습니다. 그 빚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순간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월남전 참상이 떠올랐다. 전쟁고아로 성장해 아버지의 나라 한국을 찾아온 월남 청년. 첫사랑의 비련만 남기고 떠나간 한국 군인의 낡은 사진을 들고 통곡하는 월남 여인의 눈물을 무엇으로 치유하랴. 그 비극 앞에서는 우리 모두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어야 하리.

서늘한 국경의 밤에 뜨거운 사연을 실은 차는 마침내 어둠을 헤쳐 룸비니 주변 숙소인 한국사원 대성 석가사에 이르렀다.

순례객을 웃음 띤 얼굴에 두 손으로 맞아주는 법신(法信) 스님. 룸비니 손님은 의례 석가사에 묵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한국 절이라서가 아니라 스님의 수행생활, 즉 10년 넘게 불사를 지속해 온 원력에 찬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진행 중인 건물은 룸비니 지역의 기후변화로 목재가 아닌 콘크리트지만 건축양식은 한옥의 이미지를 구현하려고 한단다. 이에 스님은 절을 짓기 위해 설계를 배우고 직접 가마를 설치, 기와를 구어왔다고 한다. 공사 감독에다 연일 순례객을 현지답사로 안내하는 일들이 산적하지만 활달한 유머감각에 긍정적인 사고는 누구에게도 친화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스타일이다.



국경의 밤(45×31cm).

늦은 밤잠에 쉬이 온 새벽. 스산한 새벽 기운에 잠바를 걸치고 지난 밤에 제대로 보지 못한 도량을 살펴보니 그야말로 "어마어마" 하다. 도대체 저 거대한 불사가 한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되었단 말인가. 다시 살아난 한국의 수닷타 장자! 법신스님.

아침 식사 후 승차를 기다리는데 잿빛 승복의 두분 스님이 다가와 인사를 청하니 바로 자현(慈賢), 등운(騰雲) 스님이 아니신가. 수년전 부석사 전경을 그릴 때 봉황산을 함께 타며 다담(茶談)을 나누었던 그날의 인연이 룸비니로 이어지다니….

어쩌면 오늘의 해후는 모두 '또 다른 고향'을 찾아 떠난 나그네들의 만남이 아닌가도 싶다.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서옹당 상순대종사 49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옹당 상순대종사의 49재를 1월 30일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여법하게 거행하였습니다.
49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생을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정진하신 서옹 대종사께서는
조사선 가풍을 재정립하고 참사람결사를 제창하시었으니
고불총림 백양사의 문도와 상좌 일동은 대종사의 큰 뜻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유지를 잇고 더욱 용맹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옹 대종사의 다비식 후 49재기간 내내
참사람 수행관 앞에 긴 줄을 이루어 사리를 친견하고
환희심에 벅차 절을 올리고 또 올리던 사부대중의 요청에 따라
사리친견법회를 49재 이후에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부대중 여러분의 보다 큰 관심과 격려 속에
서옹 대종사의 큰 뜻을 빛내는 도량이 되겠습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서옹 대종사 상좌 일동 합장

▶ 서옹 대종사 사리 친견법회 2004년 4월 18일 까지 합니다.